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

전시를 들어가며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 국가도서관National Library of Korea으로서 국내외 기관과 민간에 흩어져 있는 한국 고문헌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의 소중한 지식 문화유산으로 고문헌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하기 위해 연 1회 '고문헌 특별전'을 개최해 왔는데, 올해는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책을 통해 메시지를 전할 때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그림을 그려 넣어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책 속의 그림은 감상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회화가 아니라 메시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삽화입니다. 『강화부궁전도』나 『화도진도』처럼 글이 거의 없는 그림 위주의 보고서도 특별한 목적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회화보다는 삽화의 성격을 더 갖고 있습니다.

옛책 속의 그림에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림 자체의 감상보다는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어, 지식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고문헌의 색다른 가치와 즐거움을 국민들에게 전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된 고문헌 28만여 책(점)의 보존과 이용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 도서관 누리집https://www.nl.go.kr/에서 원문 이미지의 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시된 모든 고문헌은 원문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옛책 속에 담긴 그림 이야기와 고문헌 원본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며 지식 문화유산으로서 고문헌의 가치와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서 혜 란**

일러두기

1. 이 책은 2020년 6월 15일(월)부터 8월 16일(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에서 개최한 고문헌 특별전 '국립중앙도서관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의 전시도록이다.
2. 전시 수록 자료는 고판화박물관 소장 '오륜행실도 목판' 이외에는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다.
3. 표지는 「원행을묘정리의궤」의 그림을 기초로 디자인한 것이다.

목차

09 1. 그림 속 모임

선비들의 동창회 : 기로회도폭耆老會圖幅

관청 직원들의 모임 : 영종사마도英宗賜馬圖

15 2. 그림으로 읽는 행사

세자의 입학식 이야기 : 춘궁강학도春宮講學圖

시호 맞이하기 : 효간공연시장孝簡公延諡帳

왕릉행차 이야기 :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79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목장 이야기 : 목장지도牧場地圖

행궁 이야기 :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

바다를 지켜라 : 화도진도花島鎭圖

107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125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141 6.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1

그림 속 모임

선비들의 동창회 : 기로회도폭 耆老會圖幅

제작자 미상 / [원도: 1629 / 모사: 1800년대] / 채색필사본 / 1장 / 137.2×77.0cm / 한貴古朝57-가783

기로회도폭은 1629년인조 7 6월 5일에 숭례문 앞 남편연못南池의 홍사효洪思斅 집에서 열렸던 기로회耆老會 계원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입니다. 기로耆老는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뜻하며, 기로회는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난 선비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이 그림 속의 기로회에는 12명이 참석하였는데, 68세의 심론을 제외하면 모두 71세부터 81세까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본래 도화서 화원 이기룡李起龍, 1600~미상이 12장을 그려 참석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가졌는데, 전시된 그림은 1800년대에 전해오던 그림을 기초로 모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로회, 벼슬에서 물러난 나이 많은 선비들의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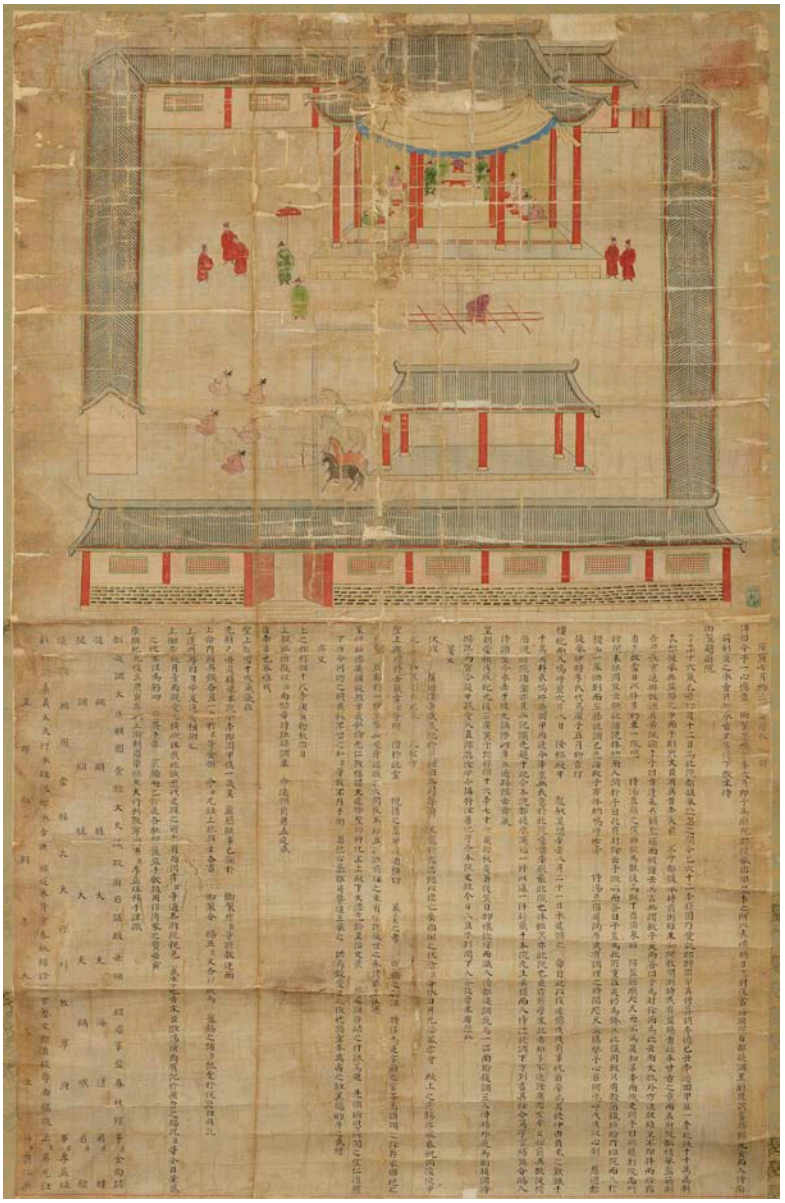
그림 아래쪽에 숭례문과 서울성곽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멋들어지게 늘어져 있고 연꽃이 가득한 남편연못南池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쪽에 모임의 장소였던 홍사효의 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사효의 집 가운데에는 모임 참가자가 오른쪽으로부터 나이 순서에 따라 ❶ 이인기李麟奇, ❷ 윤동로尹東老, ❸ 이유간李惟侃, ❹ 이호민李好民, ❺ 이권李勸, ❻ 홍사효洪思斅, ❼ 강인姜絪, ❽ 이귀李貴, ❾ 서성徐渻, ❿ 강담姜紞, ⓫ 유순익柳舜翼, ⓬ 심론沈惀 등 12명이 반원을 그리며 독상을 받고 앉았습니다. 두 번째의 윤동로와 마지막의 심온 자리에 노란 방석만 그려져 있는데, 두 사람은 자리를 떠나 반원 가운데쯤에서 마주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옥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온 자제들이고, 오른편에는 술과 음식을 장만하는 공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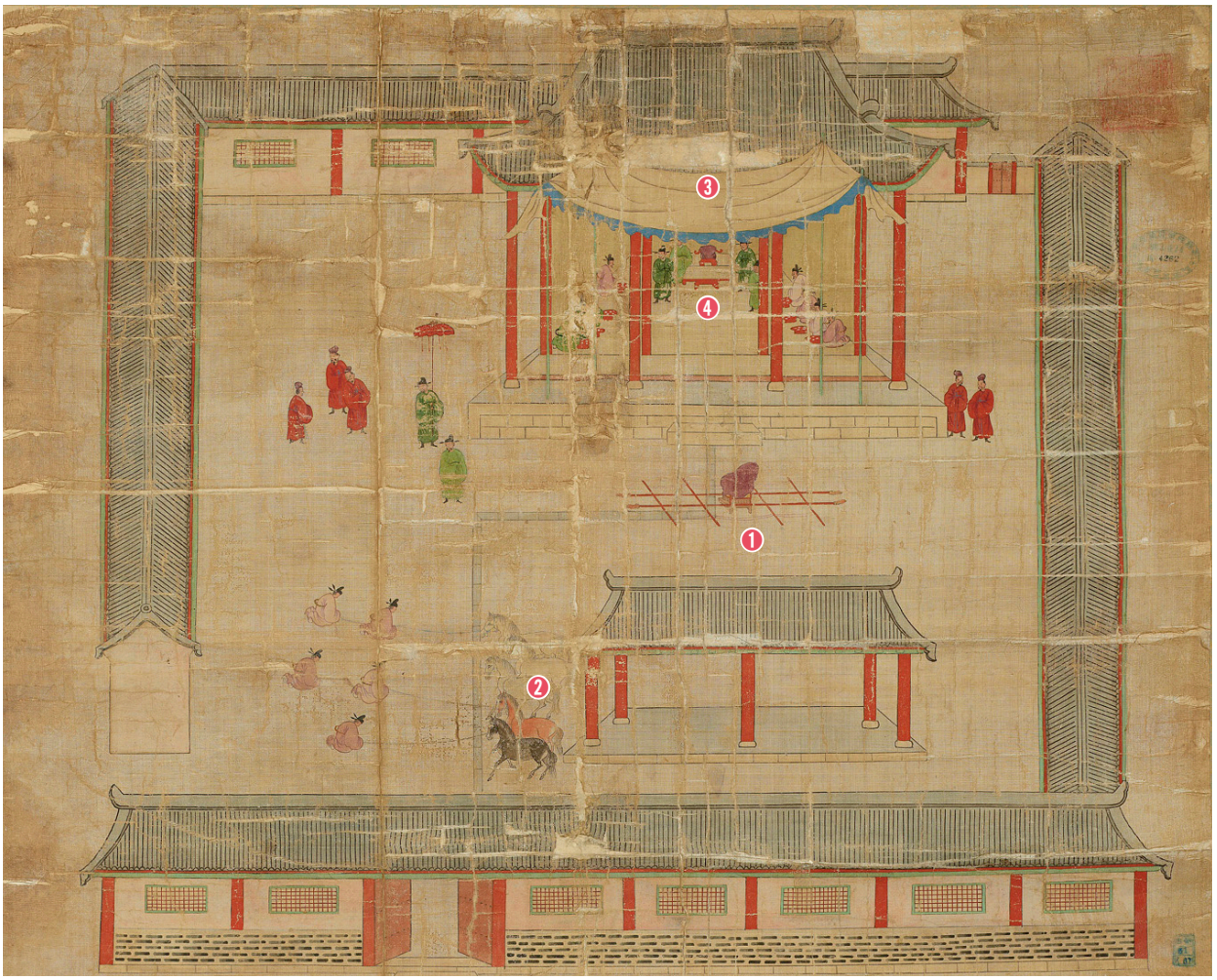
그림 아래에는 장유張維, 1587~1638의 기문記文이, 좌우로는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의 서문序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유의 기문 아래에는 나이 순서에 따라 모임 참가자의 관직, 성명, 자字, 호號, 생년월일, 본관과 함께 자제들의 관직,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청 직원들의 모임 : 영종사마도英宗賜馬圖

김상철 등 편 / [1770] / 채색필사본 / 1장 / 190.0×105.0cm / 한貴古朝51-나67



영종사마도는 영조 임금이 말을 하사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영조 임금은 1770년영조 46 7월 사옹원司饔院을 방문하여 사옹원의 자문직인 제조提調들과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을 기념하여 그린 그림입니다. 영조는 임금이 되기 전인 16세 때 사옹원의 정3품 또는 종3품의 관직인 제거提擧에 임명되어 몸 담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61년 만에 사옹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옹원은 임금의 식사와 궁중 안의 음식물 공급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청이었습니다. 처음의 묘호는 영종英宗이었고, 1890년고종 27에 영조英祖로 바꾸었습니다.



영조와 사옹원 관리들의 모임 이야기

모임이 있었던 사옹원의 본청 앞에는 영조 임금이 타고 왔던 ❶ 가마[輿]가 놓여 있고, 건물 주변에는 수행원들이 서성입니다. 왼쪽 아래에는 영조 임금이 사옹원의 관리들에게 하사한 ❷ 구마[廐馬] 네 마리가 겹쳐서 그려져 있고, 관원 4명이 말고삐의 끝을 멀리서 잡고 있습니다. 구마[廐馬]는 임금이 공적이 있는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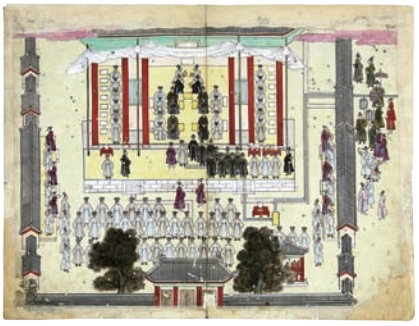
건물의 지붕 아래에는 햇볕을 가리는 ❸ 차일[遮日]이 쳐져 있는데, 연회중임을 알려줍니다. 건물 안의 가운데에는 임금이 앉는 의자인 ❹ 어좌[御座]가 있습니다. 임금의 모습을 그리는 것은 불경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영조 임금의 모습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어좌 좌우에는 녹색 옷을 입은 근접 수행원들이 서 있고, 앞쪽의 양쪽 마루에는 각각 3명씩 사옹원의 관리들이 각상[各床]을 받은 채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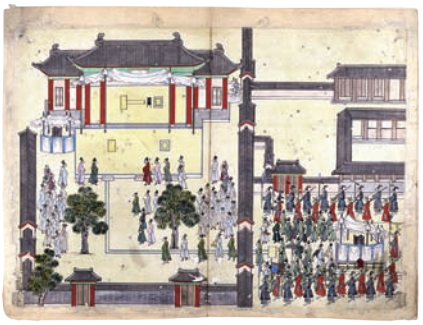
그림 아래쪽에는 네 개의 글이 있습니다. 먼저 영조 임금이 직접 쓴 장문의 글인 어제[御製]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석한 신하들이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써서 영조 임금에게 바친 전문[箋文], 이익정[李益炡, 1699~1782]이 그림을 그리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쓴 서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상철[金尙喆], 이연[李樾], 이유[李楡], 이익정[李益炡], 구윤옥[具允鈺], 황인염[黃仁廉] 등 영조 임금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관원 여섯 명의 직책과 이름이 차례대로 적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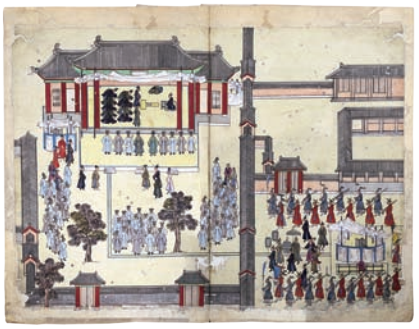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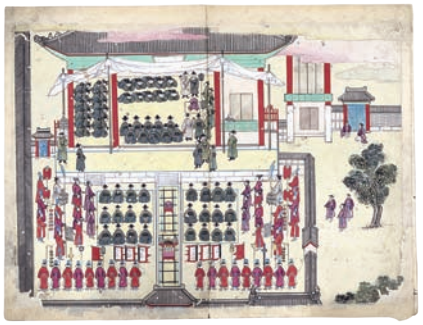
그림으로 읽는 행사

春宮講學圖









세자의 입학식 이야기 : 춘궁강학도春宮講學圖

제작자 미상 / [1817] / 채색필사본 / 1첩 / 37.8×24.9cm / 古貴0230-1

1817년순조 17 3월 11일 아홉 살이 된 순조의 맏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당시의 국립대학교인 성균관에 입학하는 행사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은 출궁도出宮圖, 작헌도酌獻圖, 왕복도往復圖, 수폐도脩幣圖, 입학도入學圖, 수하도受賀圖 여섯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궁도는 효명세자의 행렬이 창경궁을 나와 성균관으로 향하는 장면을, 작헌도는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대성전에 도착하여 공자와 네 성인에게 술잔을 올리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왕복도는 효명세자가 요즘의 대학교 총장인 성균관의 박사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장면을, 수폐도는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예물을 바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입학도는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교육 받는 장면을, 수하도는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효명세자가 고위 관료와 종친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춘궁春宮 과 강학講學

춘궁
春宮

가을秋의 풍성한 결실훌륭한 임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봄春부터 싹세자을 틔워 튼튼하게 자라며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봄의 궁전 춘궁春宮은 임금이 될 세자의 궁世子宮 또는 세자를 상징합니다.

※ 세자 또는 세자의 궁은 아침에 해太陽가 떠서 만물을 생동하게 만드는 동쪽東과 연관시켜 동궁東宮이라고도 부릅니다. [창덕궁 춘궁의 위치 : 저승전儲承殿 또는 중희당重熙堂]

강학
講學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봄의 새싹 세자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성장하여 훌륭한 임금이 되려면 유교 성현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여기며 실천했습니다. 이를 옛날에는 강학이라 했습니다.

『춘궁강학도』의 주인공, 효명세자 孝明世子, 1809~1830

1809년 제23대 임금 순조純祖, 1790~1834의 맏아들로 태어나, 1812년에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성균관 입학식이 거행되었던 1817년 3월 11일, 효명세자의 나이는 아홉 살이었습니다. 1827년, 아버지 순조의 명령으로 국가의 통치를 대신하는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면서 어진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등 훌륭한 정치를 실행했다고 칭송을 받았으나 4년 만인 1830년에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24대 헌종으로 즉위하자 익종翼宗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세자의 일상

아침 적녁으로 임금과 왕비 등
왕실 어른에게 문안인사 드리기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관원으로부터
유교 경전과 역사 공부하기

조강朝講, 아침공부
주강晝講, 점심공부
석강夕講, 저녁공부

틈틈이 군자의 덕목
육예藝六 연마하기

예학禮, 예의범절 악학樂, 음악
궁시射, 활쏘기 마술御, 말타기 또는 마차몰기
서예書, 글씨 산학數, 수학

세자의 통과 의례

세자 책봉식 – 책례冊禮

성균관 입학식 – 입학례入學禮

유교 성인식 – 관례冠禮

결혼식 – 가례嘉禮

입학례

세자가 학생 신분으로 성균관을 방문하여 공자를 비롯하여 유교의 성현을 모신 대성전大成殿에 참배하고 유학을 공부하는 명륜당明倫堂에서 배움을 청하는 입학식으로, 세자 역시 유학을 공부하여 유교의 이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려는 학생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입학식 후에도 세자가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며, 세자만 따로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소속 시강관侍講官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세자의 공부는 매일의 정규 강의인 법강法講으로 조강朝講, 아침공부-주강晝講, 점심공부-석강夕講, 저녁공부이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 배운 것을 복습하고 평가하는 공개 강의인 회강會講이 있었습니다.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 세자를 모시고侍 공부講를 담당하는 관청院

벼슬 이름	품계	비고
사師	정1품 영의정	겸직으로 상징적 스승
부傅	정1품 좌의정·우의정	
이사貳師	종1품 의정부 찬성	
좌빈객左賓客·우빈객	정2품	강의 책임자
좌부빈객左副賓客·우부빈객	종2품	
찬선贊善, 보덕輔德, 겸보덕兼輔德	정3품	강의 실무 담당자
진선進善, 필선弼善, 겸필선兼弼善	정4품	
문학文學, 겸문학	정5품	
사서司書, 겸사서	정6품	
설서說書, 겸설서, 자의諮議	정7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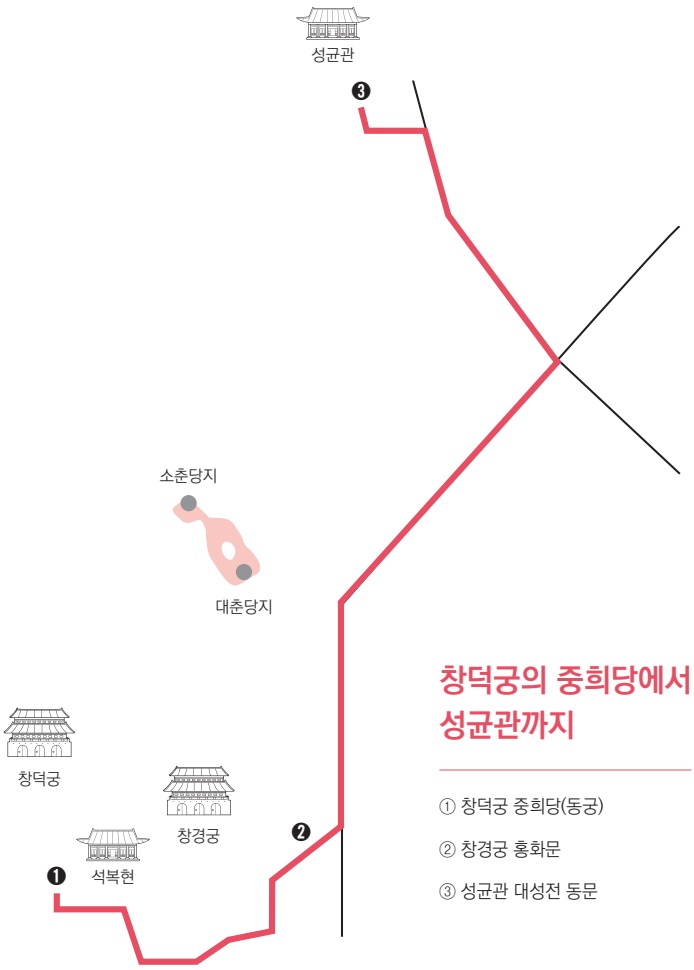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 : 세자를 모시고翊 호위衛를 담당하는 관청司

벼슬 이름	품계
좌익위左翊衛·우익위	정5품
좌사어左司禦·우사어	종5품
좌익찬左翊贊·우익찬	정6품
좌위솔左衛率·우위솔	종6품
좌부솔左副率·우부솔	정7품
좌시직左侍直·우시직	정8품
좌세마左洗馬·우세마	정9품
서리書吏 2, 사령使令 8, 군사軍士)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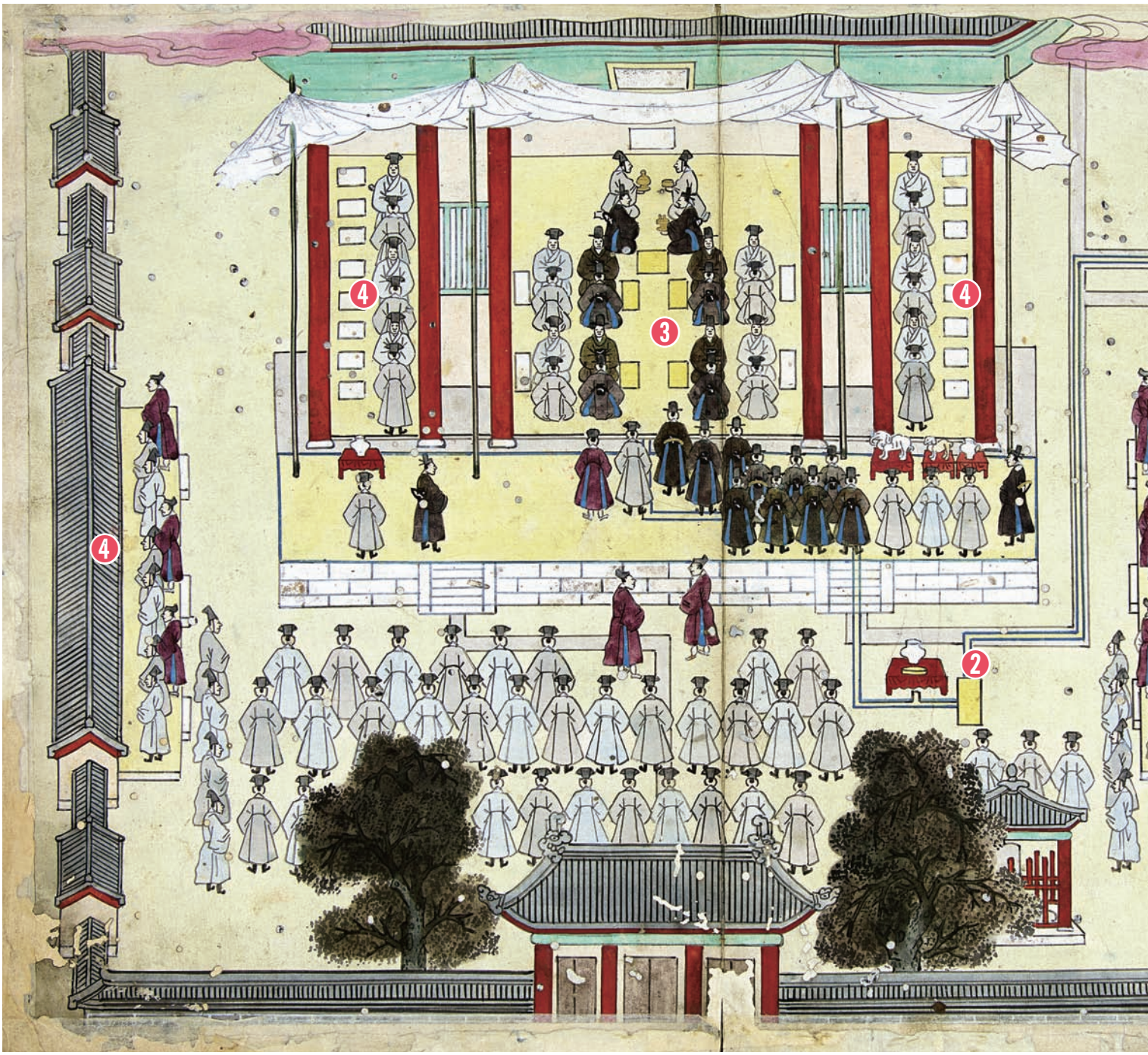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식 이야기

출궁도出宮圖 : 효명세자 궁궐을 나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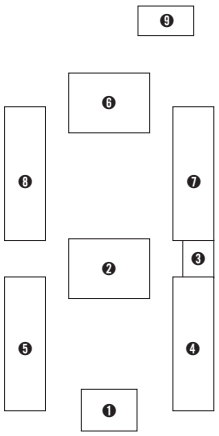
효명세자가 거처인 창덕궁의 중희당에서 입학식이 거행되는 성균관을 향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곤룡포를 입은 효명세자는 중희당에서 작은 가마輿에 올라타고 정문 이극문武極門을 출발하여 창경궁 홍화문弘化門의 동쪽 문을 나와 박석고개館峴를 넘고 성균관 대성전의 동문에 이릅니다.



❶ 효명세자는 행렬 가장 뒤쪽에 그려진 작은 가마 여(輿)를 타고 있었지만 효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❷ 홍화문 밖에서 큰 가마인 연(輦)으로 갈아타고 성균관의 동문까지 이동하였지만 그림에는 연(輦)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❸ 세자를 상징하는 왕세자인(王世子印)이 행렬 가장 앞쪽 중앙의 말에 실려 있습니다. ❹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은 효명세자가 타고 있던 가마 앞쪽에 녹색의 흑단령(黑團領) 관복을 입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❺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은 행렬의 앞에서 의장을 들고 가거나 세자 주변에서 경호하고 있습니다.



❶ 대성전의 동문 밖에 도착한 효명세자는 가마에서 내려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학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❷ 효명세자는 시강관 겸보덕의 안내를 받아 동문을 통해서 두 줄의 선을 따라 마당으로 들어가며, 대성전을 향해 네 번 절한 후 계단 아래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아 붉은 상 위의 물 단지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❸ 두 줄의 실선을 따라 정전의 마루에 올라 먼저 북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아 흰 사각형으로 그려진 공자의 신위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앞쪽의 노란 사각형 자리에 앉아 동쪽과 서쪽의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사성(四聖) 의 신위에 향불을 피우고 술잔을 올렸습니다. ❹ 효명세자가 공자 및 사성의 신위에게 술잔을 올리는 의식이 끝난 후, 성균관에 소속된 유생들이 분담하여 정전 좌우 익실의 16인과 동무와 서무 112인의 신위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성균관 배치도

① 외삼문 ② 대성전 ③ 동문 ④ 동무 ⑤ 서무 ⑥ 명륜당(강의실)
⑦ 동재(기숙사) ⑧ 서재(기숙사) ⑨ 존경각(도서관)

작헌도酌獻圖 : 효명세자 공자님께 술잔을 올리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대성전에 있는 공자와 네 성인의 신위神位에 술잔을 올리는酌獻 의식을 그렸습니다. 세자익위사의 관헌들은 동문 밖에 대기하고, 흑갈색의 흑단령 관복을 입은 세자시강원의 시강관과 흰색·회색 등의 복장을 한 성균관 유생들이 효명세자를 따라 대성전 안쪽에 도열하였습니다. 효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대성전 동문에서 제사 의식이 거행되는 마루까지 효명세자가 움직이는 동선動線이 두 줄의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대성전(大成殿)에 모셔진 신위의 배치

① 정전 안 북쪽 벽 앞 :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공자의 신위
② 정전 안 동쪽과 서쪽 벽 : 안자·증자·자사·맹자 등 사성四聖 의 신위
③ 정전 좌우 익실翼室 : 공문십철孔門十哲 안연顔淵·민자건閔子騫·염백우冉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공子貢·염유冉有·계로季路·자유子游·자하 10인, 송조육현宋朝六賢 주돈이周敦頤·정호程顥·정이程頤·소옹邵雍·장재張載·주희朱熹 6인 등 16인의 신위
④ 대성전 앞쪽南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 중국인 학자 94인, 우리나라 학자 18인 등 총 112인의 신위

우리나라 학자 18인

순서	서무		동무	
	이름	생몰년	이름	생몰년
1	최치원	857~미상	설 총	655~미상
2	정몽주	1337~1392	안 향	1243~1306
3	정여창	1450~1504	김굉필	1454~1504
4	이언적	1491~1553	조광조	1482~1519
5	김인후	1510~1560	이 황	1501~1570
6	성 혼	1535~1598	이 이	1536~1584
7	조 헌	1544~1592	김장생	1548~1632
8	송시열	1607~1689	김 집	1574~1656
9	박세채	1631~1695	송준길	1606~1672

왕복도往復圖 : 효명세자의 가르침 요청과 스승의 허락 이야기가 왕복하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의 강의실인 명륜당明倫堂에서 스승에게 수업을 청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대성전에서 작헌례를 마치고 나온 왕세자는 그림 오른쪽에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시강관 보덕의 인도를 따라 명륜당 대문 동쪽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도 세자익위사의 관헌들은 동문 밖에 대기하고, 흑갈색의 흑단령 관복을 입은 세자시강원의 시강관과 흰색·회색 등의 복장을 한 성균관 유생들이 대성전 안쪽에서 의식을 돕습니다. 왕복도에서도 효명세자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지만 명륜당 계단까지 효명세자가 움직이는 동선動線이 두 줄의 실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효명세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대화

효명세자 감히 배우기를 청합니다.
(앞으로 조금 나와서) 아무개는 선생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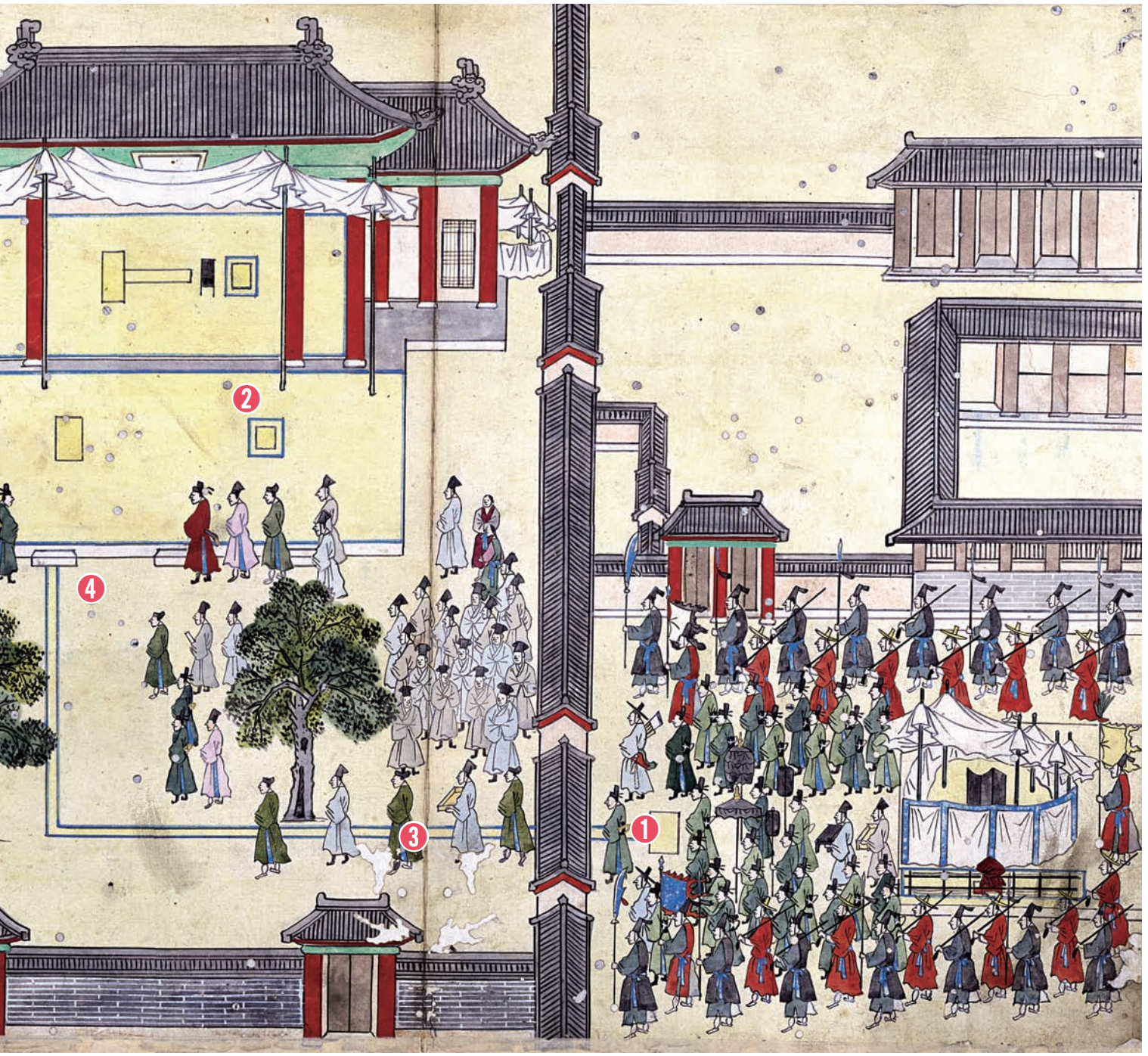
박사 아무개는 부덕不德합니다. (세자께서) 욕됨이 없기를 바랍니다.

효명세자 (진실하게 청하며) 선생께 수업 받기를 원합니다.

박사 아무개는 부덕합니다만 세자께서 자리로 가소서.
아무개가 감히 (나가서) 뵙겠습니다.

효명세자 감히 손님賓客으로 만날 수 없으니, 청컨대 뵙도록 해주소서.

박사 아무개가 사양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면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❶ 효명세자는 명륜당의 동문 밖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서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이때 세자의 서쪽에는 스승에게 바칠 모시 3필의 폐백 한 광주리, 두 말 분량의 술 한 병, 안주용 육포 다섯 묶음이 놓인 상이 순서대로 차려집니다. ❷ 스승이 되는 성균관의 박사는 붉은색 공복(公服)을 입고 집사자의 안내를 따라 명륜당 동쪽 계단 위의 겹사각형 자리에서 서쪽을 향해 섭니다. 우리나라에서 해 뜨는 동쪽을 해 지는 서쪽보다 높게 보았습니다. 입학례에서는 제자인 효명세자가 스승보다 낮다고 인식하여 서쪽에, 스승인 박사가 동쪽에 자리합니다. ❸ 문밖에서 효명세자가 문 안의 박사에게 가르침을 청하며, 박사가 이에 답합니다. 성균관의 유생 가운데 모범생으로 선발된 장명자(將命者,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가 효명세자와 박사 사이를 오가면서 말을 전하는데, 이것을 왕복의(往復儀)라고 했습니다. ❹ 박사의 허락을 받은 효명세자는 보덕의 안내를 받아 명륜당 마당으로 들어서고, 박사가 오른쪽 계단을 내려와 서쪽을 바라보며 효명세자를 기다립니다.

4
1
2
3

수폐도[脩幣圖] : 효명세자 스승에게 예물을 드리다

효명세자가 박사에게 예물을 드리는[脩幣]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계단 아래에서 효명세자와 박사가 마주한 다음, 효명세자는 서쪽 계단을 통해, 박사는 동쪽 계단을 통해 위로 올라갑니다. 박사는 계단 위 오른쪽의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붉은 옷을 입고 있고, 효명세자는 왼쪽의 노란색 사각형 위에 있지만 모습을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❶ 효명세자가 폐백이 든 광주리를 받은 다음 무릎을 꿇고 박사에게 두 번 절을 하면 박사도 답례로 두 번 절을 합니다.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이 효명세자 뒤쪽에 엎드려 있습니다. ❷ 효명세자가 무릎을 꿇은 채 폐백 광주리와 술, 안주가 놓인 상을 받은 후, 집사자(執事者)들을 시켜서 박사에게 올리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❸ 박사도 무릎을 꿇고 폐백 광주리와 술, 안주를 받아 집사자에게 넘깁니다. ❹ 예물을 모두 바친 효명세자는 시강관인 보덕의 안내를 받아 명륜당을 향해 두 번 절을 한 후 왼쪽에 임시로 설치한 숙소인 편차(便次)에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입학도入學圖 : 효명세자가 스승에게 교육을 받다

효명세자가 스승인 박사에게 교육을 받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박사는 명륜당 마루의 동쪽 자리에 서쪽을 향해, 효명세자는 서쪽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동쪽을 향해 앉습니다. 그리고는 박사는 책상 위에 책을 펴놓고 강의를 하며, 효명세자는 바닥에 엎드려 책을 보았습니다. 박사 앞의 책상 위와 효명세자 앞에 책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자시강원의 시강관들이 효명세자 뒤쪽에 엎드려 있습니다.

효명세자와 스승 사이에 오간 대화

효명세자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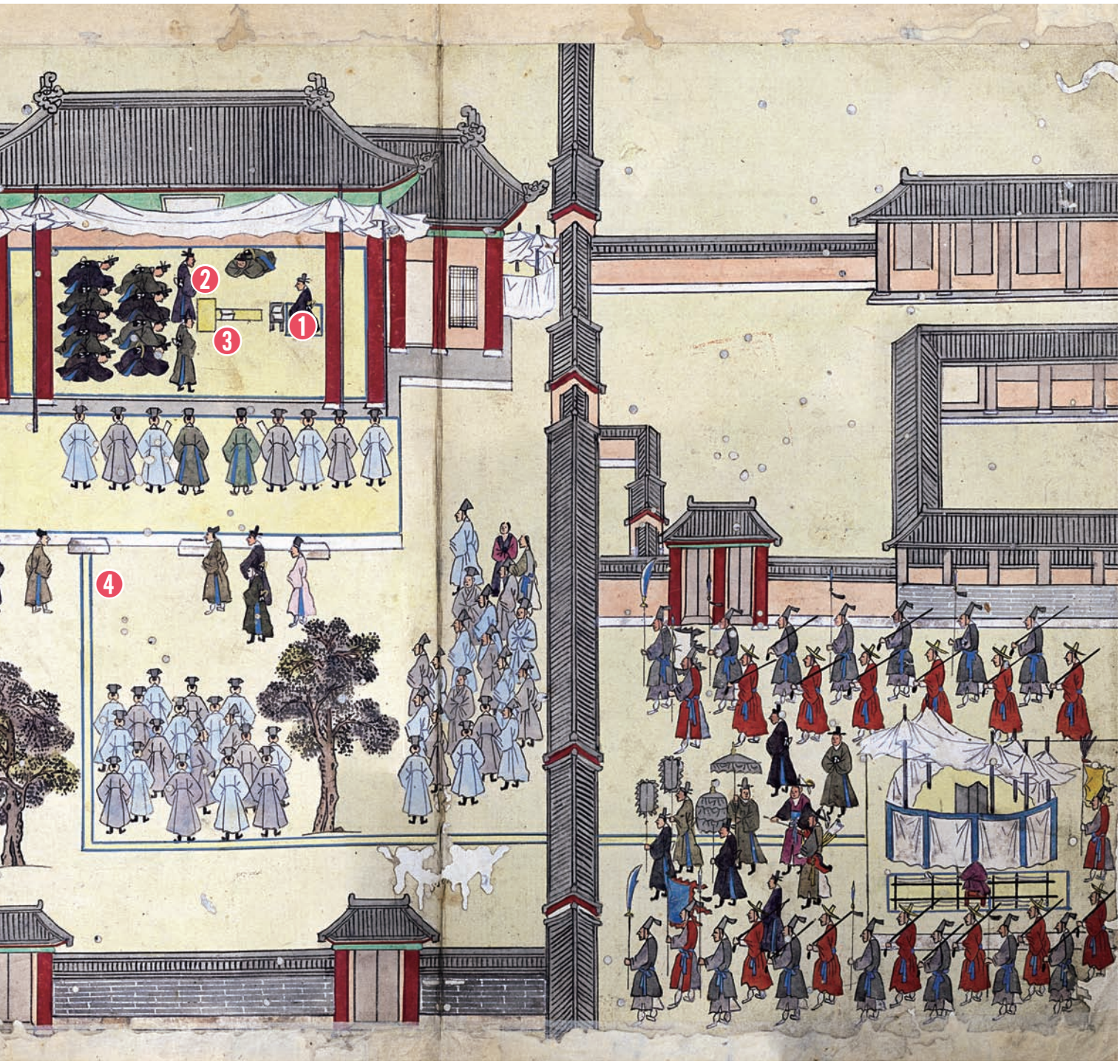
스승 저하邸下의 이 물으심은 참으로 종묘 사직과 신민의 복입니다. 세자께서 어린 나이에 입학하여 이미 성인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는 뜻이 있으시니, 참으로 이 마음만 잘 미루어 확충하신다면 요堯임금도 될 수 있고 순舜임금도 될 수 있는데 지금부터가 그 시작입니다.

효명세자 여기에서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서는 공손하라.'고 하였는데, 효도를 하려면 무엇부터 먼저 하여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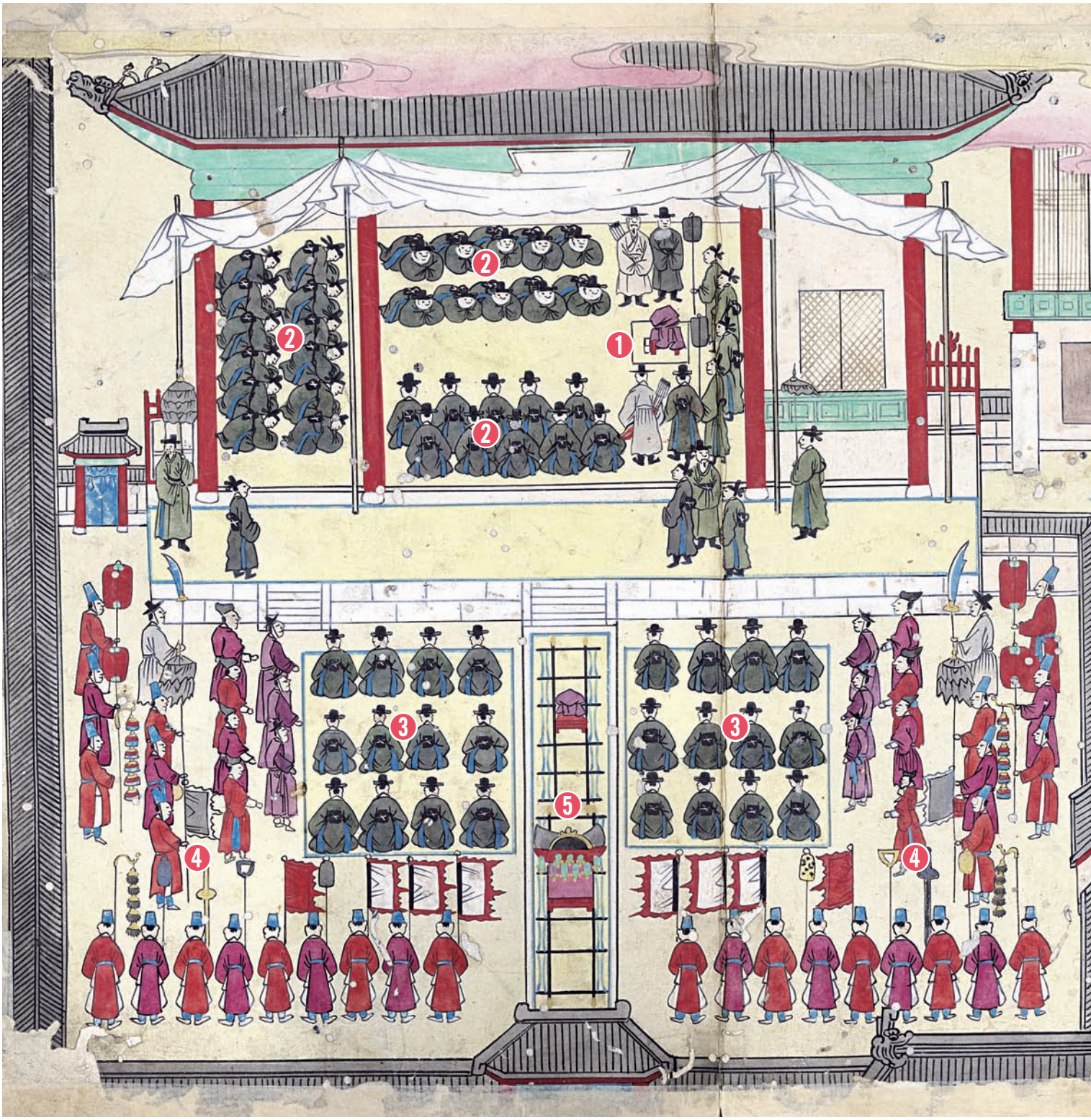
스승 효도를 하는 길에 대하여 그 허다한 절목을 논하자면 갑자기 다 대답해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땅히 덕을 닦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데에 어찌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신修身은 제가·치국·평천하의 근본인 만큼 효도의 큰 근본은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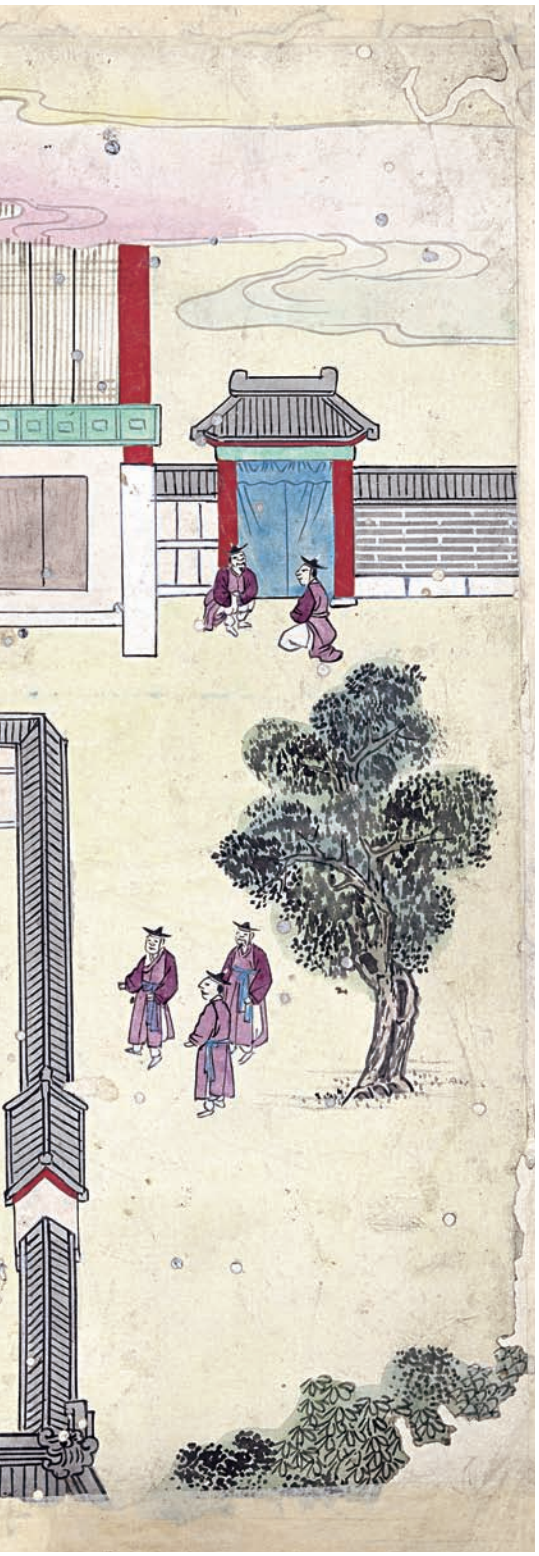
효명세자 입학례 분위기에 대한 『순조실록』의 기록

세자의 나이는 아홉 살이 되었으며 비로소 입학하였는데, 자질이 온순 단아하고 예의범절이 숙성하였다. 선성先聖을 지알祗謁하는데 주선周旋이 법도에 맞았고, 강독할 때에 글 읽는 소리가 가락에 맞았으며, 천인天人·성명性命의 토론과 문답에 있어서 의젓하기가 성덕成德한 이처럼 의표儀表가 있었다. 시종하던 신하들과 선비로서 다리橋를 에워싸고 구경한 사람이 수천 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목을 길게 늘이고 손을 모아 송축하였다.



❶ 강의가 시작되면 박사는 문장의 음을 읽고 뜻풀이를 해주었으며, ❷ 효명세자는 이를 따라서 읽었습니다. ❸ 이날의 교재는『소학(小學)』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집사자가 나와서 책상과 책을 물렸고, 효명세자는 시강원 보덕의 안내를 받아 ❹ 서쪽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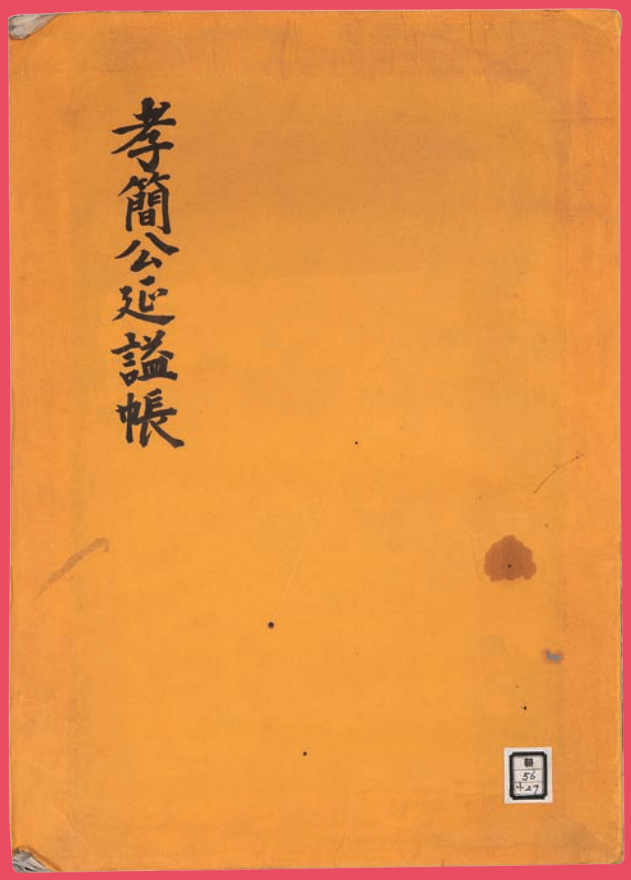

1
2
2
2
3
3
4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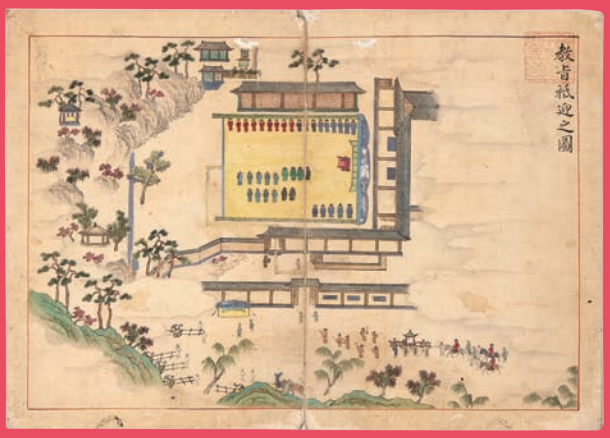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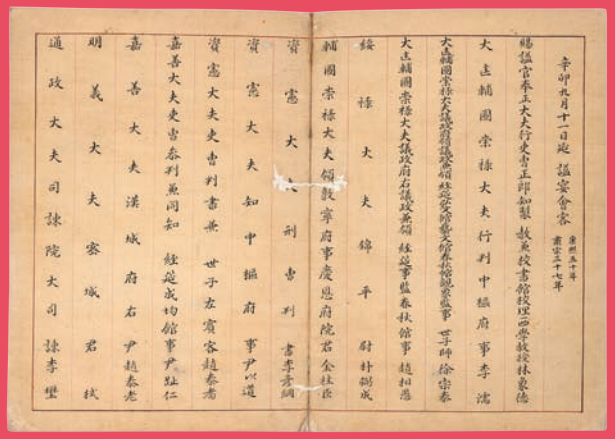
수하도受賀圖 : 효명세자가 입학식을 마치고 축하 인사를 받다

효명세자가 성균관에서의 입학례를 마치고 평소에 공부하던 창덕궁의 시민당時敏堂으로 돌아온 후 종친과 고위 관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受賀 장면을 그렸습니다. 효명세자가 주인으로서 축하 인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균관에서와 달리 효명세자의 이동 동선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❶ 효명세자는 건물 안 마루 동쪽의 노란색 사각형 자리에 앉아 있었고, 바로 주변에는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이 서서 호위하고 있습니다. ❷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는 건물 안 마루 서쪽에 엎드려 있고, 3품 이하의 관리는 뜰에 앉아 있습니다. 3품 이하 관리들 주변의 뜰에는 ❹ 세자익위사의 관원들이 도열해 있고, 뜰 가운데에는 효명세자가 타고 갔던 ❸ 작은 ❺ 가마(輿)와 큰 가마(輦)가 놓여 있습니다.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가 행사장으로 들어오면 효명세자는 동쪽 계단에 서서 맞았고, 이들이 서쪽 계단을 통해 마루로 올라와 두 번 절을 올리면 효명세자도 답례로 두 번 절하였습니다. 신하들이 임금에게 올리는 송덕의 글인 치사(致詞)를 관리가 대신 읽으면 효명세자와 신하들이 함께 꿇어앉아서 들었습니다. 치사 읽기가 끝나면 종친과 2품 이상의 관리가 효명세자에게 다시 두 번 절했고, 효명세자 또한 답례로 두 번 절하였습니다. 이후 3품 이하의 관리들이 뜰에서 두 번 절하는 것으로 행사가 끝났습니다.






辛卯九月十一日廷 諡宴會次 東照五十年 肅宗三十七年

賜諡官奉玉大夫行吏曹正郎知製 敎兼校書館校理西學敎授林象德

大 主 輔國 崇祿 大 夫 行 判 中樞府 事李 濟

大 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 經筵 弘文館 藝文館 春秋館 觀象監 事 領 事 帥 徐宗泰

大 主 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 領 經筵事 監春秋館事 趙相愚

輔 國 崇 祿 大 夫 領 敦寧府事 慶恩府院君 金 壯 臣

資 憲 大 夫 刑 曹 判 書李 秉 鼎

資 憲 大 夫 知 中 樞 府 事 尹 以 道

資 憲 大 夫 吏 曹 判 書 兼 世子 左 賓 客 趙 泰 耉

嘉 善 大 夫 吏 曹 參 判 兼 同 知 敎 經 筵 成 均 館 事 尹 鉉 仁

嘉 善 大 夫 漢 城 府 右 尹 趙 泰 考

明 義 大 夫 密 城 君 玹

通 政 大 夫 司 諫 院 大 司 諫 李 壁

시호 맞이하기 : 효간공연시장孝簡公延諡帳

제작자 미상 / [1711] / 채색필사본 / 1책 / 41.6×29.7cm / 한貴古朝56-나27

1711년숙종 37 9월 11일, 조선시대 외척을 관장하는 돈녕부의 종1품 관직인 판돈녕부사를 지낸 이정영에게 숙종 임금이 하사한 효간孝簡이란 시호諡號를 본가의 후손들이 맞이하는 행사를 기념하여 제작한 그림 첩입니다. 교지를 공경하며 맞이하는 장면을 그린 교지지영지도敎旨祗迎之圖, 교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그린 교지선독지도敎旨宣讀之圖, 손님과 주인이 축하 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린 빈주연회지도賓主讌會之圖 세 장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 행사에 참석한 27명의 명단인 연시연회객延諡宴會客, 행사 축하시를 수록한 시연수창록諡筵酬唱錄이 뒤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효간공孝簡公 과 연시延諡

이정영
李正英
1616~1686

아버지는 호조판서를 지낸 이경직李景稷, 1577~1640이고, 호는 서곡西谷이다. 1636년인조 14의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2품의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거쳐 종1품의 판돈녕부사까지 역임하였다.

시호
諡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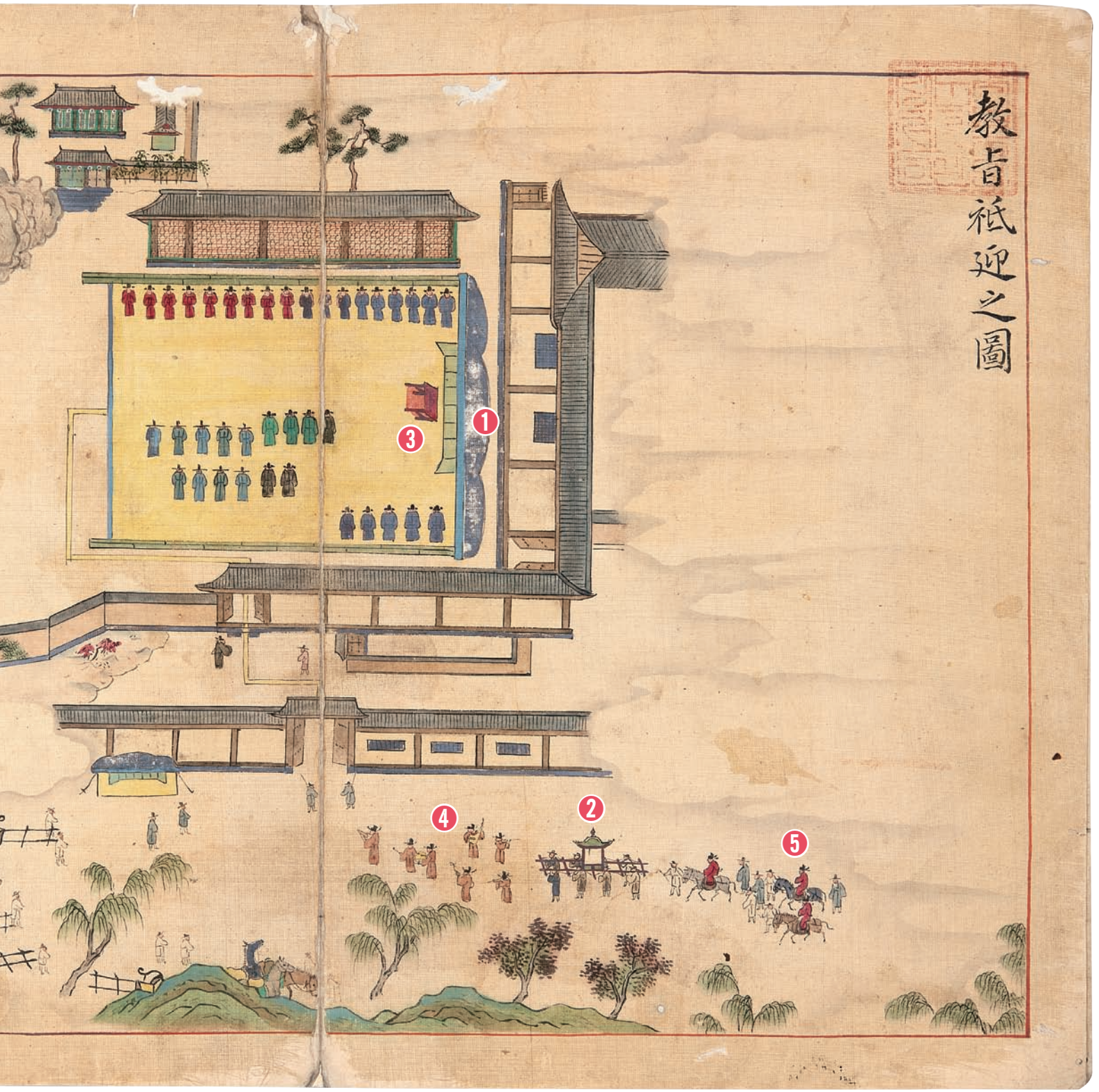
정2품 이상의 관직을 지내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관료가 죽은 후 임금이 해당 관료의 인품과 공적을 칭송하여 내리는 이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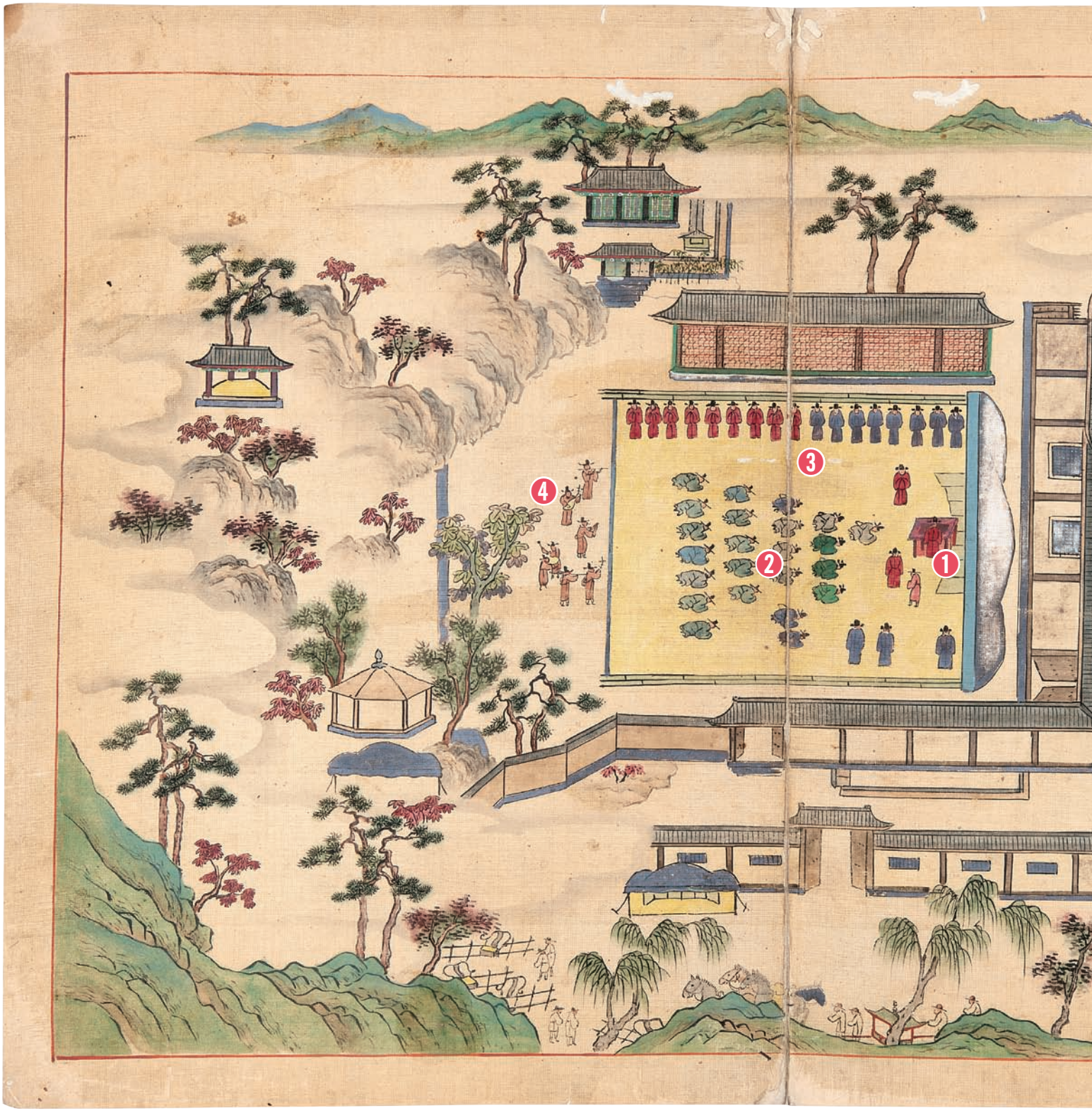
연시
延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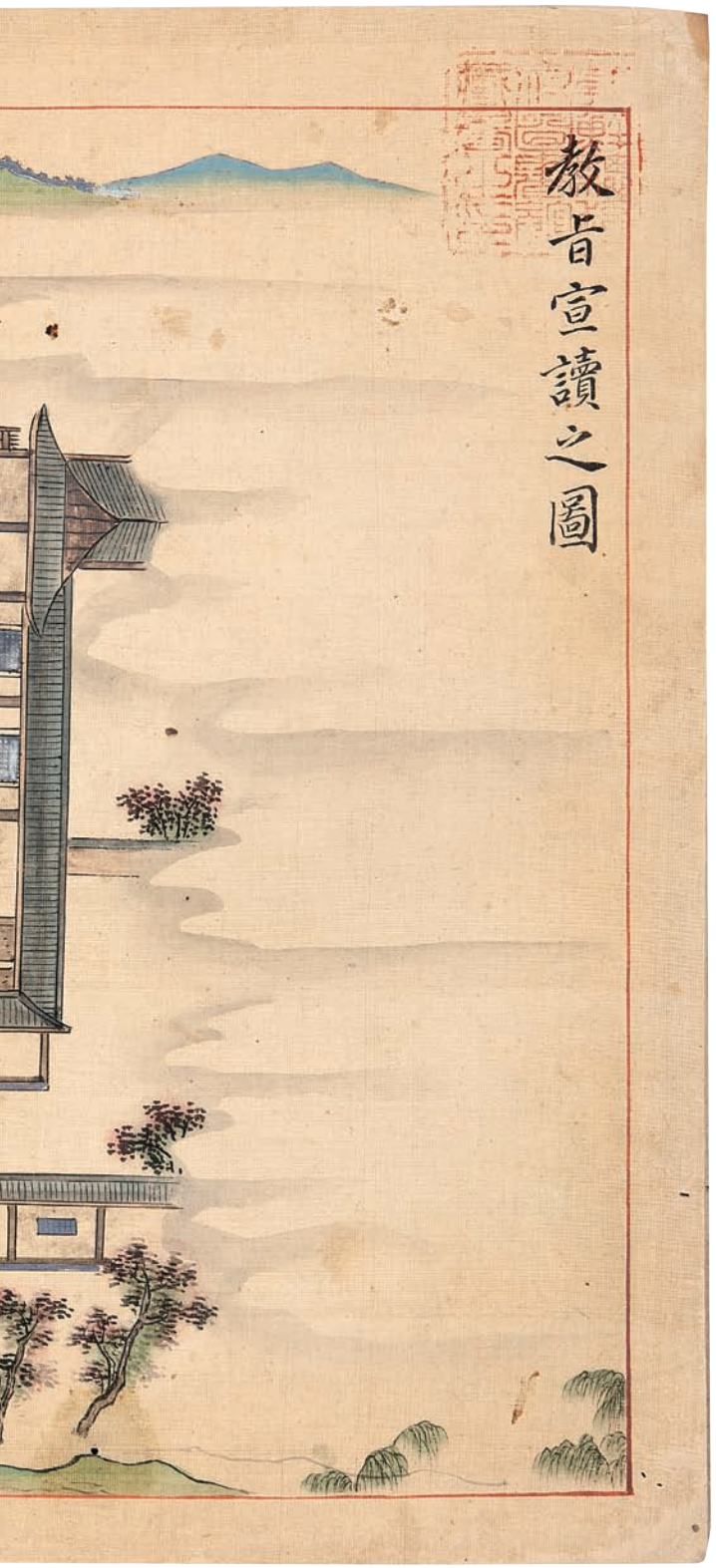
임금이 내리는 시호諡號를 본가에서 후손들이 맞이하는 행사다.

교지지영지도 教旨祗迎之圖
: 교지를 공경히 맞이하다

숙종 임금이 이정영에게 '효간孝簡'이란 시호를 내린다는 문서인 교지教旨가 본가에 도착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집 안에는 ❶ 천막을 치고 ❷ 가마에 실은 교지를 놓을 ❸ 탁자를 중심으로 손님과 후손들이 도열해 있는데, 천막 안이 보일 수 있도록 지붕을 천막 오른쪽에 그렸습니다. 집 밖에는 교지를 실은 가마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❹ 7인의 악공 행렬이 악기를 연주하며 걸어가고, 뒤쪽에는 임금 대신 시호를 하사하는 ❺ 사시관賜諡官들이 말을 타고 있습니다. 그림 왼쪽 아래에는 행사 참여자들이 타고 온 ❻ 가마와 가마꾼이 보입니다.


教旨祗迎之圖
1
2
3
4
5


1
2
3
4



교지선독지도 教旨宣讀之圖 : 교지를 낭독하다

❶ 사시관이 천막 안의 탁자 옆에서 임금이 내린 교지를 낭독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❷ 후손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서, 후손이 아닌 ❸ 손님들은 한쪽에 줄지어 서서 듣고 있습니다. 행사장인 천막 밖에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❹ 7인의 악공이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빈주연회지도賓主讌會之圖
: 손님과 주인이 축하 잔치를 벌이다

행사를 마친 후 손님賓과 주인主이 함께 하는 축하 잔치인 연회讌會의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천막 안에는 ❶ 손님들 각각 잔치상을 받고 앉아 있으며, ❷ 시녀들이 축하 음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❸ 교지가 놓인 탁자는 천막 밖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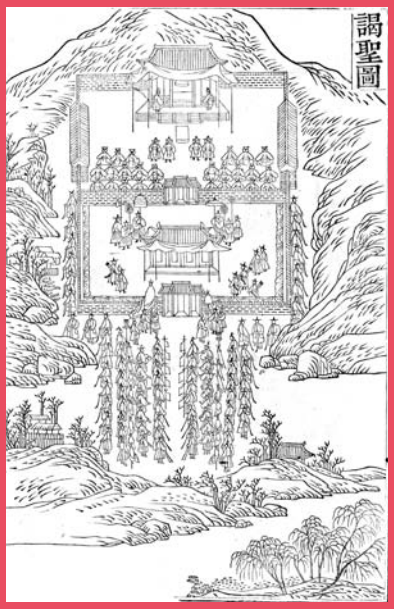
賓主讌會之圖
1
1
2
3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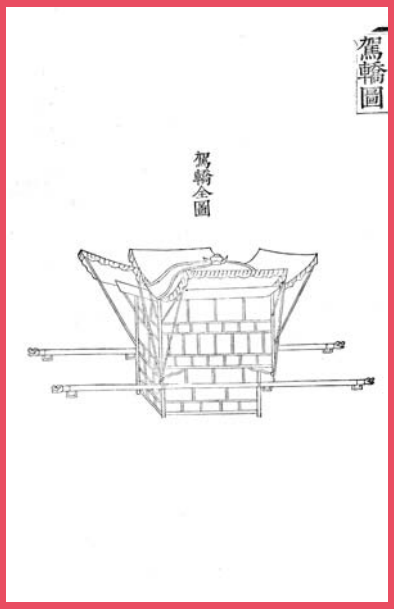
整理儀軌全

華城行宮圖

荷皇恩

絲花圖
御管絲圖花
百官以下軍兵等首拱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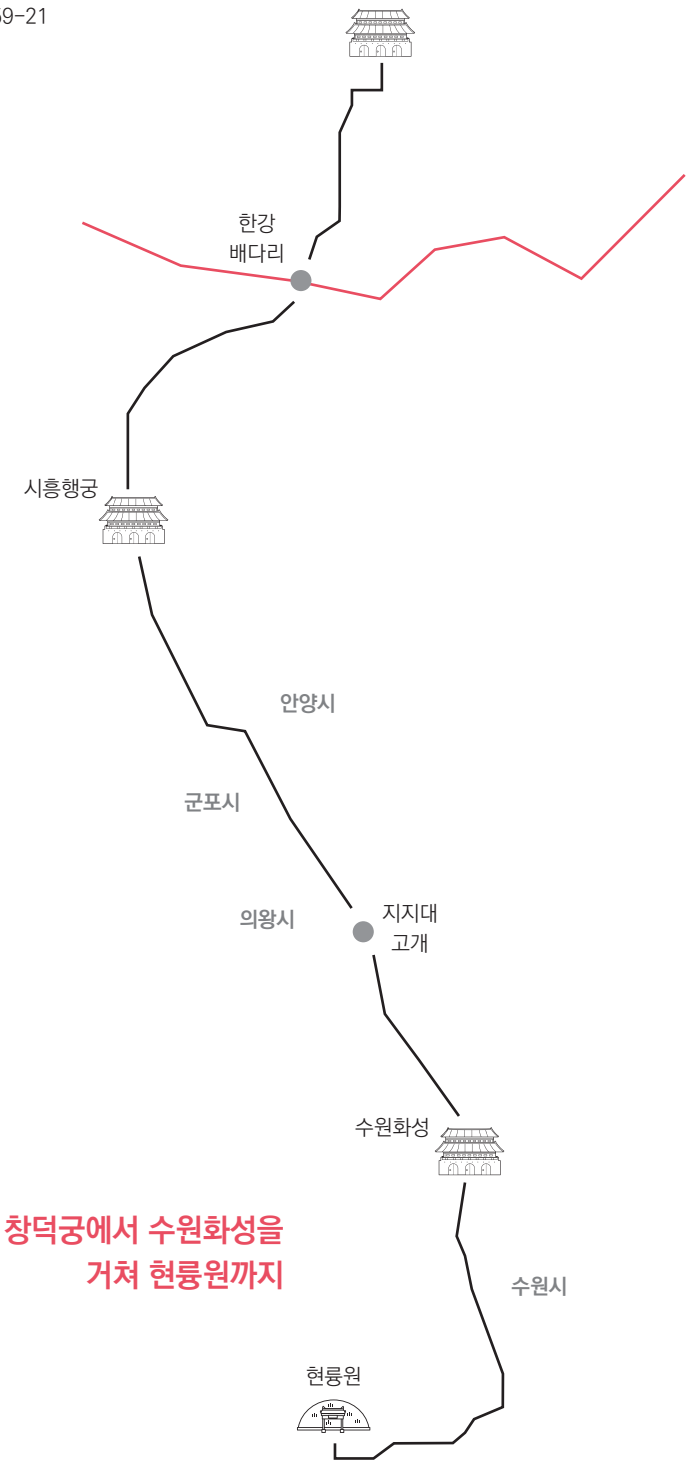

謁聖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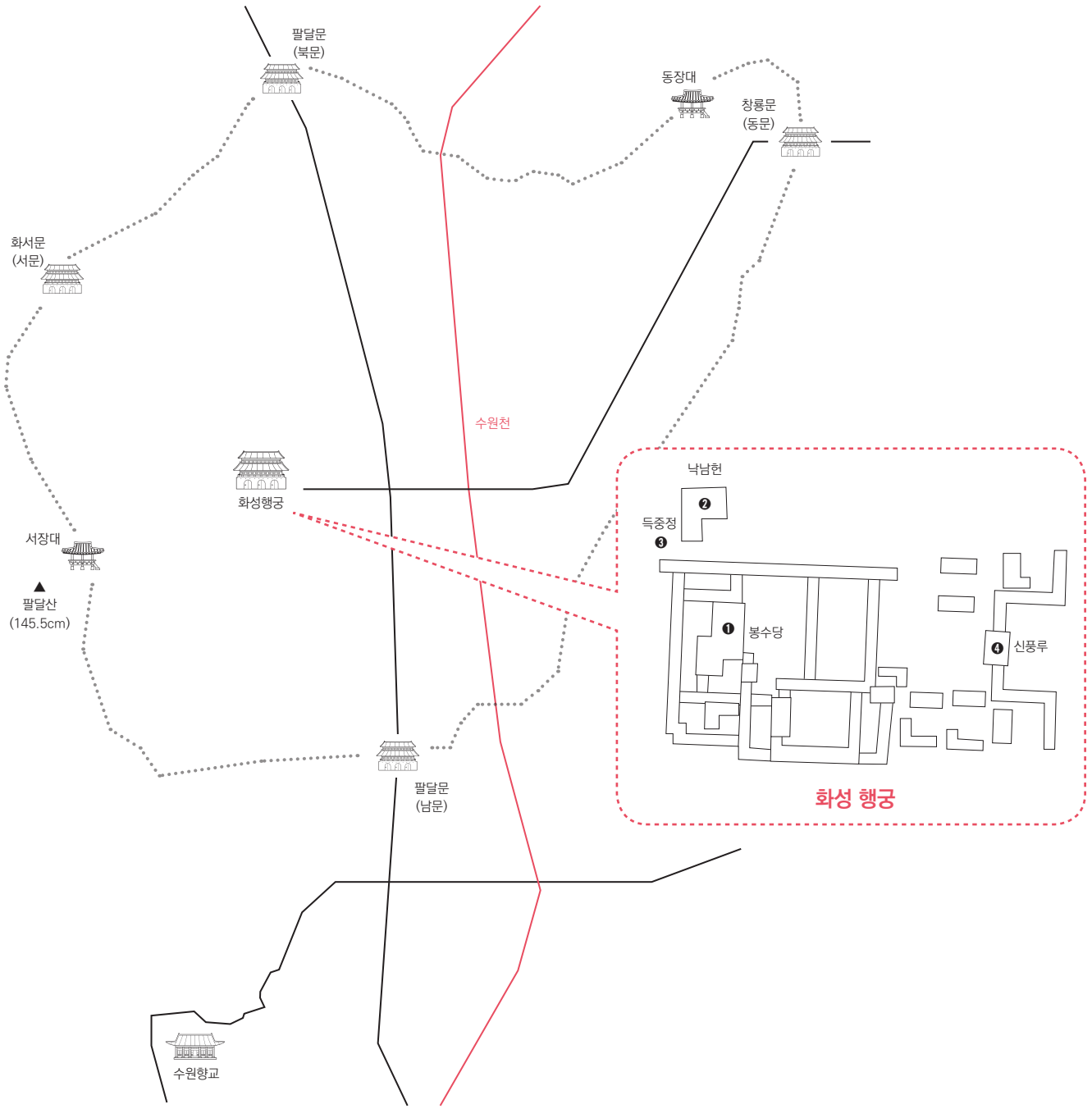

駕轎圖
駕轎全圖

왕릉행차 이야기 :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

제작자 미상 / 1796 / 금속활자본 / 7책(1책 결본) / 34.4×22.1cm / 일산古15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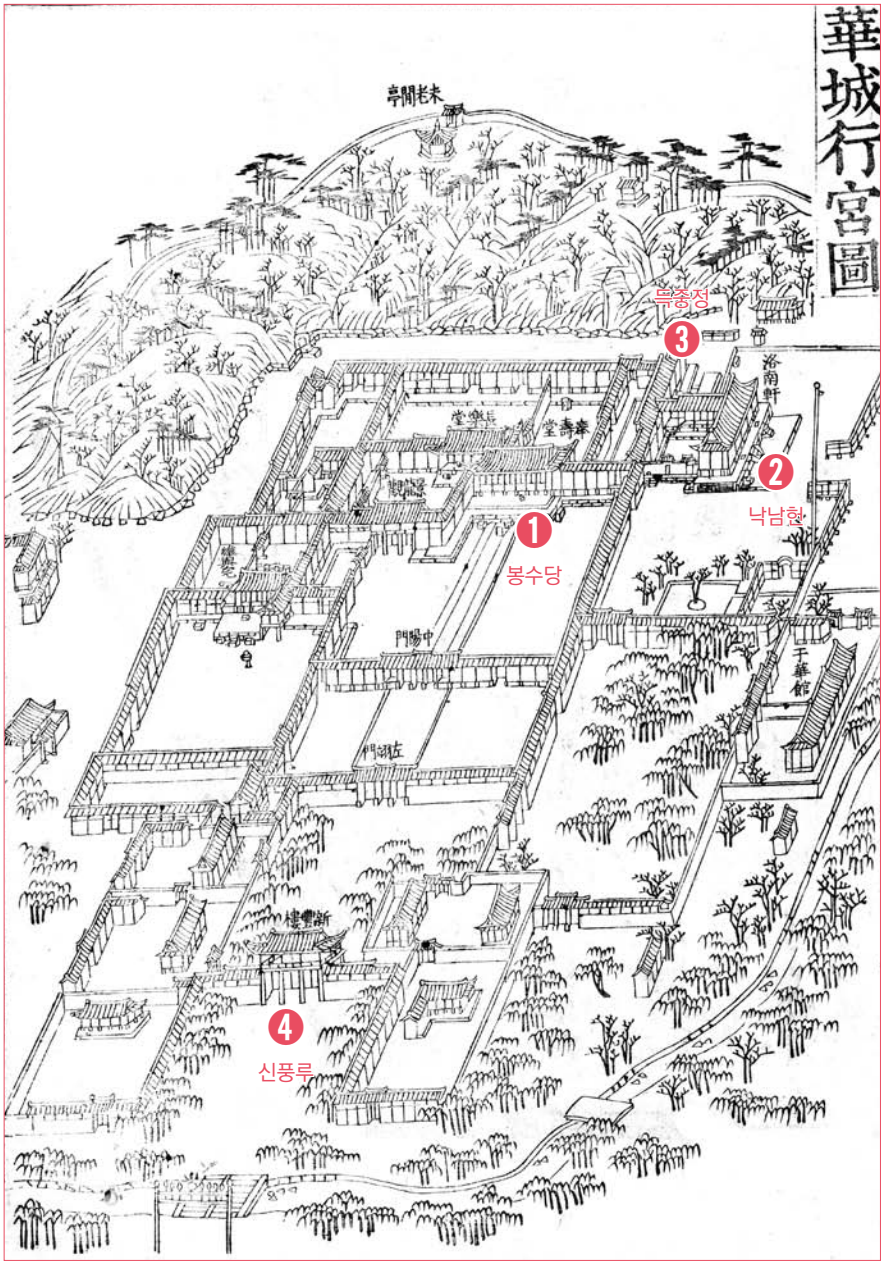
정조 임금이 1795년정조 19, 乙卯 윤2월 10일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의 현륭원에 행차園幸했을 때의 준비, 택일, 의식 절차부터 서울 북쪽의 춘당대에서 실시한 공로자의 시상까지 행사의 모든 과정을 정리整理한 의궤儀軌, 행사 보고서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정조의 명으로 정리의궤청整理儀軌廳까지 설치하여 주조한 금속활자인 정리자整理字로 1796년정조 20에 10권 8책으로 간행하였습니다. 그 중 제 1책金 권수卷首의 「도식圖式, 그림」에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까지의 행렬, 화성에서의 행사 장면, 행사에 사용된 각종 물품 등의 그림 112면이 흑백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수록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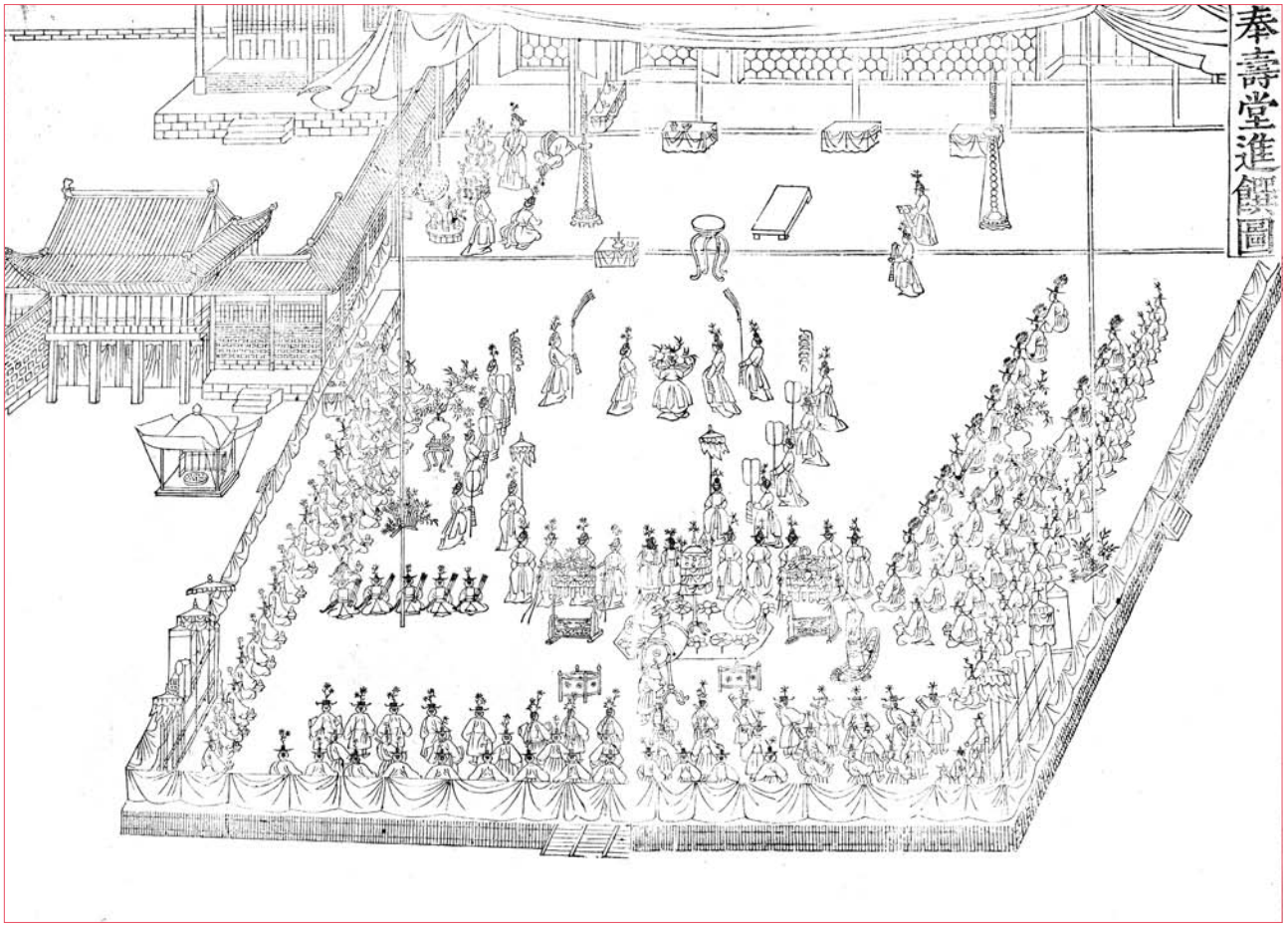
수원의 화성, 행궁, 수원향교

화성행궁도 華城行宮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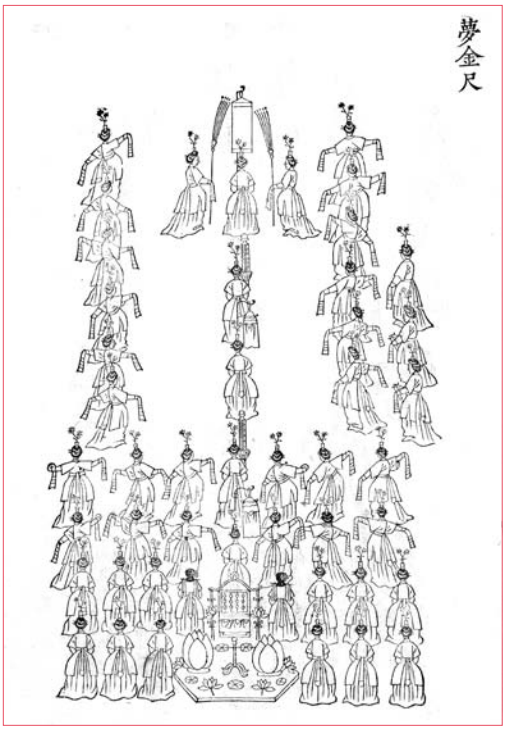
정조 임금이 경기도 수원에 건설한 성곽인 화성華城 안의 행궁行宮을 그렸습니다. 행궁은 임금이 임시로 행차했을 때 머무는 궁궐을 가리키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현륭원에 행차했을 때 화성행궁에 머무르며 각종 행사를 치렀습니다.

봉수당진찬도奉壽堂進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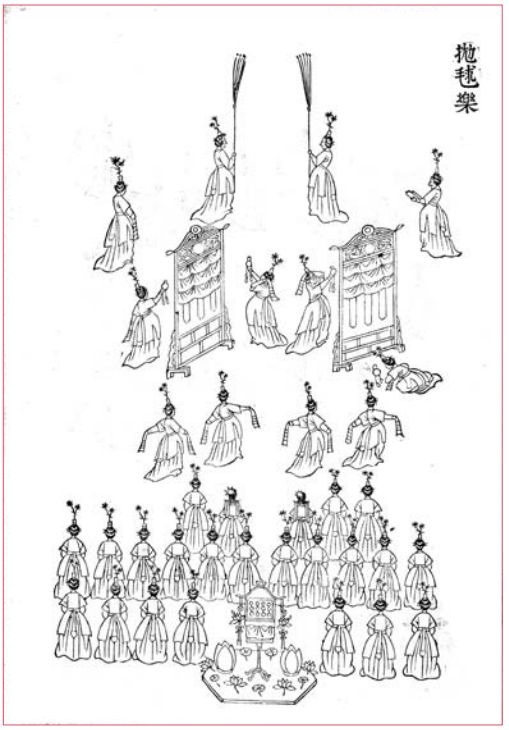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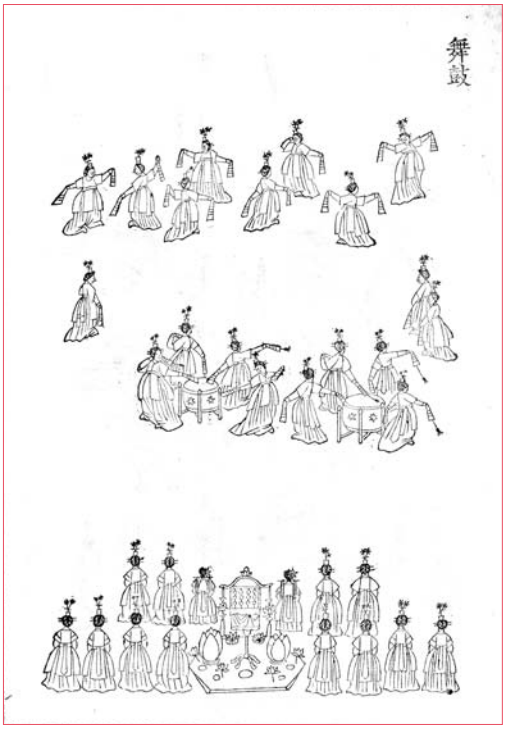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2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의 정당인 봉수당奉壽堂에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거행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봉수당 원래의 이름은 장남헌壯南軒이었는데,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만수무강을 받들어 기원한다奉壽는 의미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어서 축하 공연으로 거행되었던 궁중의 춤 14개의 종류를 순서대로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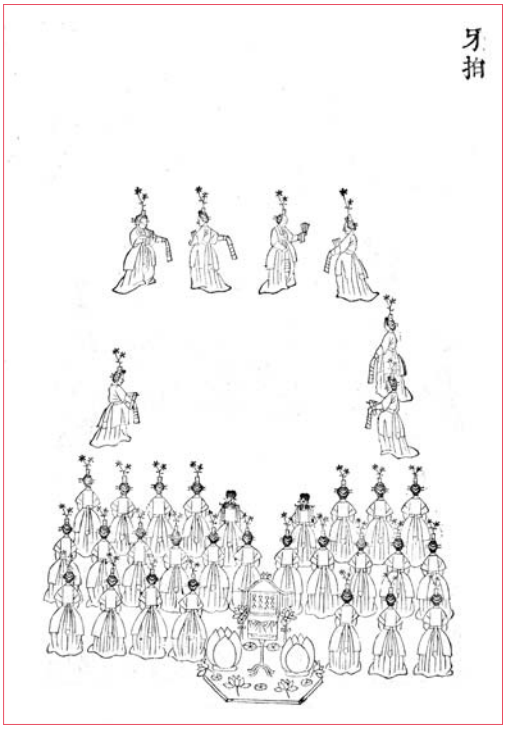
獻仙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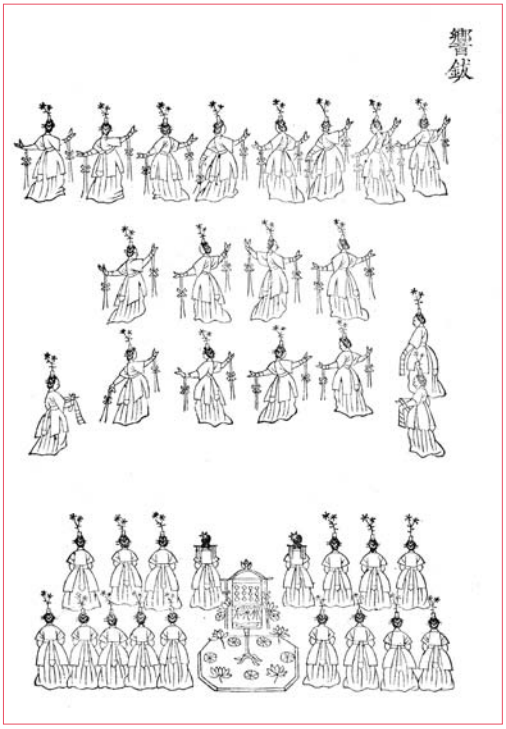

夢金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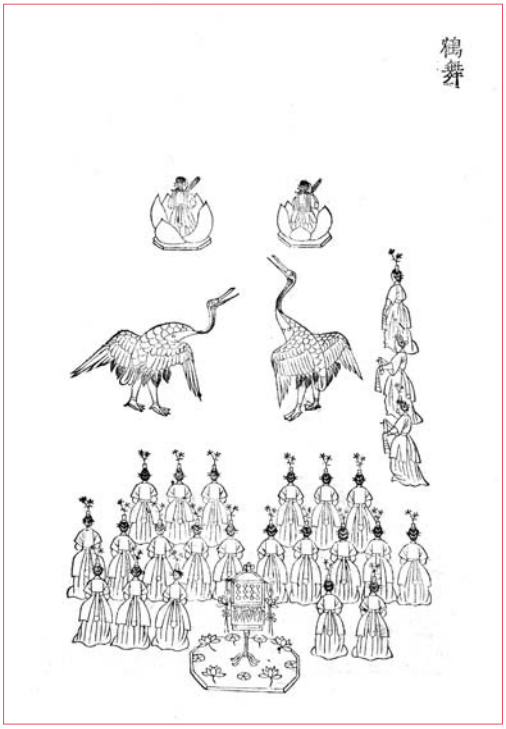
荷皇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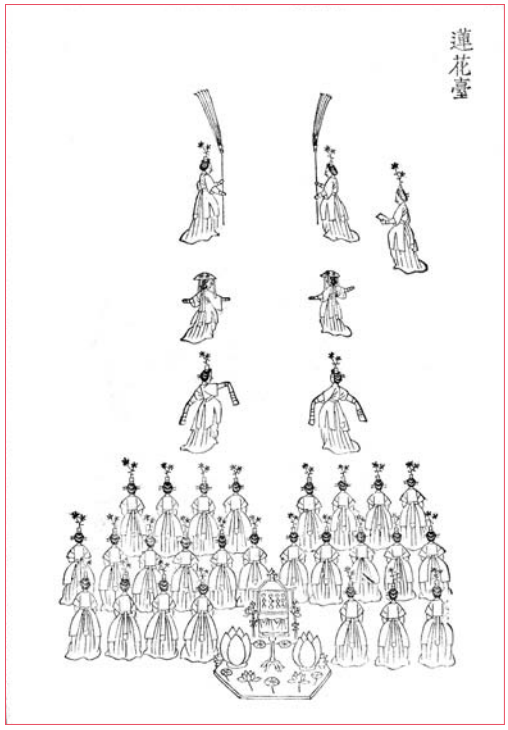

抛毬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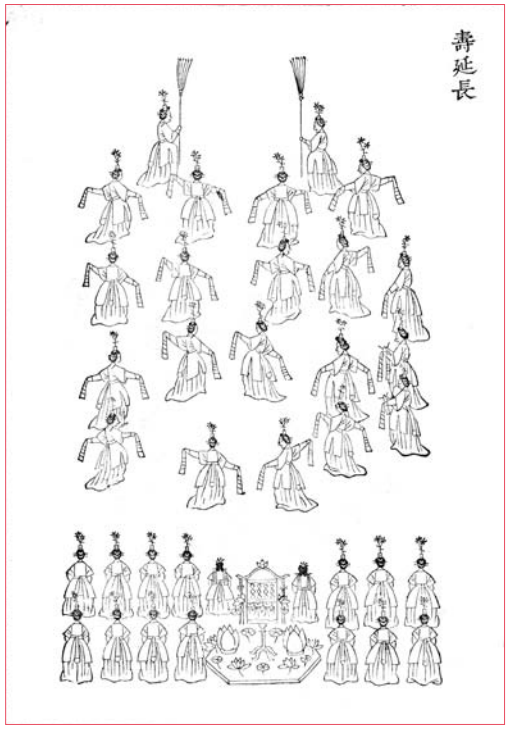

舞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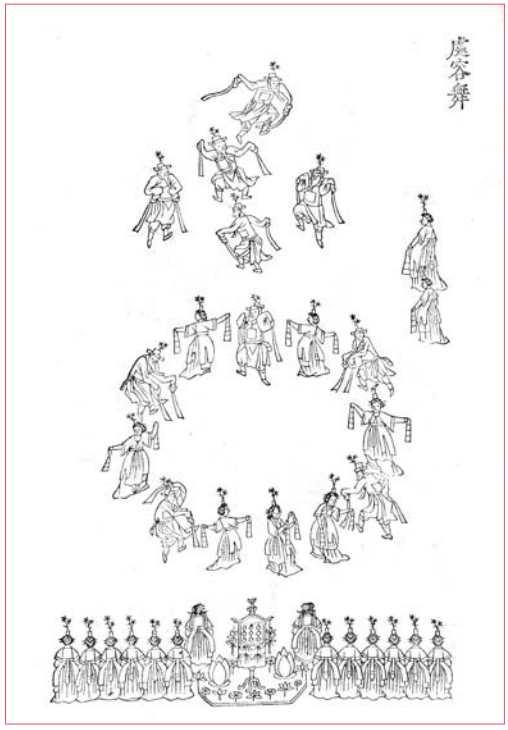

牙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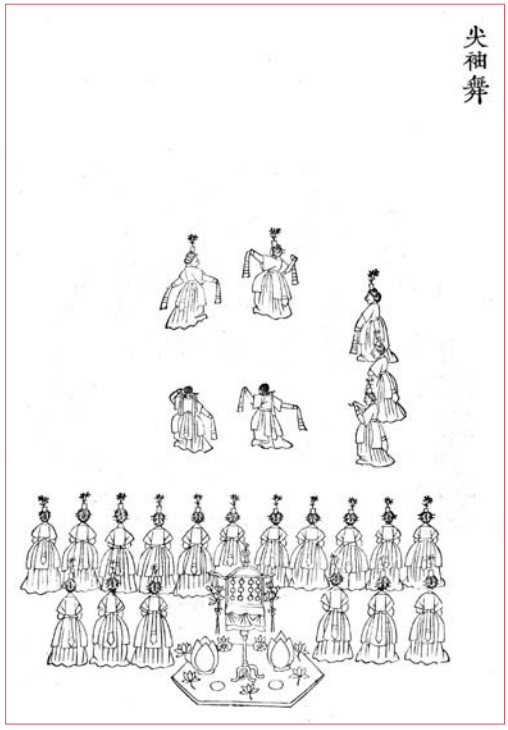

響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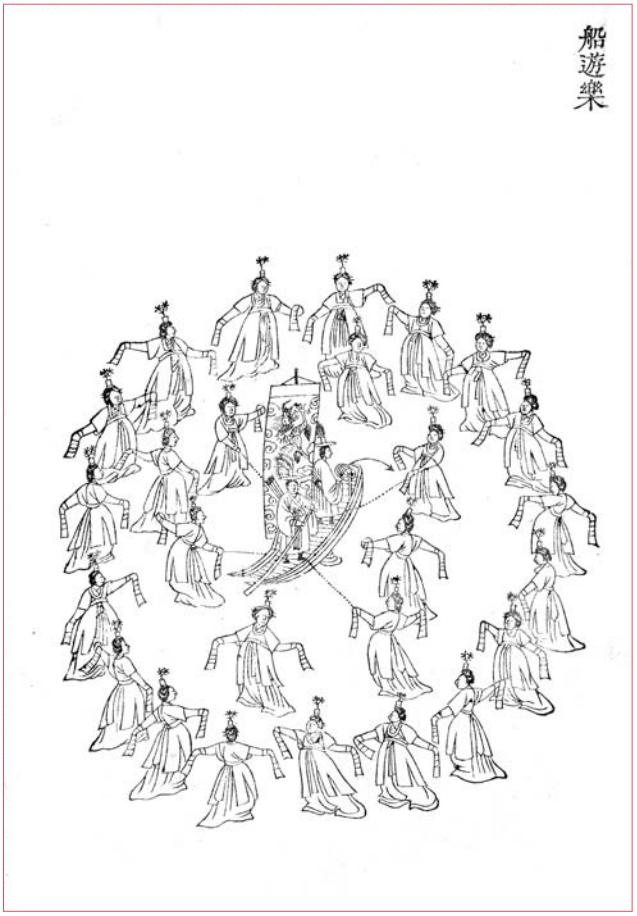

鶴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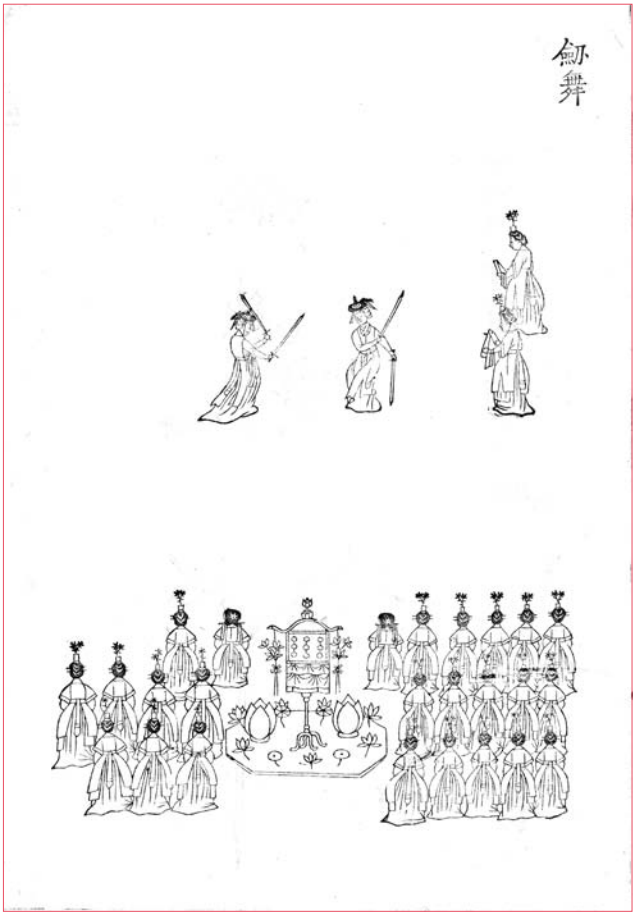

蓮花臺


壽延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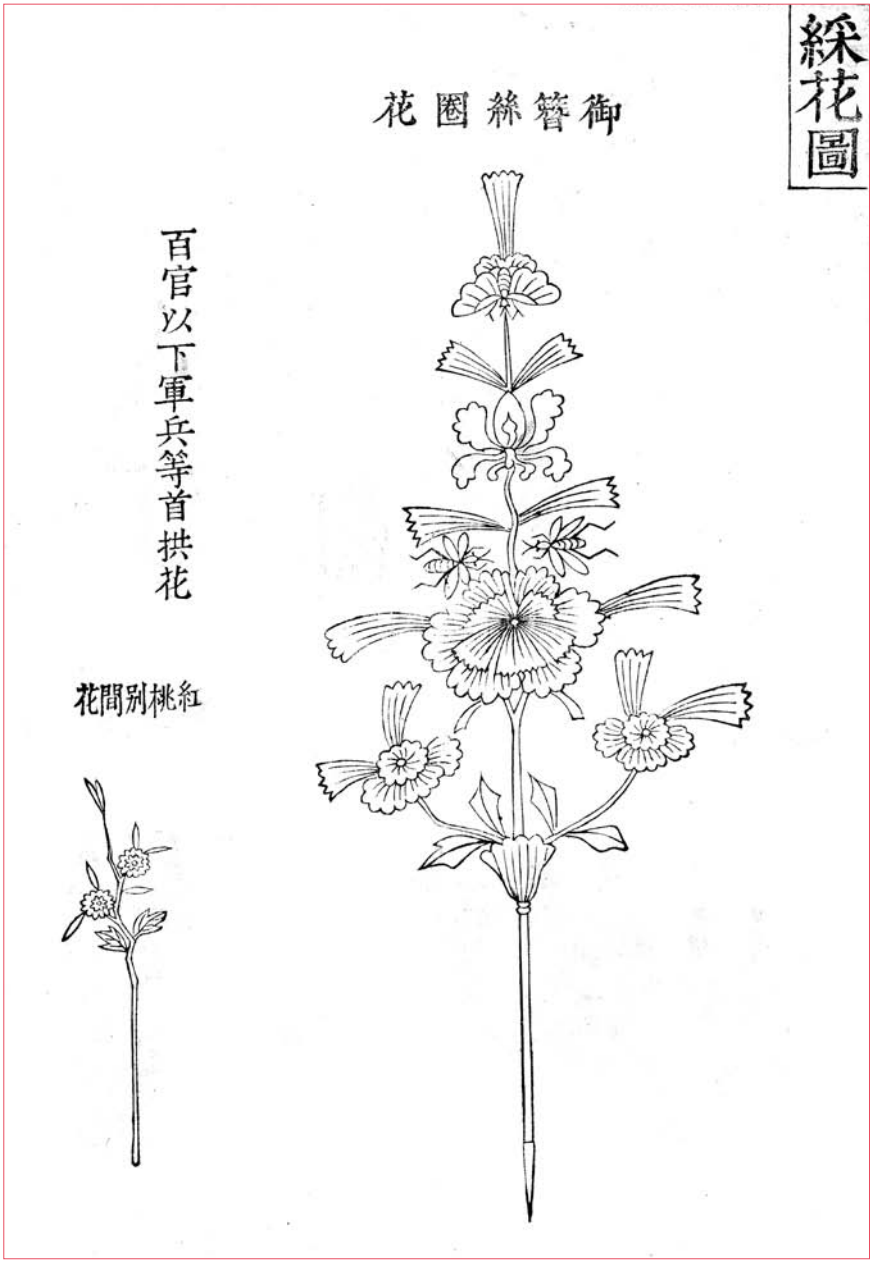

處容舞


尖袖舞


船遊樂


劒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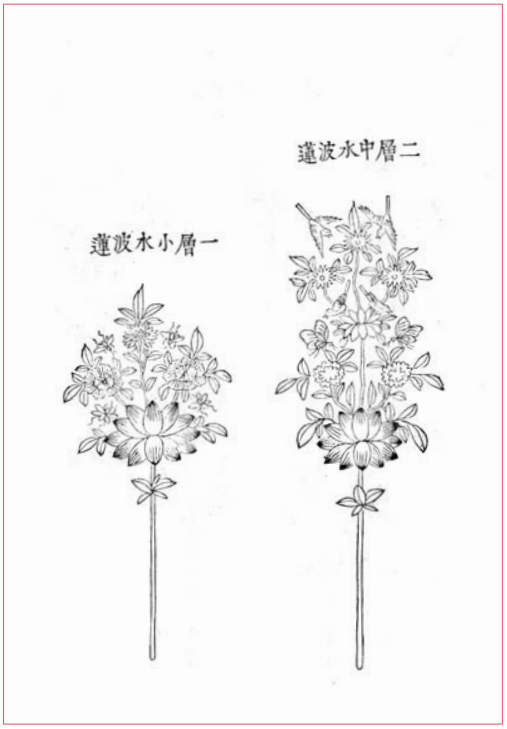
채화도 綵花圖



정조 임금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포함하여 환갑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머리에 장식으로 꽂거나 꽃병 등에 꽂아두기 위해 비단, 모시, 종이 로 만든 채화綵花, 요즘의 조화 13종을 그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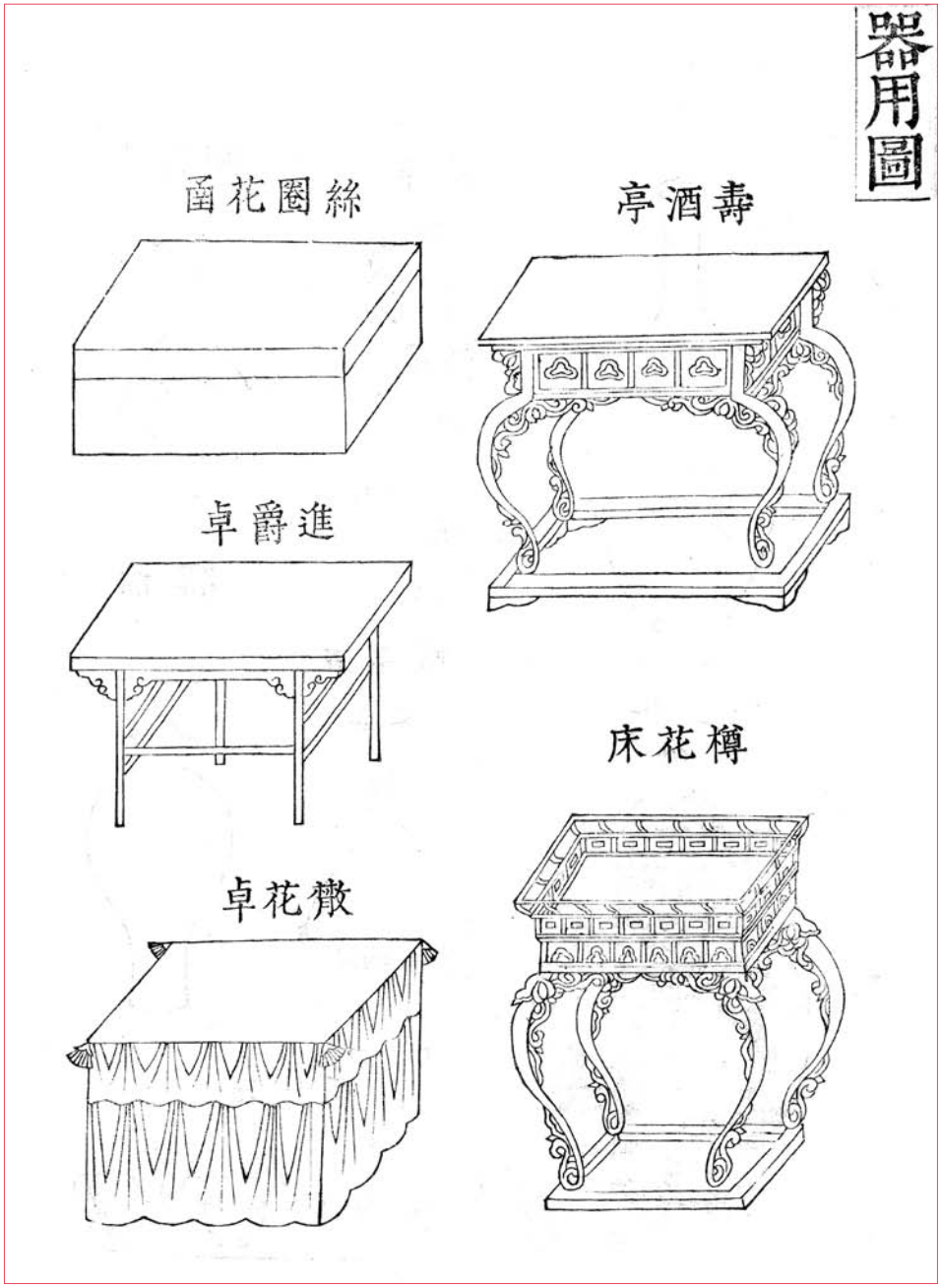
紅桃一本碧桃一本
樽花

三層大水波蓮
床花


二層中水波蓮
一層小水波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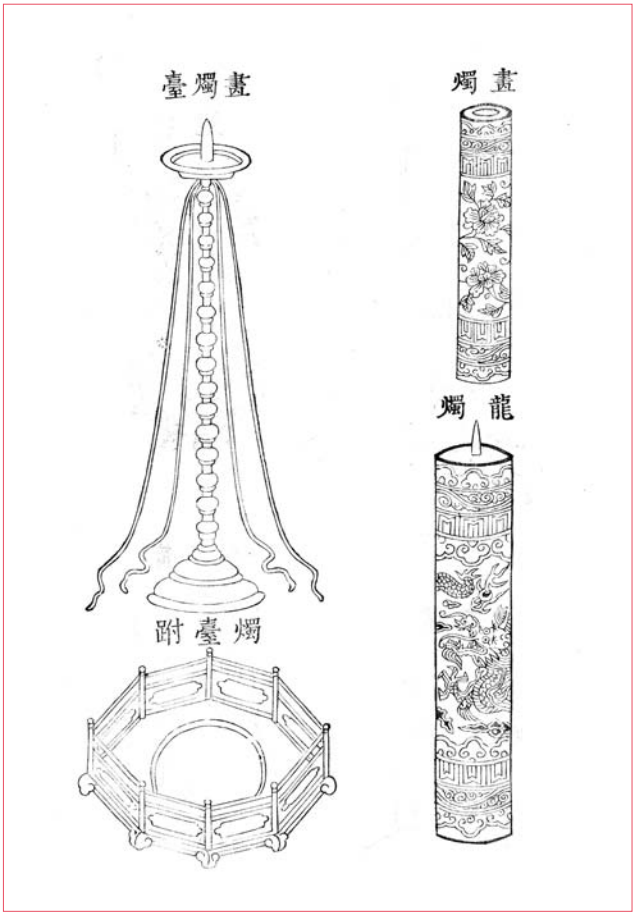
牧丹花
四季花
紅桃三枝花
花桂月
花建桃紅
花間紙
花建別紙

기용도器用圖



상床, 술병甁과 술잔盃, 촛대燭臺 등 환갑잔치에서 사용했던
16개의 용기를 그렸습니다.

白甆樽
盃犀
瓶月日
盃銀
樽酒
瓶呈五
樽花
盃呈五


臺燭畫
燭畫
燭龍
跗臺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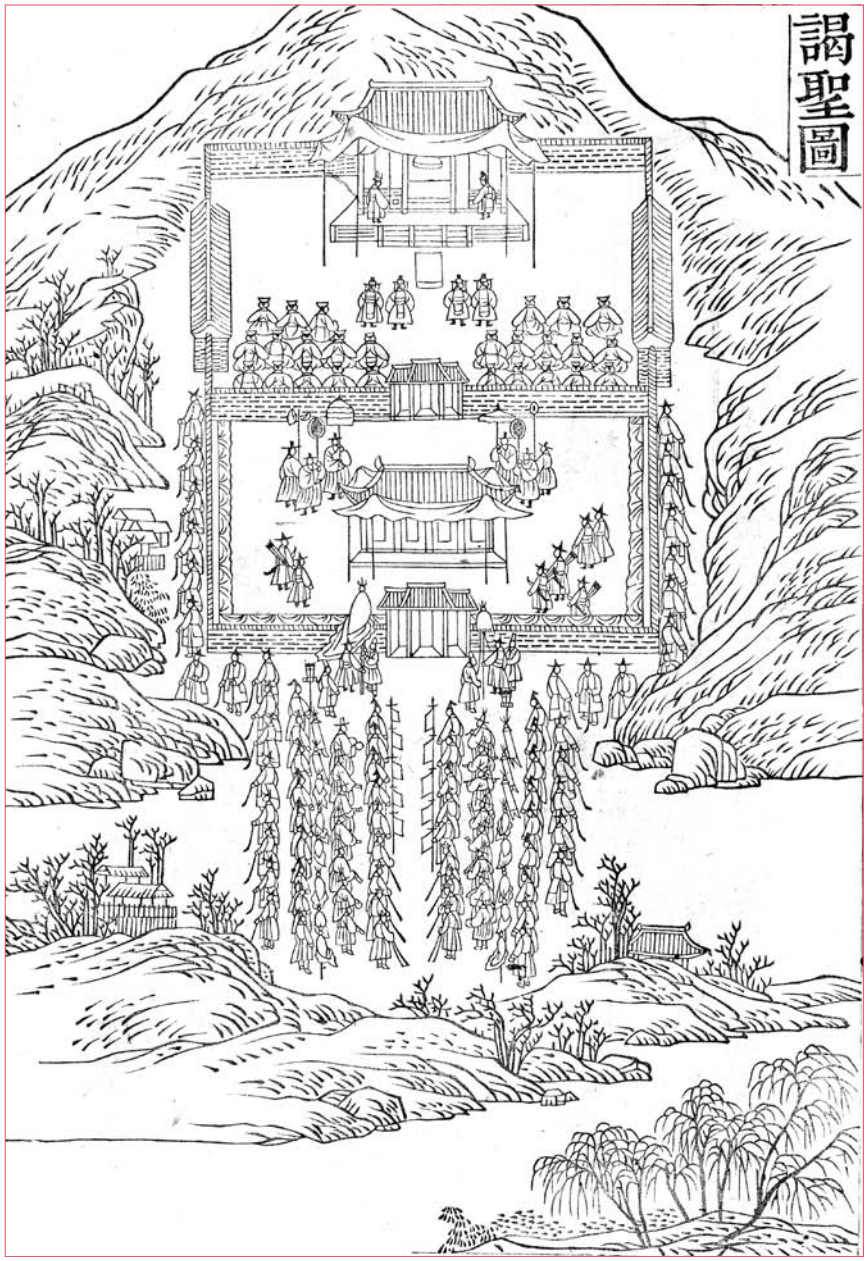
복식도 服飾圖

환갑잔치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던 여령女伶의 복식 5종류, 어린 기생 동기童妓의 복식 6종류 등 환갑잔치에 동원된 무용수들의 복식을 그렸습니다.

낙남헌양로연도 落南軒養老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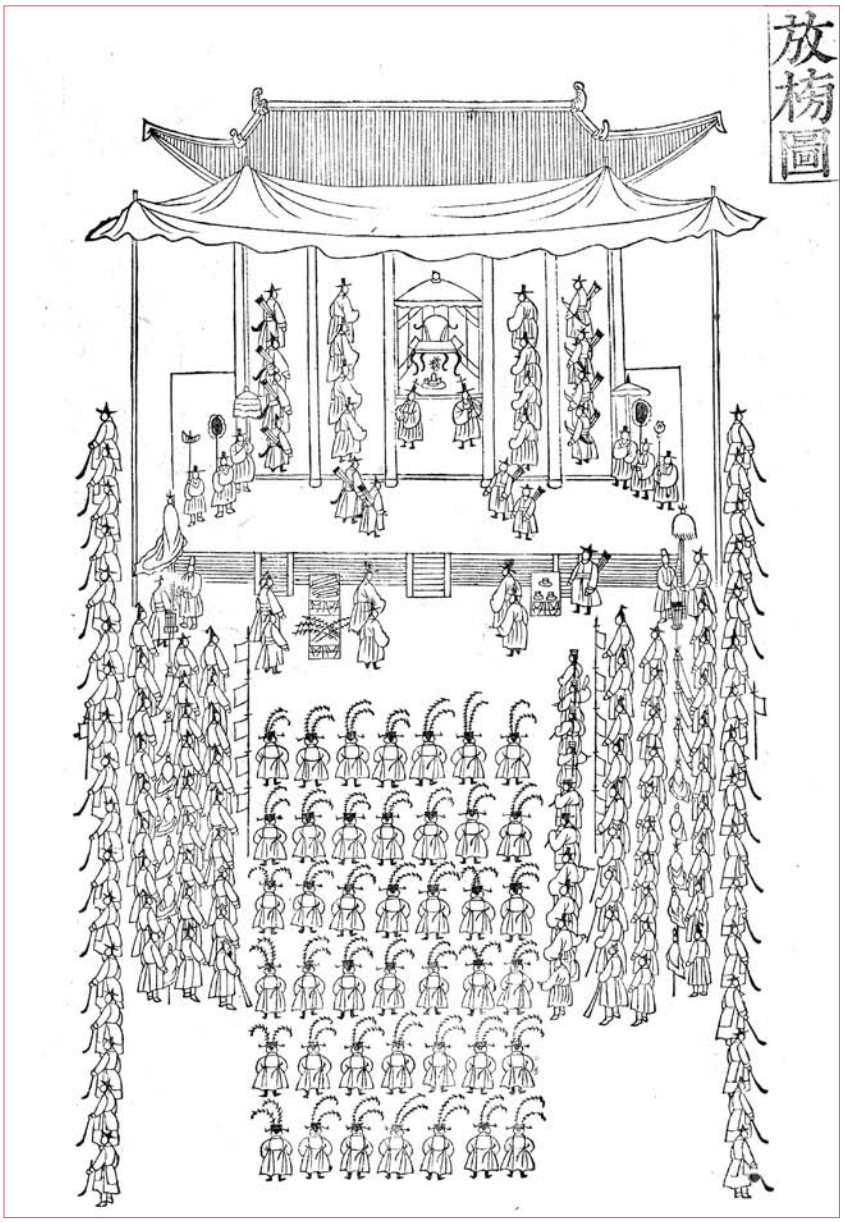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 안 북쪽의 낙남헌에서 노인공경과 풍속 교화의 상징으로 양로잔치를 벌이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수원 출신으로 관료는 70세 이상, 일반인士庶은 80세 이상, 조정 관료는 61세 이상의 노인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알성도謁聖圖



1795년 윤2월 11일, 정조 임금이 팔달산 동남쪽에 있는 수원 향교의 대성전大成殿에서 참배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알성謁聖이란 '성인을 찾아가 뵙는다'는 뜻으로, 여기서 성인은 공자를 가리킵니다.

방방도 放榜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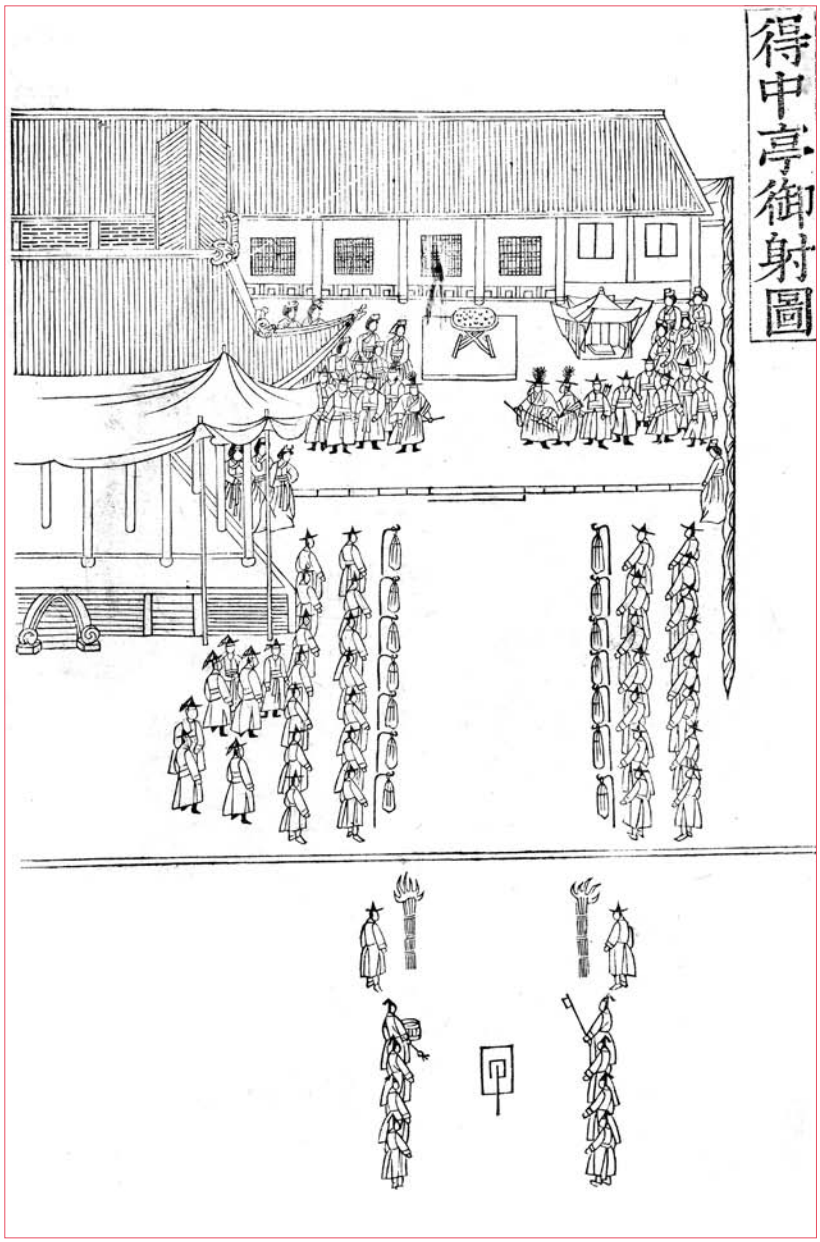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1일, 화성행궁의 낙남헌에서 정조가 어머니 환갑잔치를 축하하며 특별한 과거시험인 별시別試를 시행한 후 합격자를 발표放榜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은 문과 5인, 무과 56인이었습니다.

서장대성조도 西將臺城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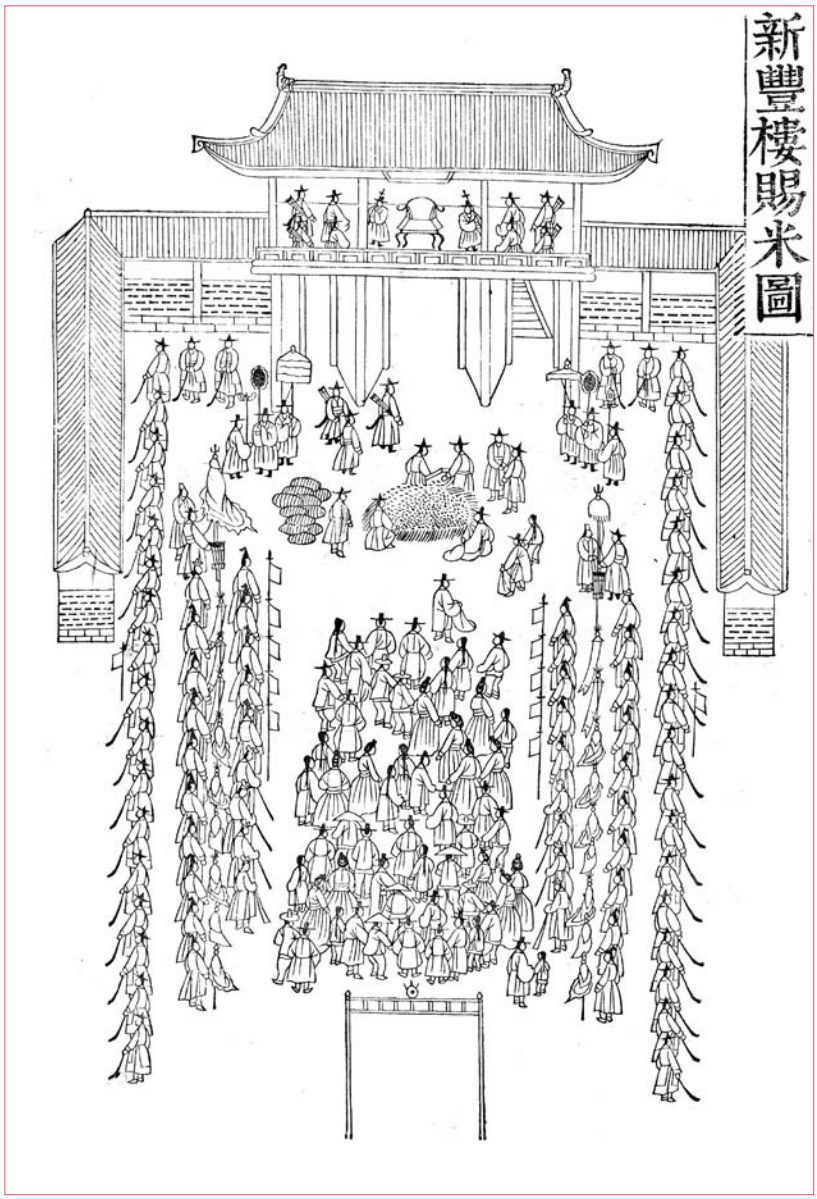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2일,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인 현륭원에 참배하고 돌아와 화성의 서쪽 팔달산 정상의 서장대에 올라 성을 수비하고 공격하는 훈련城操을 참관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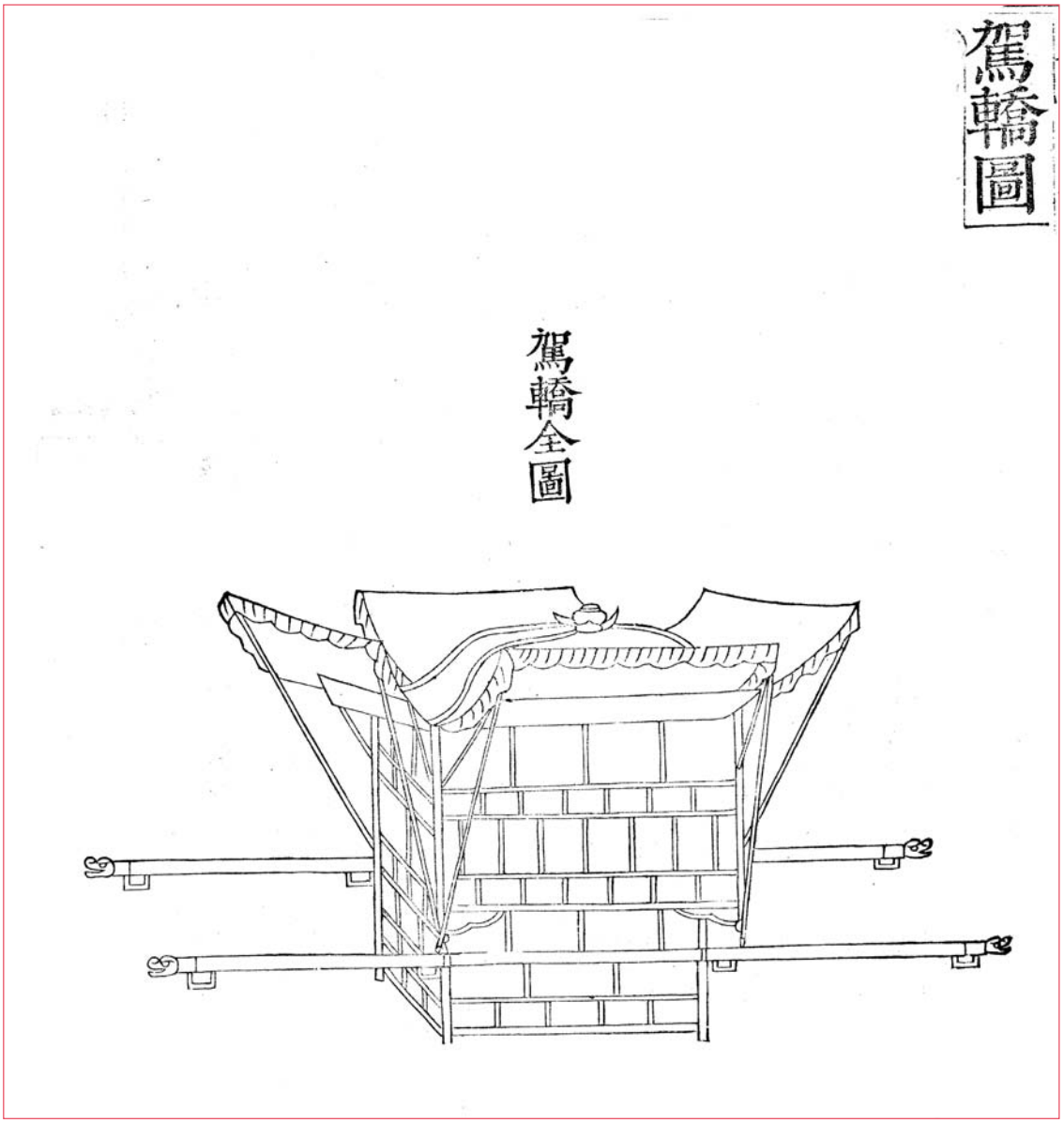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화성행궁 안 서북쪽의 득중정得中亭에서 활쏘기를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정조 임금은 첫 번째에 30발 중 24발, 세 번째에 25발 중 24발을 명중시켰습니다.

신풍루사미도 新豊樓賜米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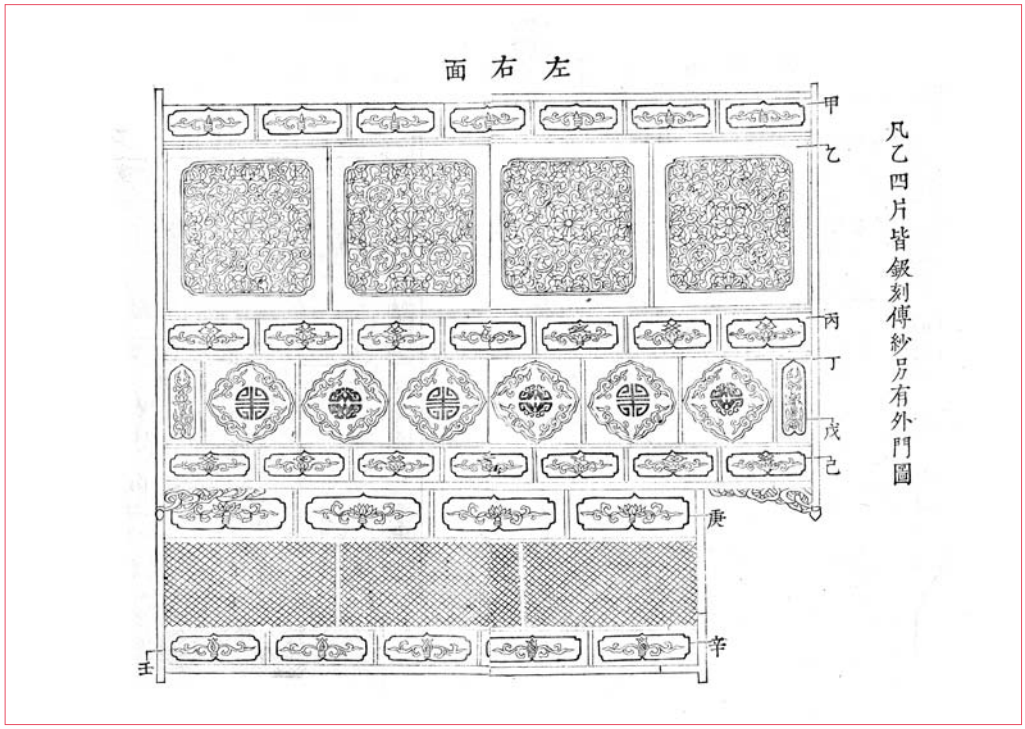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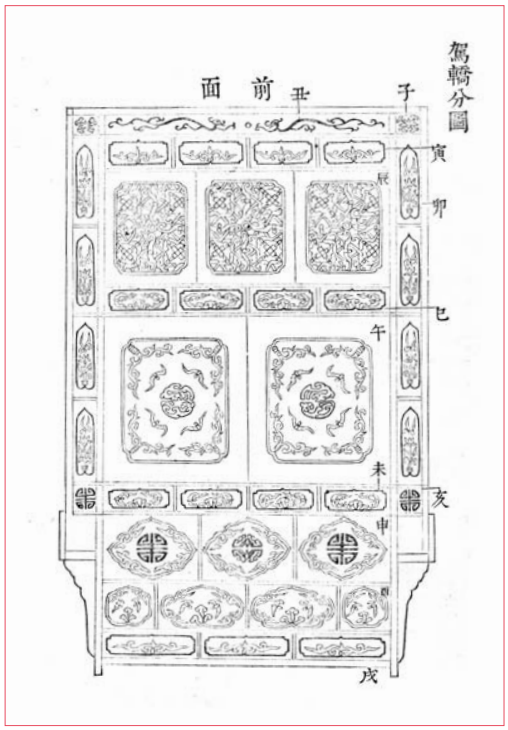
1795년 윤2월 14일, 정조 임금이 어머니 환갑잔치 기념으로 화성행궁의 정문인 신풍루에 올라 수원의 백성 435명, 수원 주변 고을의 백성 592명에게 쌀을 내려주는賜米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건장한 남자는 6되, 늙은 남자와 건강한 여자는 5되, 약한 여자는 4되씩 나누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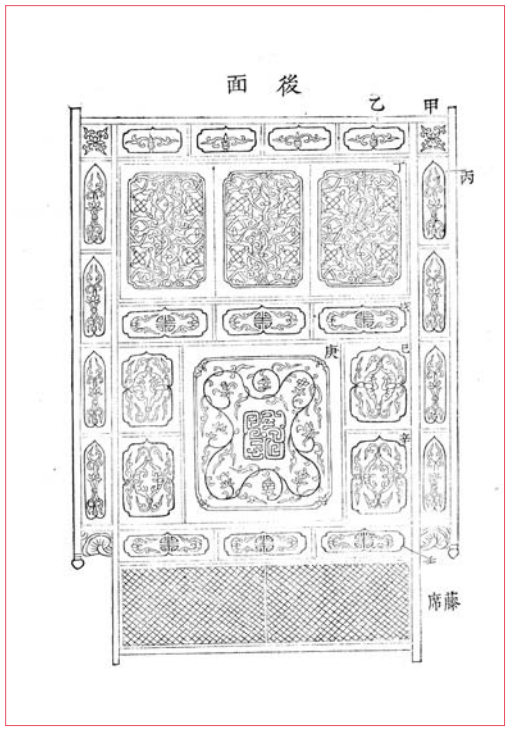
가교도[駕轎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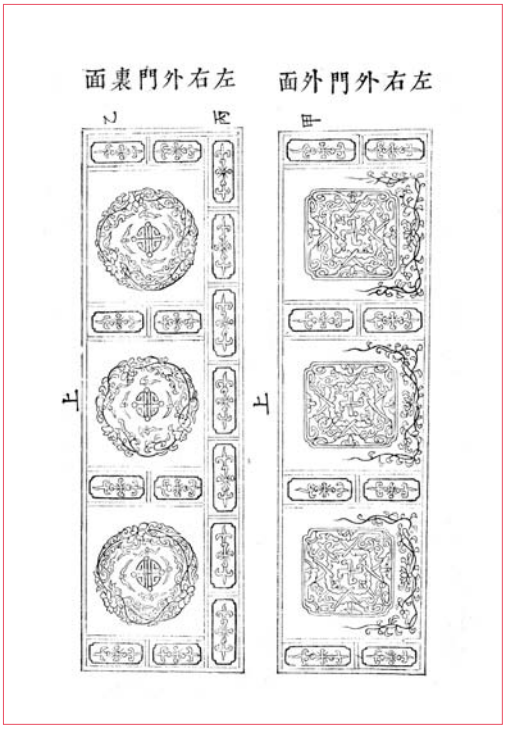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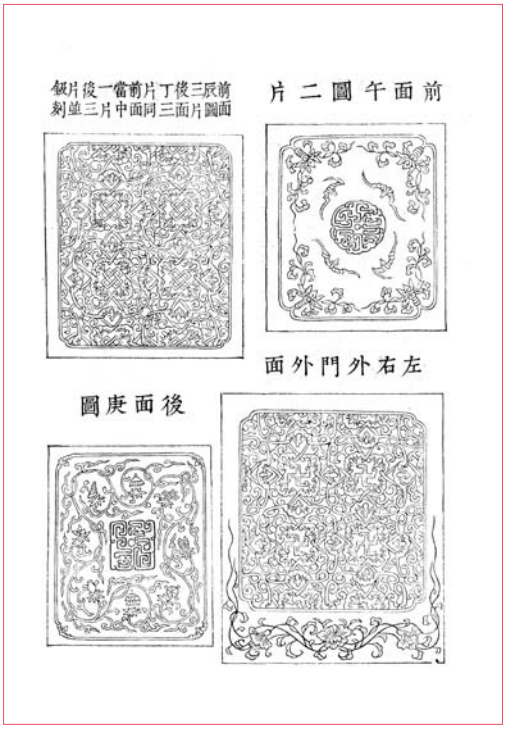
정조 임금이 원행을묘 행사 때 타고 갔던 가마인 가교[駕轎]의 전체와 세부적인 모습을 그렸습니다. 가교는 사람이 메고 다니던 가마[轎]을 앞뒤 각 한 마리의 말 안장 양편에 얹어서 끌고 가게 만들었으며, 붉은색 바탕에 황금색 장식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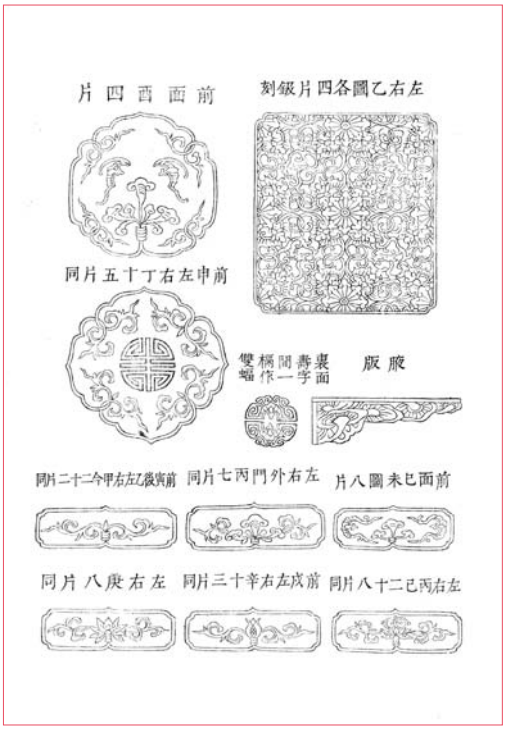

左右面
凡乙四片皆鈒刻傳紗另有外門圖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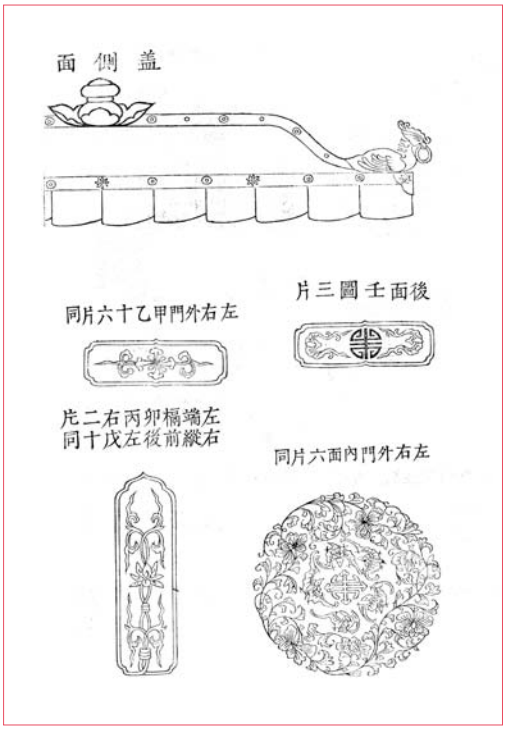

駕轎分圖
前面
丑
子
寅
卯
巳
午
未
申
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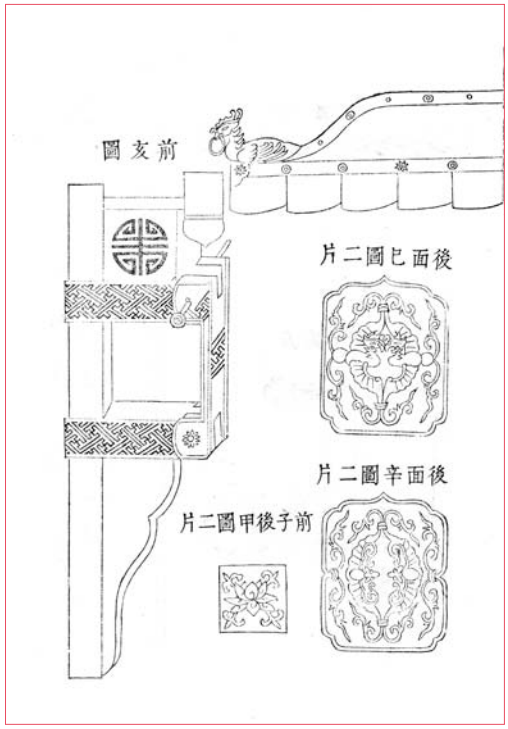

後面
乙
甲
丙
庚
己
辛
藤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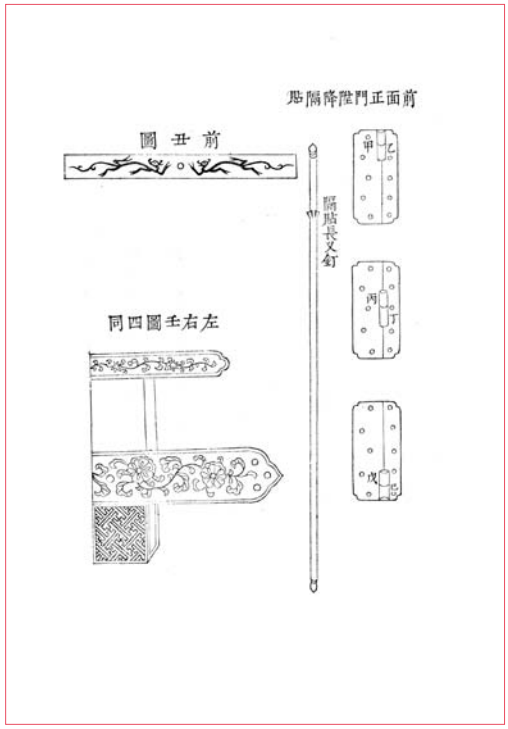

左右外門裏面
左右外門外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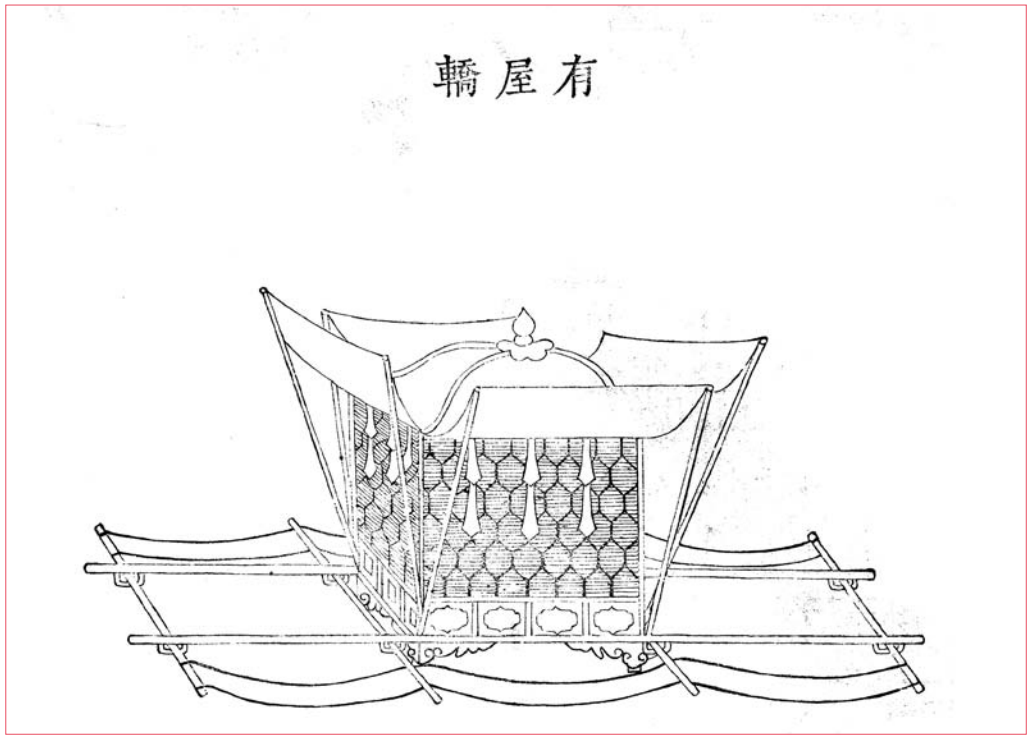

前面午圖二片
左右外門外面
後面庚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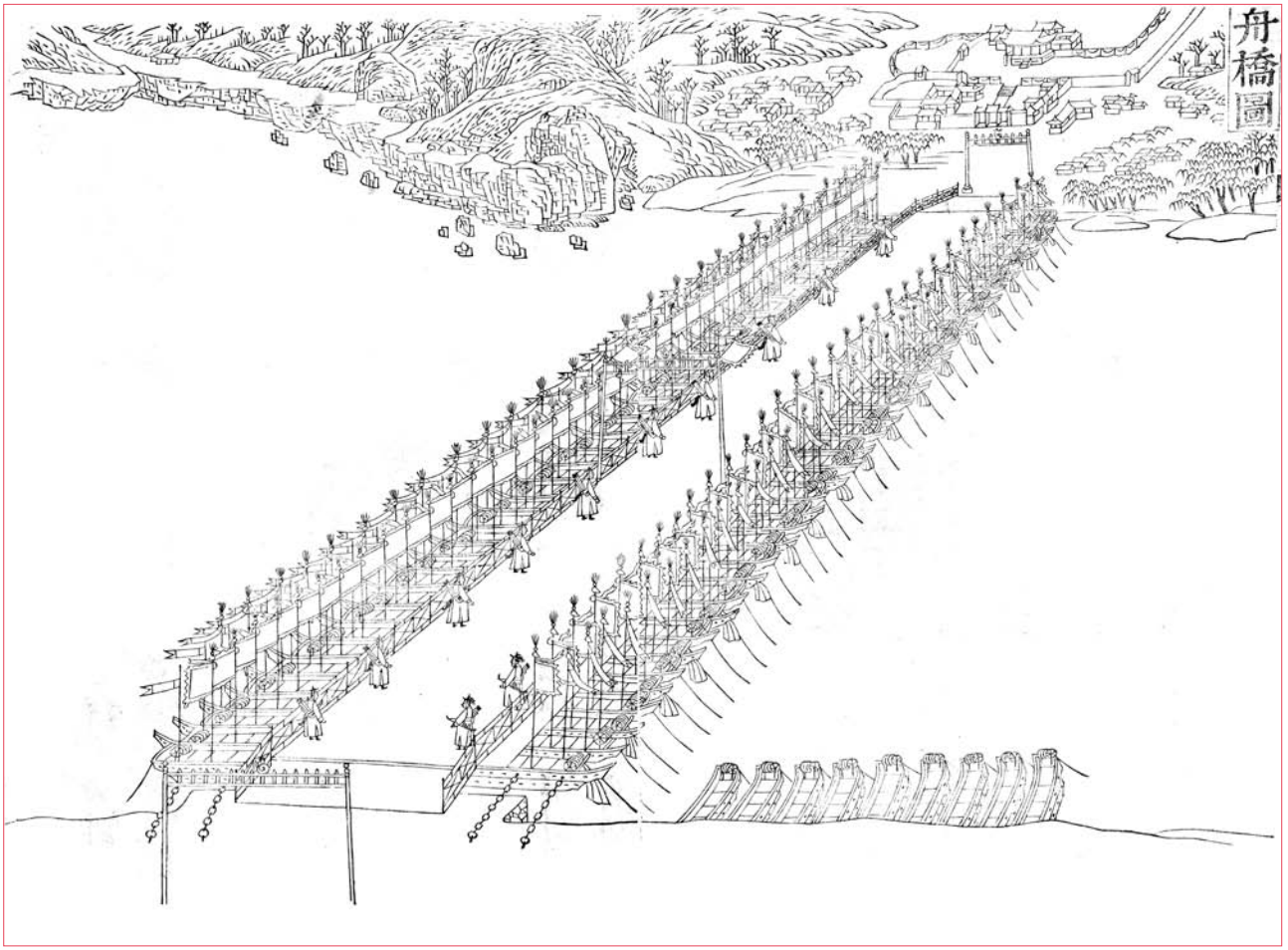

前面酉圖四片
左右乙圖各四片刻鈒
同片五十丁右左申前
版腹
同片七丙門外右左
片八圖未巳面前
同片八庚右左
同片三十辛右左戌前
同片八十二己丙右左


面側蓋
片三圖壬面後
同片六十乙甲門外右左
同片六面內門外右左


前支圖
後面巳圖二片
後面辛圖二片
前子後甲圖二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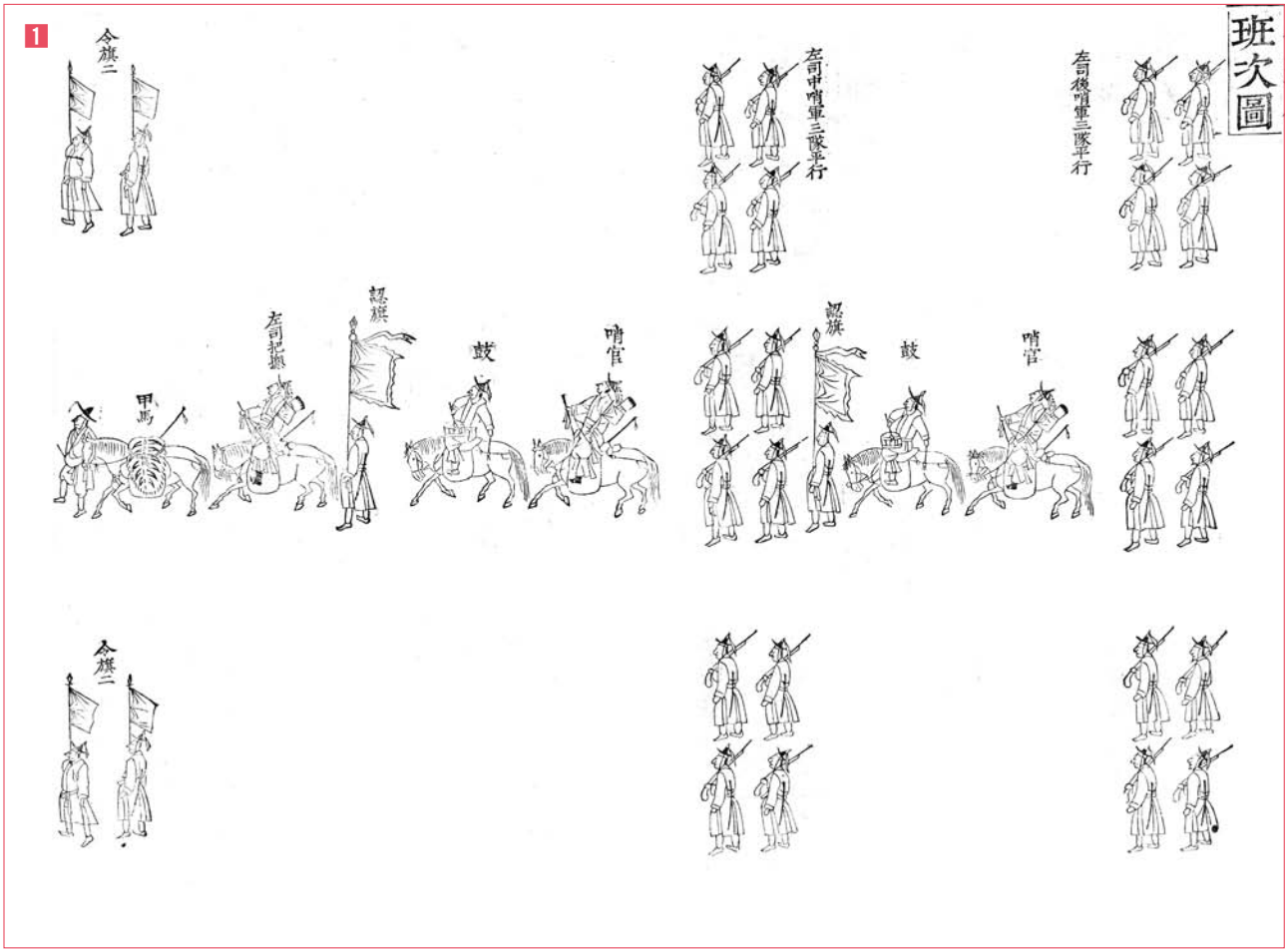

前面正門陞降隔貼
前丑圖
隔貼長又釘
甲
乙
丙
丁
戊
己
左右壬圖四同


轎屋有



주교도 舟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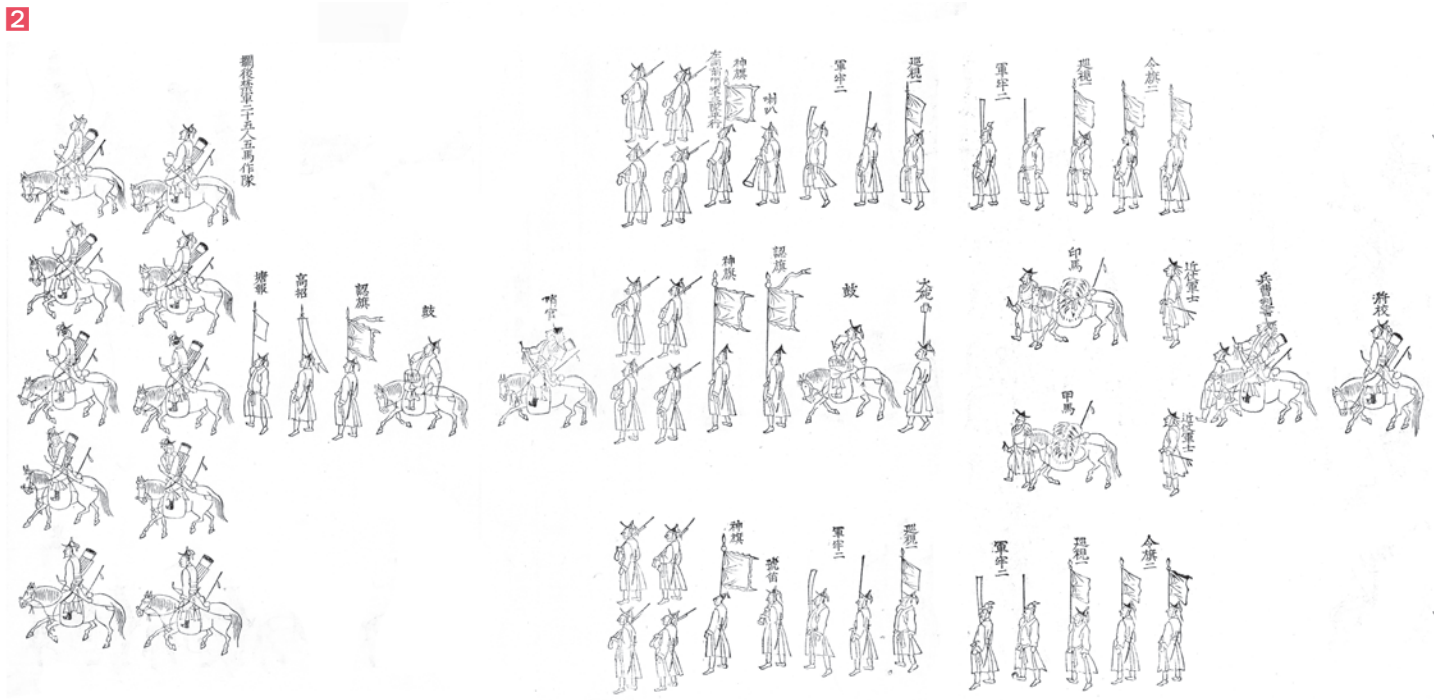
노들나루露梁津에서 정조 임금의 행차가 한강을 건너기 위해 배를 일렬로 세운 위에 만든 배다리舟橋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때 다리를 올리기 위한 가운데의 교배선橋排船 38척, 좌우호위선 12척, 배다리의 좌우에 배치하는 난간선欄干船 240척을 동원하였고, 다리 위에는 3개의 홍살문紅箭門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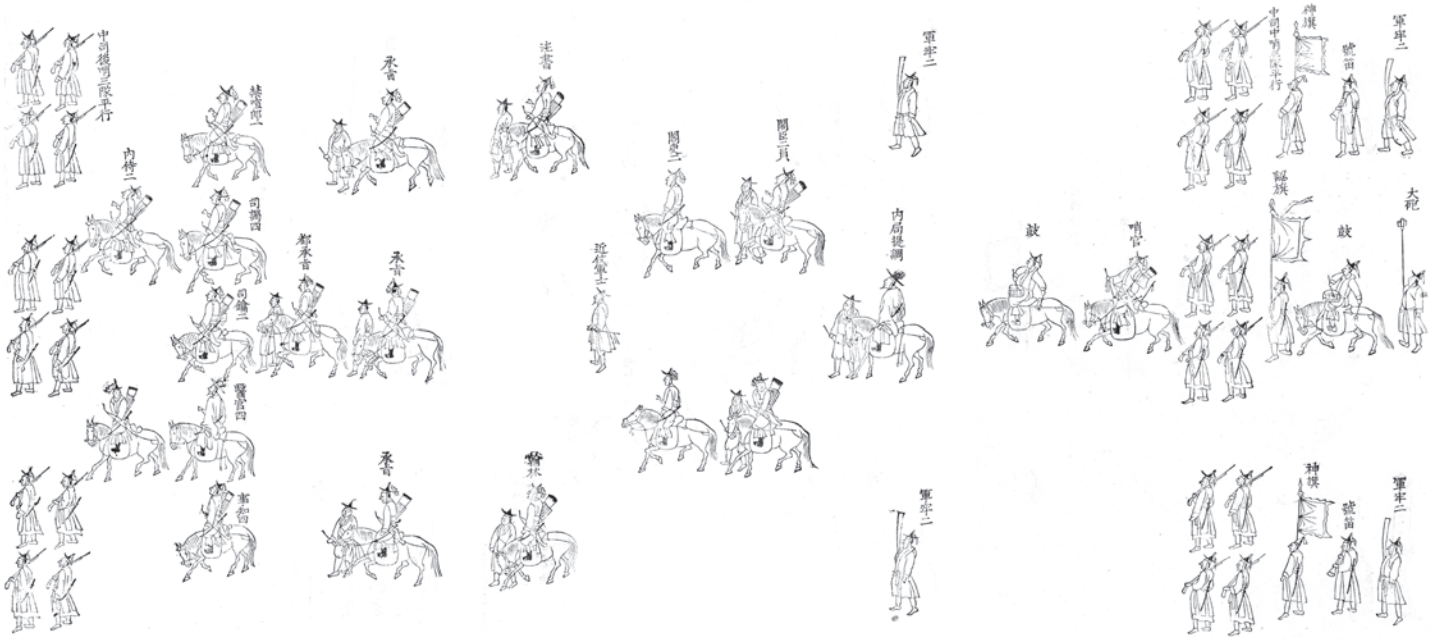
반차도 班次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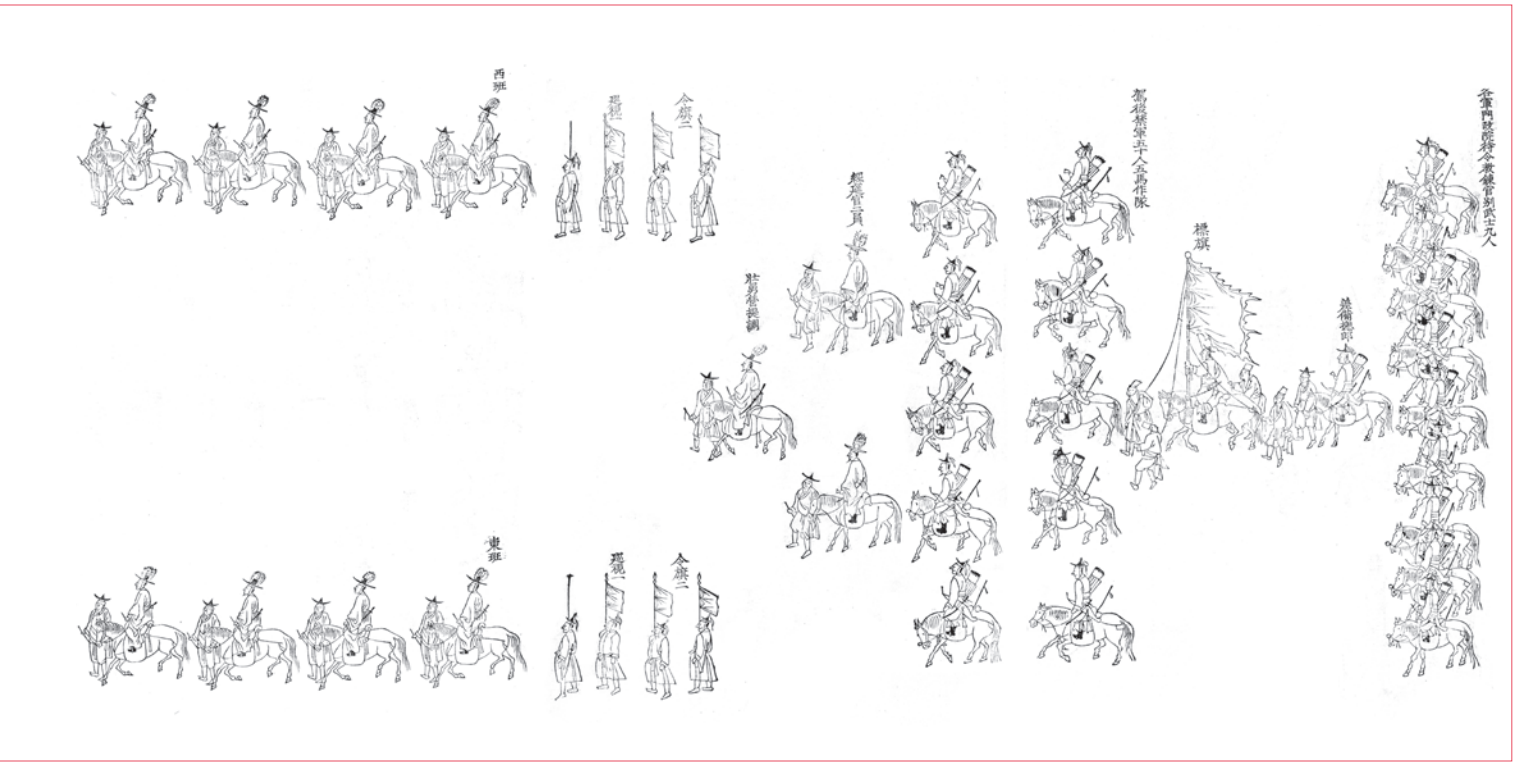
정조 임금과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비롯하여 원행을묘 때 참여한 문무 관리와 호위 군사, 깃발과 악기 등이 늘어서 있던 행렬의 차례班次를 그렸습니다. 그림에 그려진 인원은 1,505명, 말은 516마리이며, 실제로 동원된 총 인원은 5,661명, 말은 1,417마리입니다. 행렬 가운데 앞쪽에 있는 두 대의 군주쌍교郡主雙轎에는 정조 임금의 두 누이가, 다음으로 자궁가교慈宮駕轎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조 임금이 타고 갔던 정가교正駕轎가 그려져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정조 임금은 정가교를 타지 않고 자궁가교 뒤에서 말을 타고 갔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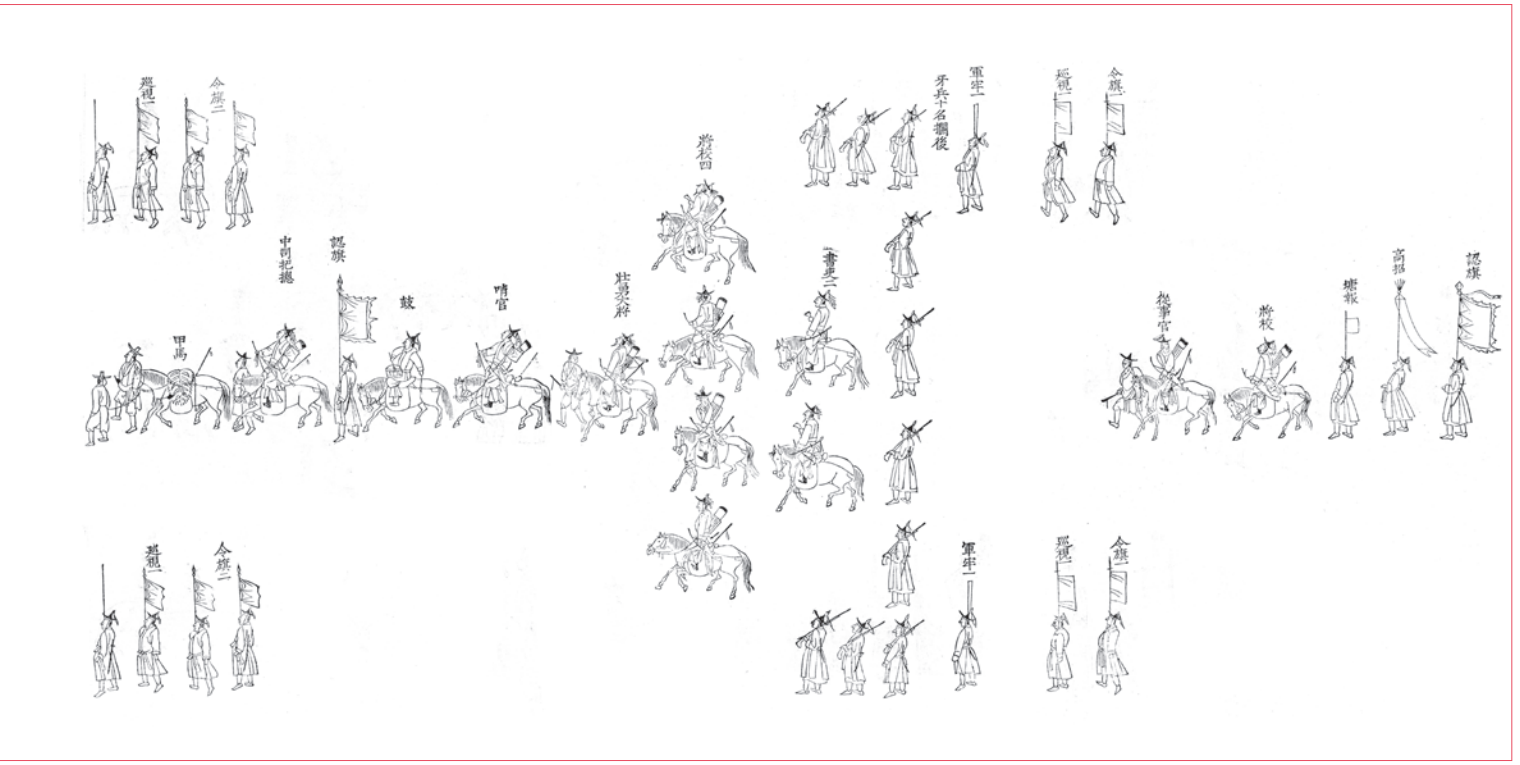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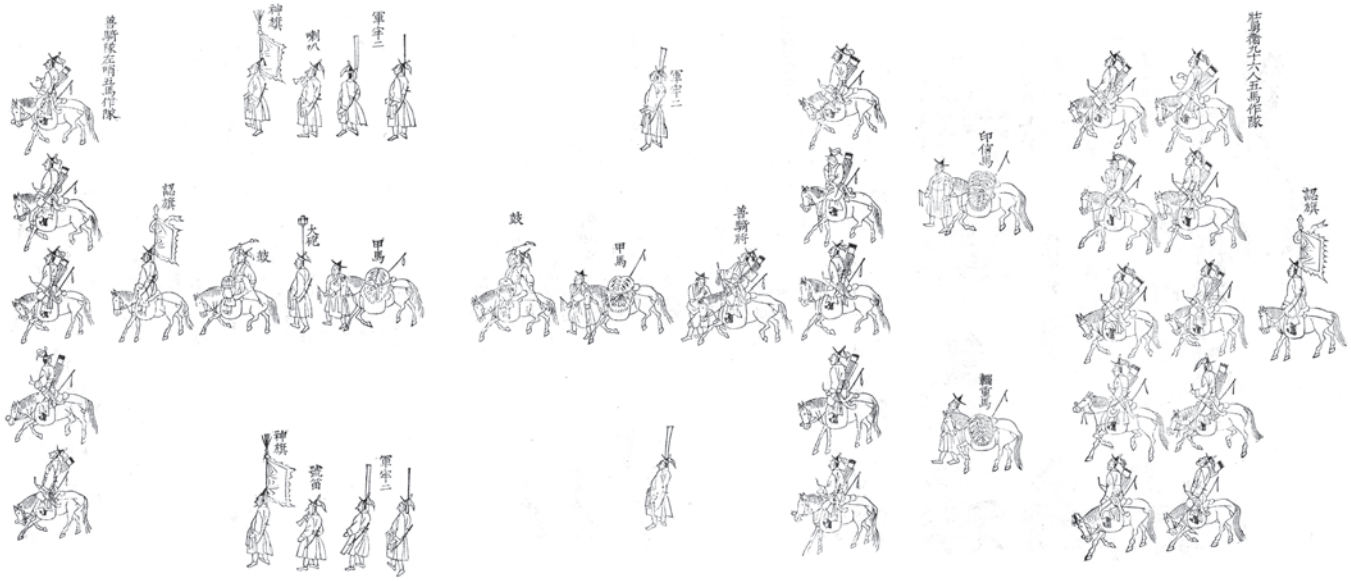

西班
瑞視一
令旗二
東班
瑞視一
令旗二
壯勇營長調
標旗


瑞視一
令旗二
中司記錄
認旗
鼓
哨官
壯勇營
甲馬
瑞視一
令旗二
軍牢二
瑞視一
令旗二
軍牢二
瑞視一
令旗二
從事官
將校
蠟報
高招
認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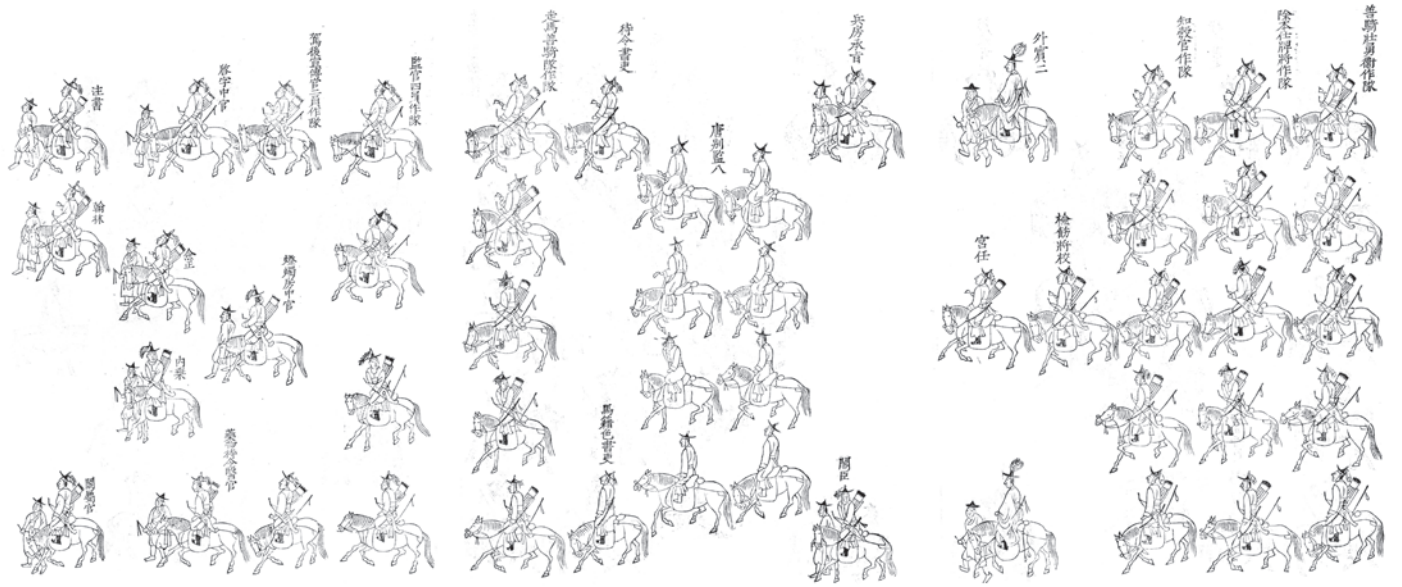
4

大砲
喇叭
軍牢五
巡視二
令旗五
大和魂事二
貫耳
軍牢二
大角二
鼓二
認旗
印馬
甲馬
令箭

5


善騎隊左明盔作隊
神旗
喇叭
軍牢二
認旗
鼓
大砲
甲馬
善騎隊
印信馬
壯勇衛九十六人五馬作隊
鼓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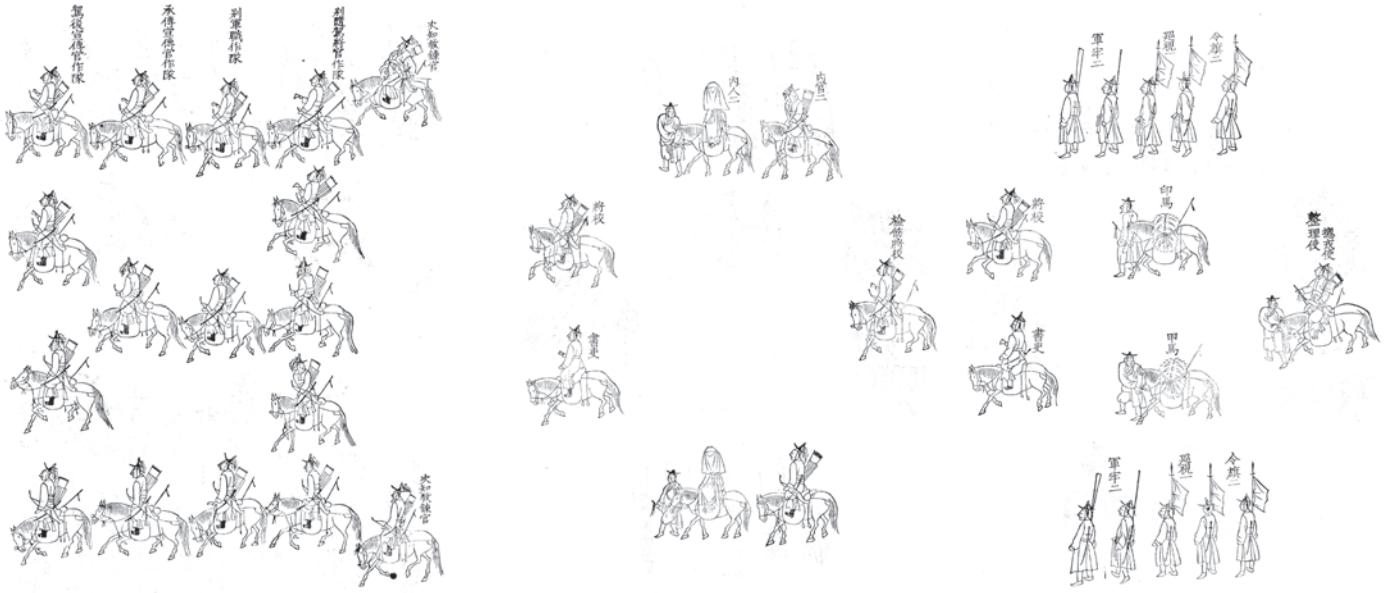
金鼓旗
玄武旗
白虎旗
西北角
黃門旗
西南角
清道
塘報三
勝捷旗
黑高招
白高招
黃高招
藍高招
紅高招
塘報四
金鼓旗
青龍旗
朱雀旗
東北角
黃門旗
東南角
清道
塘報三
軍牢
金鼓二
振旅
鼓
鼓旗
普騎將
甲馬
軍牢


注書
論林
金立
內侍
藝文館
閣門
監官習射作隊
駕前護衛三月作隊
修守中官
樂師房中官
藝文館
兵房承旨
唐別監八
馬錦色書吏
閣臣
外賓二
宮任
知敦寧作隊
除本宮將作隊
普騎將校
普騎將勇衛作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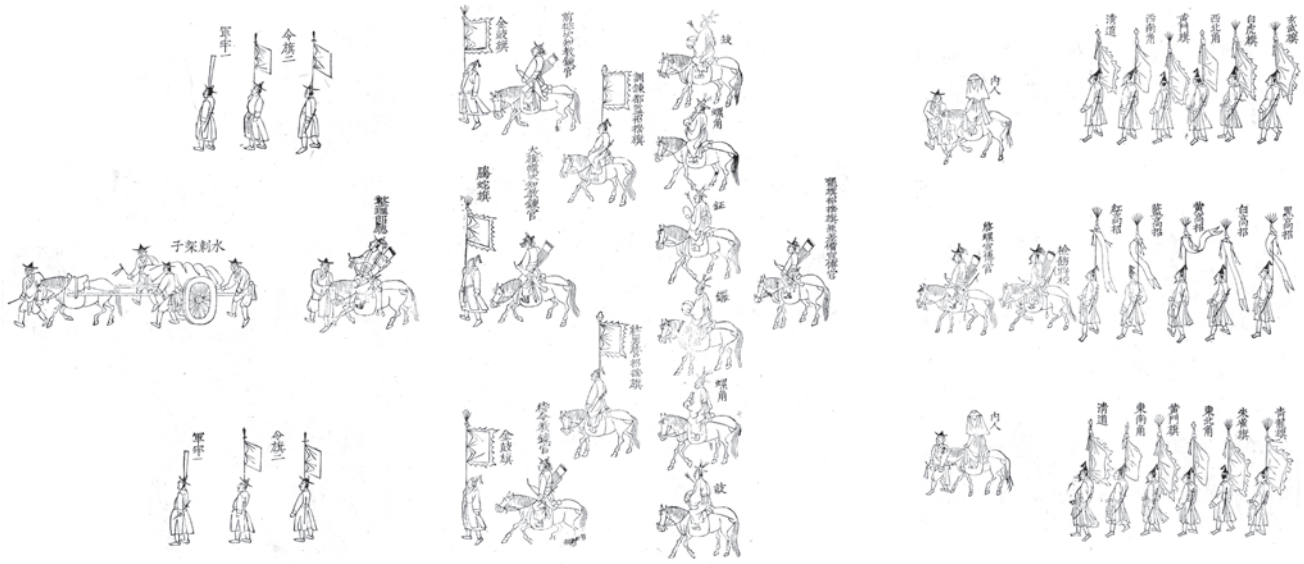
6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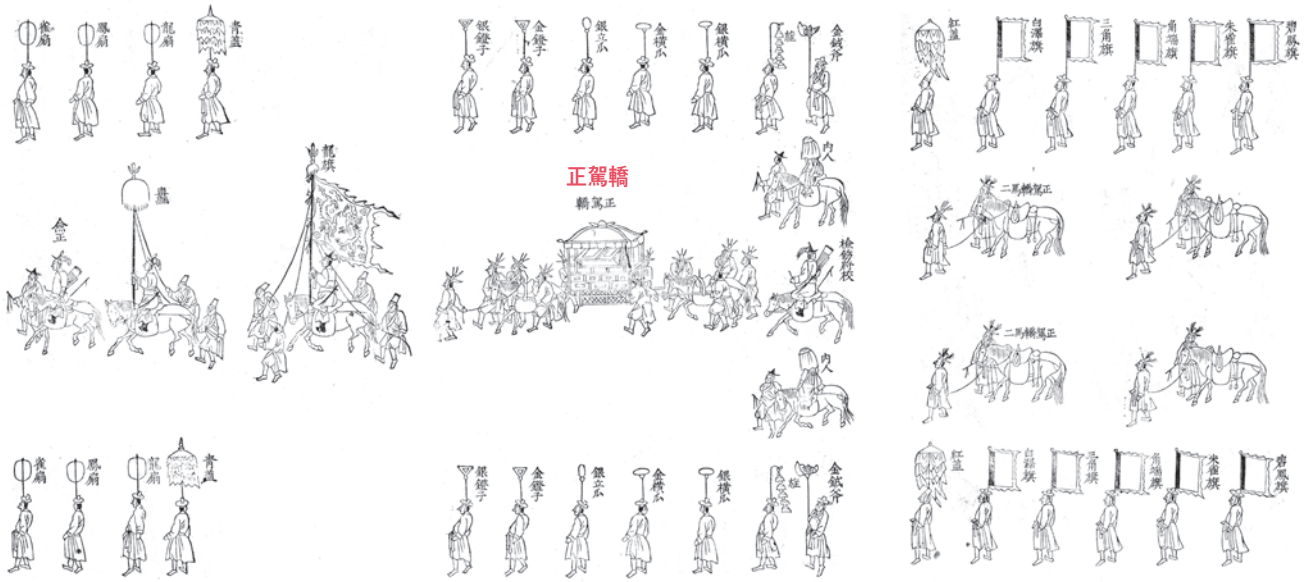
慈宮駕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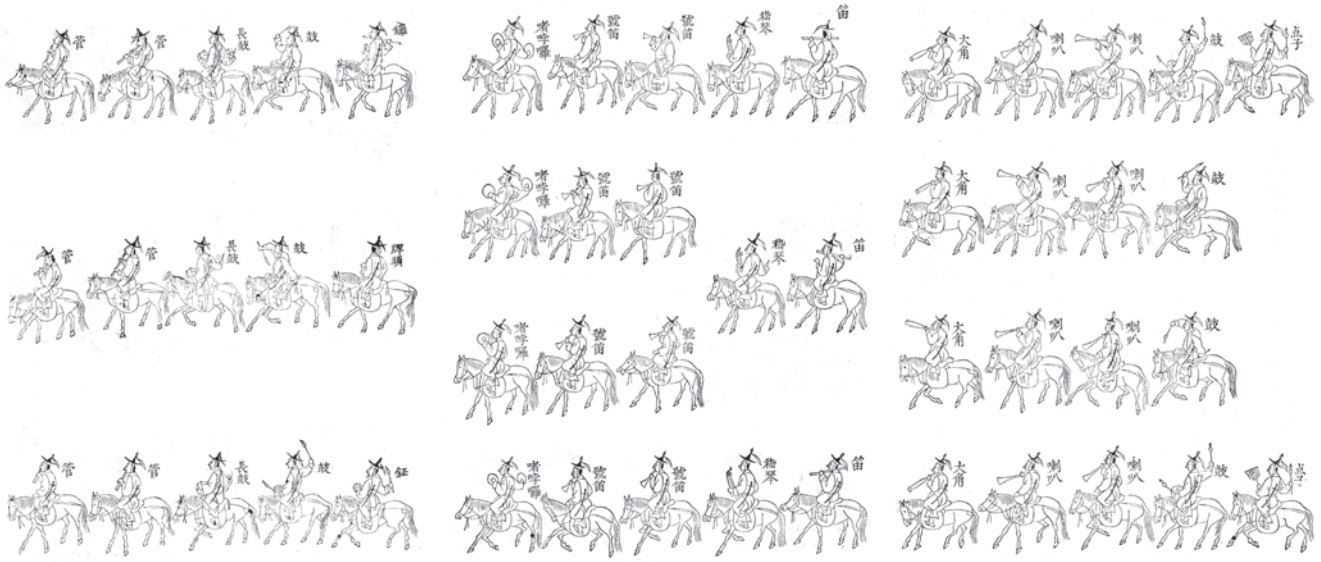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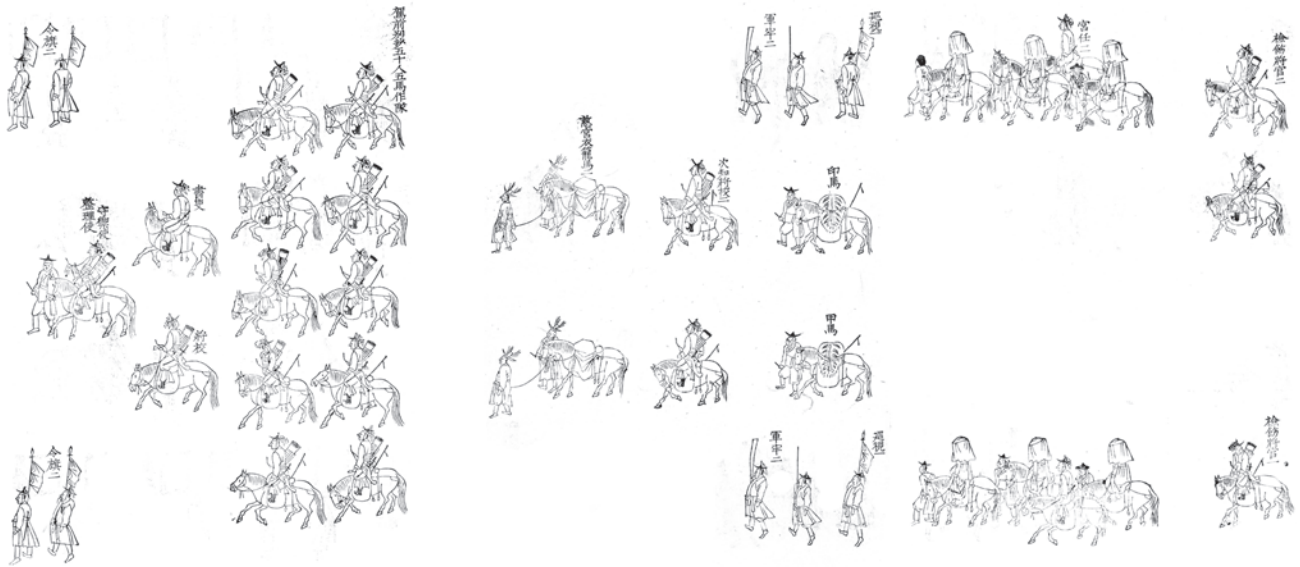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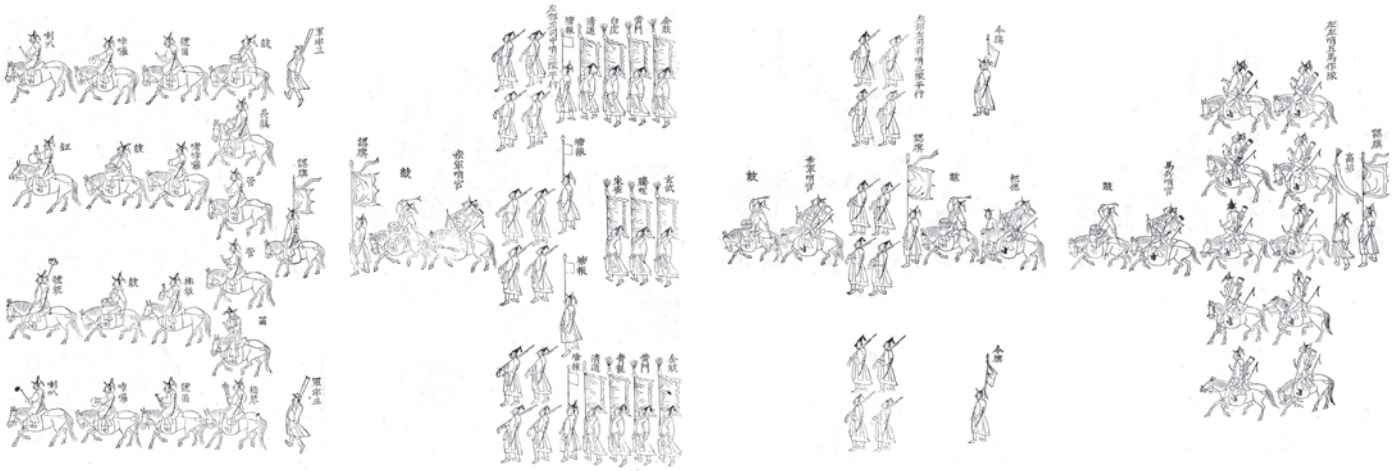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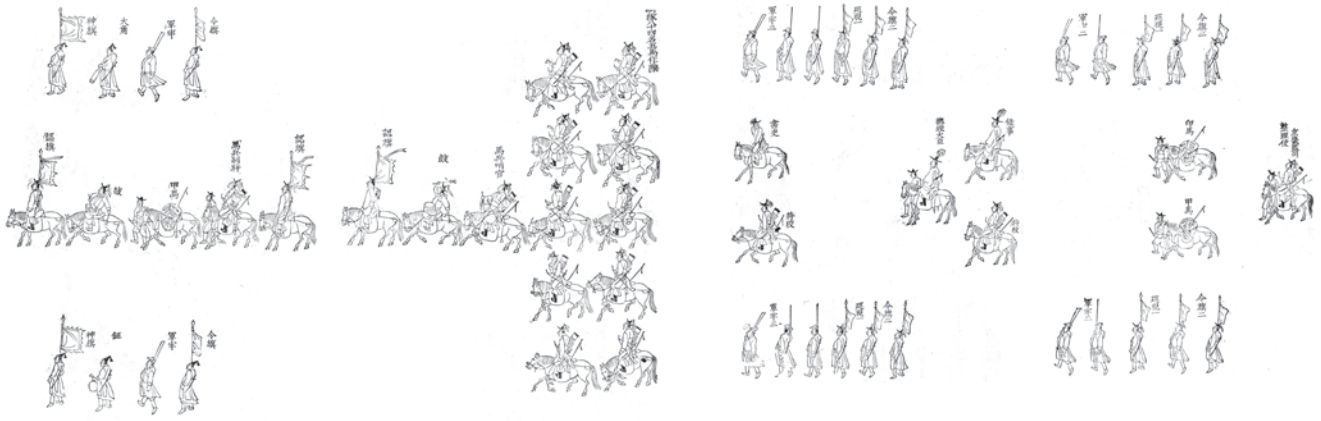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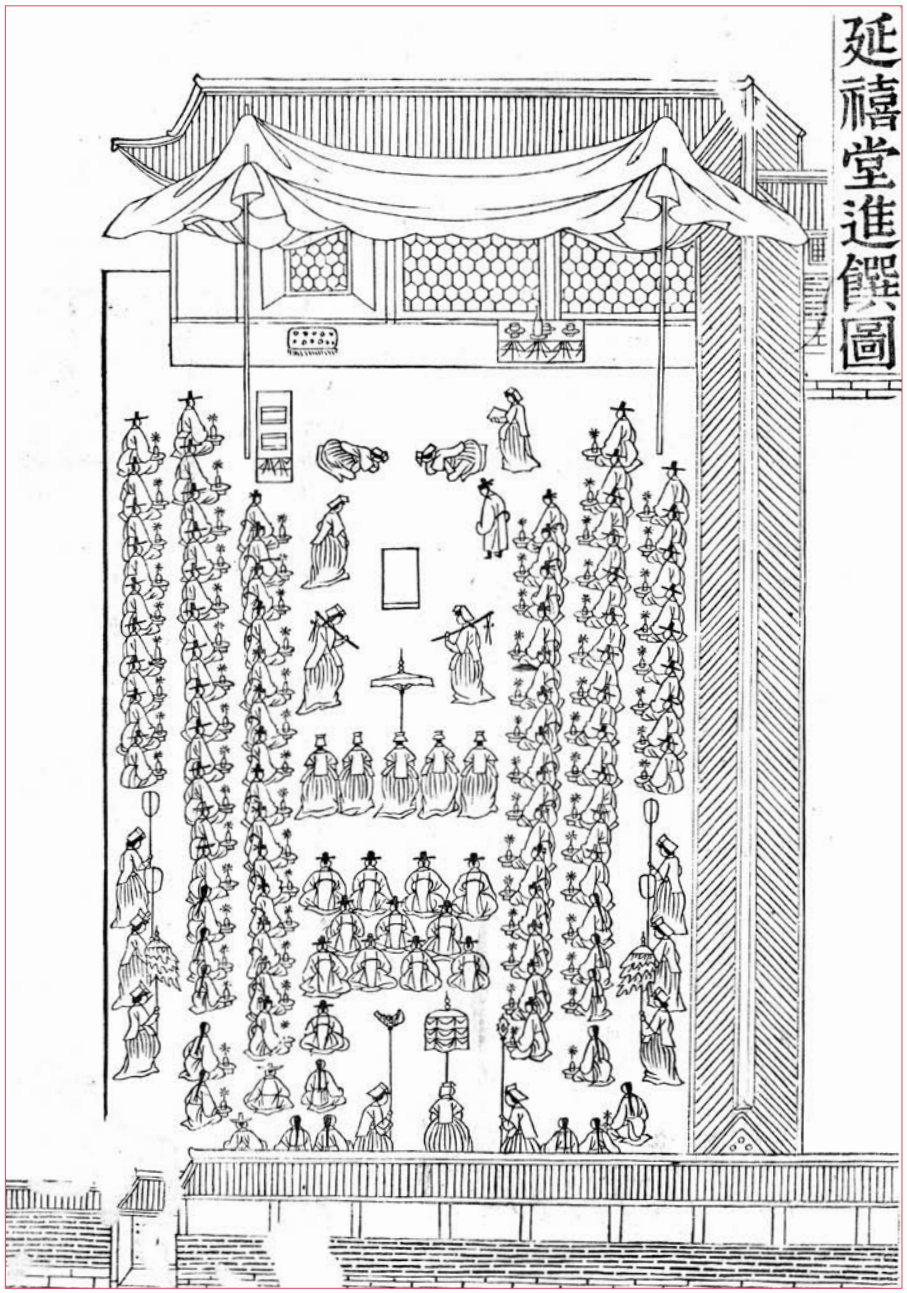
10

11





연희당진찬도 延禧堂進饌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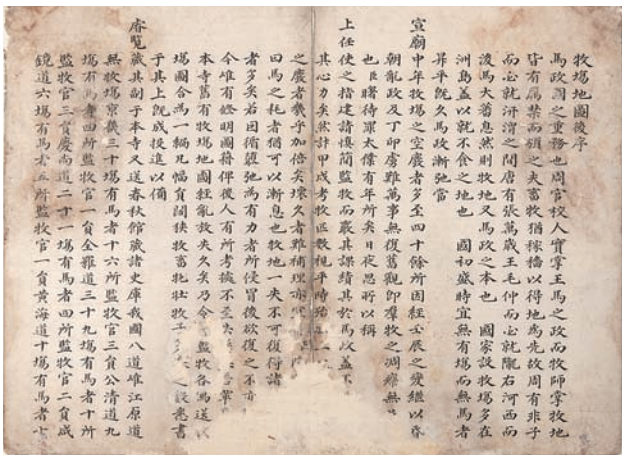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실제 환갑날인 1795년 6월 18일, 창경궁의 연희당에서 환갑잔치를 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홍화문사미도 弘化門賜米圖

정조 임금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환갑잔치를 마치고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에 나가 백성들에게 쌀을 내려주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때 서울 중부의 31호, 동부의 80호, 서부의 208호, 남부의 135호, 북부의 58호 등 총 512호에 쌀 3말씩을 내려주었습니다.

3

그림으로 보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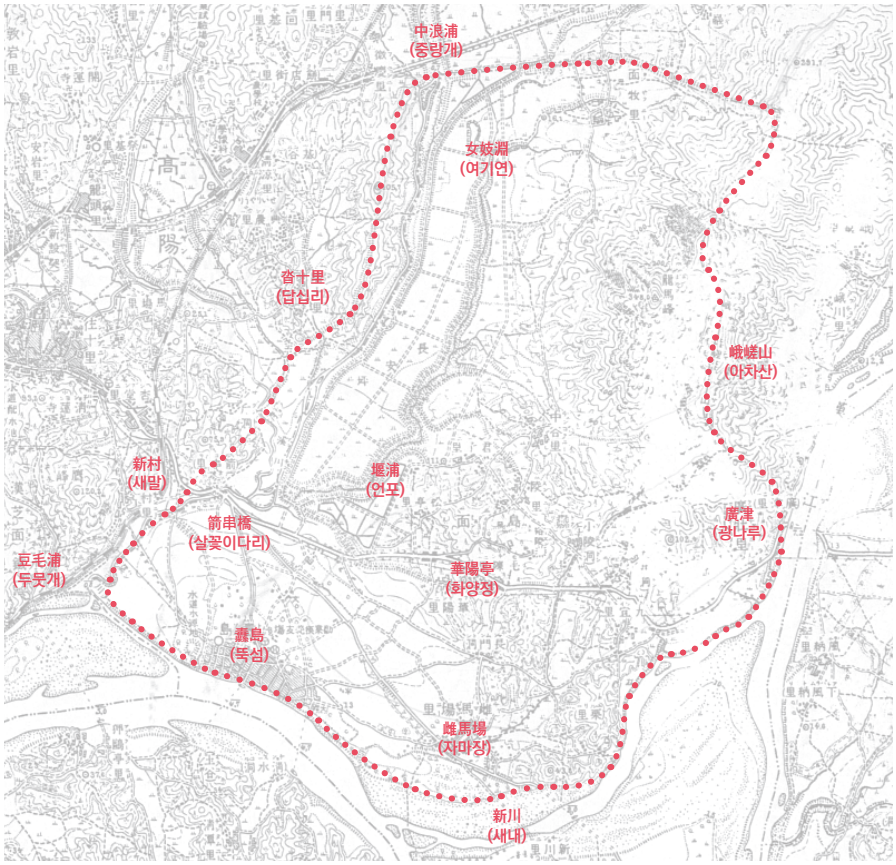

牧場地圖後序

馬政國之重務也周官校人實掌王馬之政而牧師掌牧地
皆有屬禁而頒之夫畜牧猶稼穡以得地爲先故周有非子
而公就汧渭之閒唐有張萬歲王毛仲而忠就隴右河西而
後馬大蕃息然則牧地又馬政之本也　國家設牧場多在
洲島蓋以就不食之地也　國初盛時宜無有場而無馬者
并乎既久馬政漸弛當
宣廟中年牧場之空虛者多至四十餘所因狂丐展之變繼以倉
朝亂政及丁卯虜難萬事無復舊觀卽禦牧之凋殘無
也　睿賜待罪太僕有年所矣日夜思所以稱
上任使之指建請慎簡監牧而叢其課績其於馬以益下
其心力矣然計甲戌考牧匹數視乎時猶五
之虛者幾乎加倍矣壞久者難補理亦
回馬之耗者猶可以漸息也牧地一失不可復得諸
者多矣若因循襲弛爲有力者所使冒復欲復之不可
今唯有經明圖將伴復人有所考摭不至
本寺舊有牧場地圖紅亂散失久矣乃令
場圖合爲一編凡幅員闊狹牧畜牝牡牧子
于其上既成投進以備
睿覽藏其副于本寺又送春秋館藏諸史庫我國八道唯江原道
無牧場京畿三十場有馬者十六所監牧官三員公淸道九
場有馬者四所監牧官一員全羅道三十九場有馬者十所
監牧官三員慶尙道二十一場有馬者四所監牧官二員咸
鏡道六場有馬者五所監牧官一員黃海道十場有馬者七

목장 이야기 : 목장지도 牧場地圖

사복시 편 / 1678 / 채색필사본 / 1책 / 44.8×30.0cm / 한貴古朝80-32 (보물 제1595-1호)

1678년, 조선시대 국영 목장의 운영을 책임진 사복시司僕寺에서 국영 목장의 그림식 지도 32장과 통계 등을 담아 보고용으로 제작한 지도책입니다. 서울 살곶이목장箭串牧場의 지도인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를 비롯하여, 경기-공청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함경도-황해도-평안도의 순서로 목장지도와 각종 통계 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전국 국영 목장의 수는 138개였지만 실제로 운영되던 곳은 53개였습니다. 이들 목장에서 키우던 말은 20,213마리, 그 중 수말은 6,939마리이고 암말은 13,274마리였습니다. 소는 895마리, 그 중에서 수소는 683마리, 암소는 212마리였습니다. 목장을 관리하는 목동은 5,178명이었습니다. 희귀본으로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8년 12월 22일에 보물 제1595-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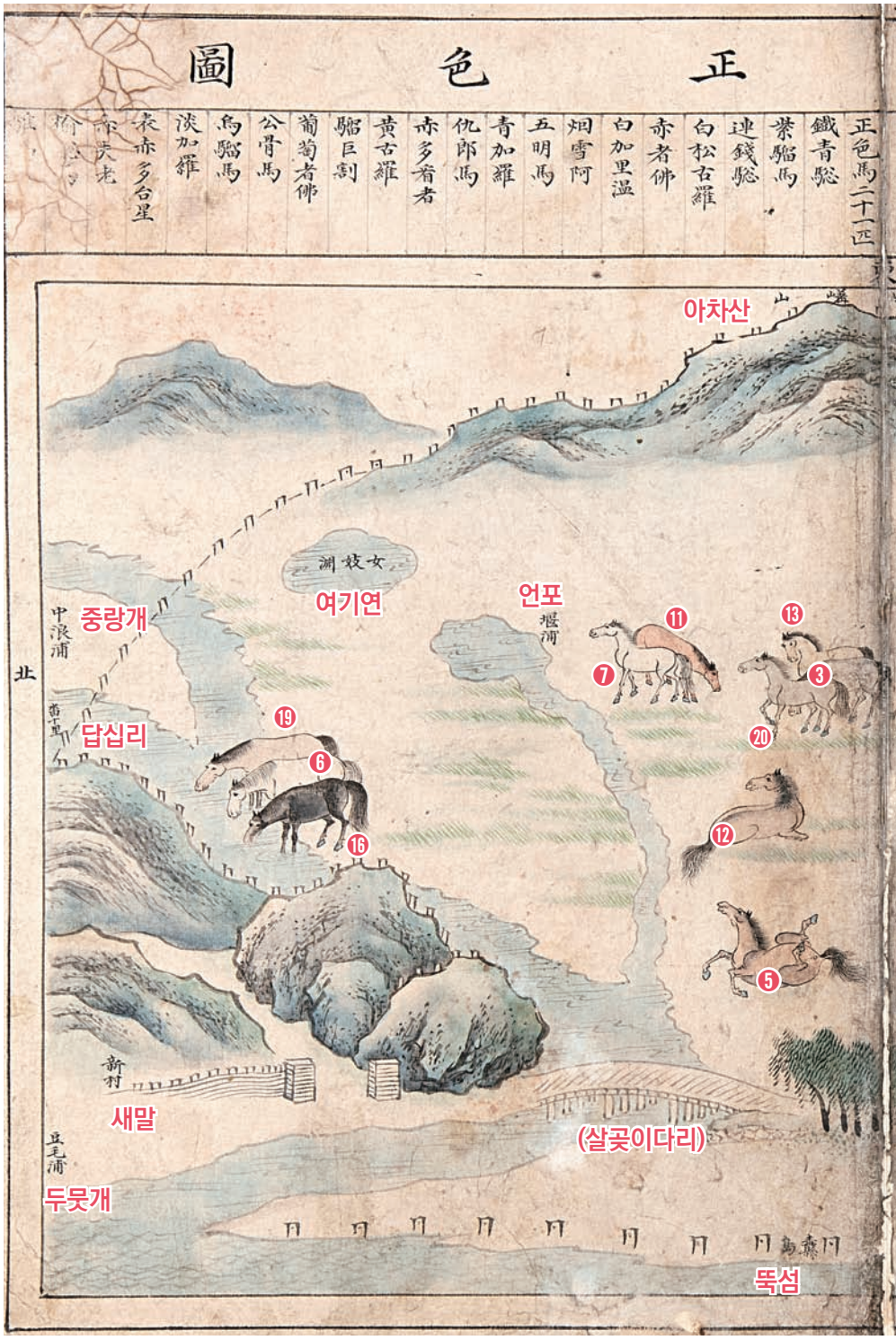


살곶이목장의 범위

(원도: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1) 진헌마정색도進獻馬正色圖의 용어 및 지명

- 진헌마進獻馬 : 임금에게 바치는 말
- 정색마正色馬 : 색깔에 따라 구분한 말
- 자마장雌馬場 : 좋은 말을 확보하기 위해 암말雌馬만 기르던 곳으로, 현재의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있었다. 암말이 발정기가 되면 우량 수말과 교배시켜서 양마를 생산하였다.
- 화양정華陽亭 : 말 방목을 감독하고 임금이 군대의 열병 등을 하는 장소로 현재의 건국대학교 안에 있었다.
- 환장環場 : 말을 몰아넣어 수효 점검, 말의 등급 구별, 낙인찍기, 병 치료를 하는 곳이었다.
- 여기연女妓淵 : 중랑개 부근 현재의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웅덩이로 말이 물을 마시는 곳이었다.
- 언포堰浦 : 현재의 중랑구 군자동과 중곡동 일부에 위치한 방죽으로, 살곶이다리로 흘러나가면서 말이 물을 마시는 곳이었다.
- 수책樹柵 : 버드나무를 심어 엮어서 바람을 막고 말이 달아나는 것을 방지하는 버드나무 울타리로 살곶이다리에서 광나루까지 3,477m 정도의 길이었다.
- 그밖의 지명 : 중랑개中浪浦, 광나루廣津, 새내新川, 뚝섬纛島, 두뭇개豆毛浦, 새말新村, 답십리畓十里, 아차산峨嵯山



진헌마정색도의 살곶이목장

❶ 철청총鐵靑驄 —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갈기와 꼬리만 검무래한 말.

❷ 자류마紫騮馬 — 몸 전체는 붉은색이며 갈기와 꼬리 다리의 아래 부분이 검은 말

❸ 연전총連錢驄 —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엉덩이 옆구리 어깨 부위에 흰색 엽전 모양의 무늬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말

❹ 백송고라白松古羅 — 몸 전체는 황백색이며 갈기 꼬리 네 다리의 아래 부분은 검은색의 말

❺ 적자불赤者佛 — 몸 전체는 붉은색이며 얼굴과 눈꺼풀이 흰색의 말

❻ 백가리온白加里溫 — 몸 전체는 흰색이며 꼬리털은 검은색의 말

❼ 연설아烟雪阿 — 몸 전체가 백색인 말

❽ 오명마五明馬 — 몸 전체는 검은색이며 네 다리 아래 부분과 코에 흰색 반점이 있는 말

❾ 청가라靑加羅 — 몸 전체가 검은색의 말

❿ 구랑마仇郞馬 — 몸 전체가 짙은 적갈색이면서 어두운 회색을 띤 말

⓫ 적다간자赤多看者 — 몸 전체는 적색이고 콧등에 흰 반점이 있는 말

⓬ 황고黃古羅 — 몸 전체는 황색이며 네 다리 아래 부분은 흑색, 등에는 검은 줄의 뱀장어 무늬가 있는 말

⓭ 유거흘騮巨訖 — 몸 전체는 적갈색이며 입과 눈 주위 아랫배 네 다리의 윗부분 옆구리 부위에 흰색 털이 혼합되어 연해진 말

⓮ 포도자불葡萄者佛 — 몸 전체는 어두운 붉은색(포도색)이며 얼굴과 눈꺼풀이 흰 말

⓯ 공골마公骨馬 — 몸 전체가 누런색의 말

⓰ 오류마烏騮馬 — 몸 전체가 까마귀의 깃처럼 광택이 나는 칠흑색의 말

⓱ 담가라淡加羅 — 몸 전체는 어두운 회색이며 털갈이 후에는 검은색으로 변하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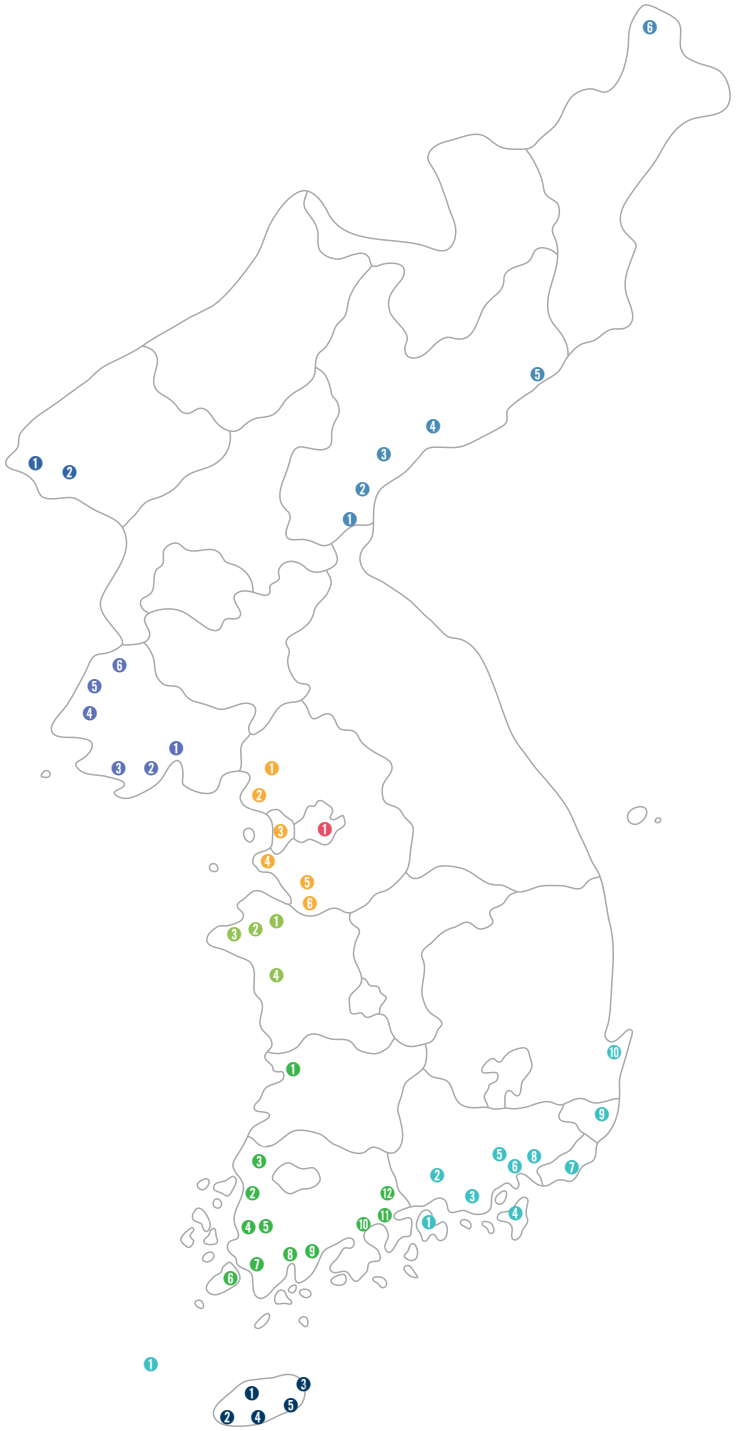
⓲ 표적다태성表赤多台星 — 몸 전체는 연한 붉은색이며 갈기는 은색이고 이마에 둥글고 큰 흰 반점이 있는 말

⓳ 적부로赤夫老 — 몸 전체는 연한 붉은색이며 갈기 꼬리 네 다리 아래 부분이 붉은색인 말

⓴ 유총마楡驄馬 — 몸 전체는 회백색이며 머리 가슴 허리 다리 등에 갈색이 털이 남아 있는 말

㉑ 추마雛馬 — 검푸른 털에 흰색의 털이 섞인 말

2) 전국의 목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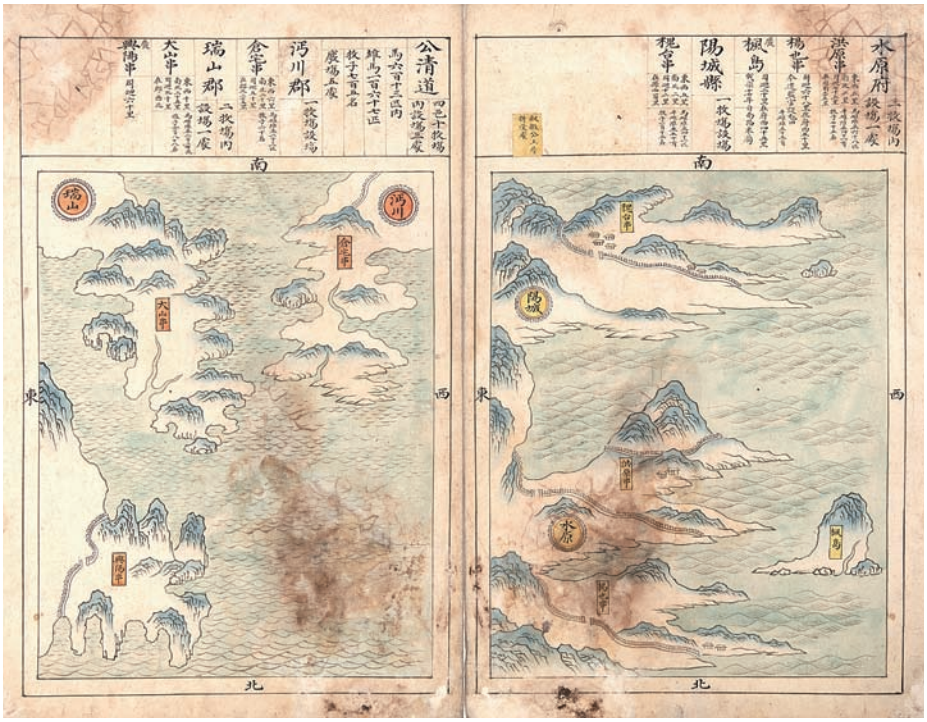


* 숫자 : 전체 목장 수(운영 목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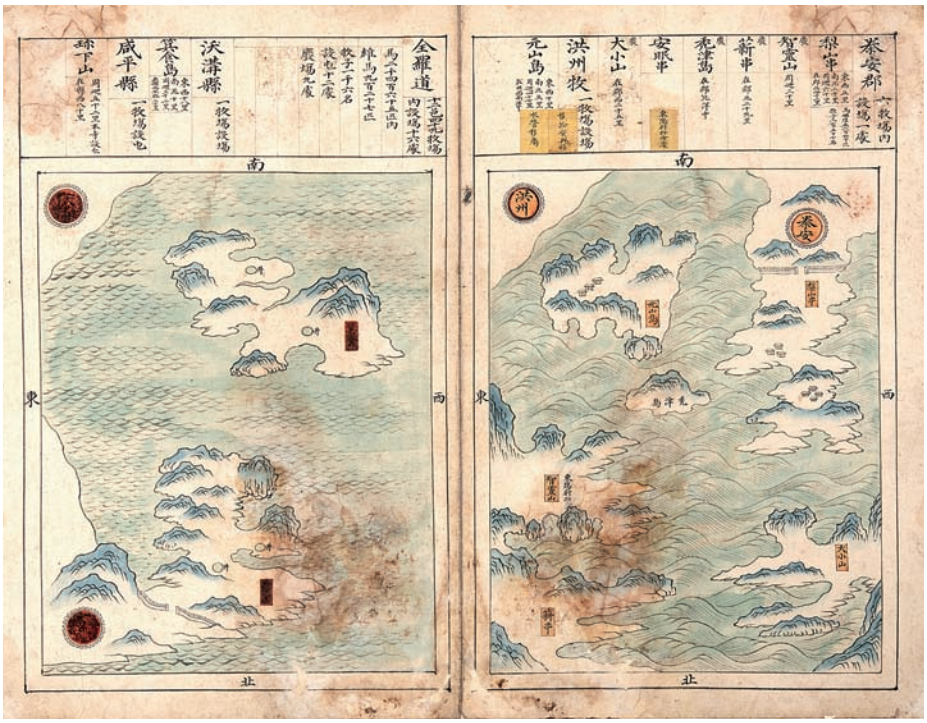
서울	❶ 살곶이목장	1(1)
경기도	❶ 장단부	1(0)
	❷ 강화부	9(6)
	❸ 인천부	7(2)
	❹ 남양부	9(5)
	❺ 수원부	3(1)
	❻ 양성현	1(1)
	합계	**30(15)**
공청도 (충청도)	❶ 면천군	1(1)
	❷ 서산군	2(1)
	❸ 태안군	6(1)
	❹ 홍주목	1(0)
	합계	**10(3)**
전라도	❶ 옥구현	1(1)
	❷ 함평현	1(0)
	❸ 영광군	4(1)
	❹ 무안현	1(0)
	❺ 나주목	7(3)
	❻ 진도군	3(1)
	❼ 해남현	1(0)
	❽ 강진현	2(0)
	❾ 장흥부	3(0)
	❿ 낙안군	1(0)
	⓫ 흥양군	9(3)
	⓬ 순천부	23(7)
	합계	**49(16)**
경상도	❶ 남해현	1(0)
	❷ 진주목	2(1)
	❸ 고성현	2(0)
	❹ 거제현	9(0)
	❺ 칠원현	1(0)
	❻ 웅천현	1(0)
	❼ 동래부	5(1)
	❽ 김해부	2(2)
	❾ 울산부	1(1)
	❿ 장기현	1(1)
	합계	**23(6)**
함경도	❶ 문천군	1(1)
	❷ 영흥부	1(1)
	❸ 함흥부	2(0)
	❹ 홍원현	1(1)
	❺ 단천부	1(1)
	❻ 온성군	1(1)
	합계	**7(5)**
황해도	❶ 해주목	3(1)
	❷ 강령현	2(0)
	❸ 옹진현	2(1)
	❹ 장연부	1(1)
	❺ 풍천부	1(1)
	❻ 은율현	1(1)
	합계	**10(5)**
평안도	❶ 철산부	2(1)
	❷ 선천부	2(2)
	합계	**4(3)**
제주목	❶ 제주목	1(1)
	❷ 정의현	1(1)
	❸ 대정현	1(1)
	❹ 별목장	1(1)
	❺ 우도	1(1)
	합계	**5(5)**

목장지도에 수록된 지도 및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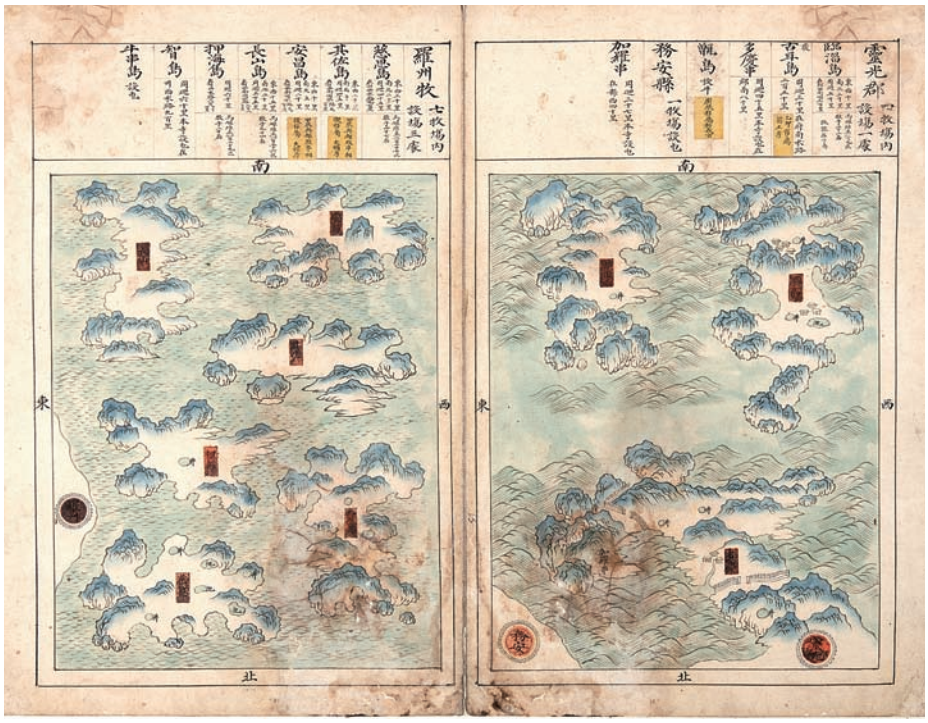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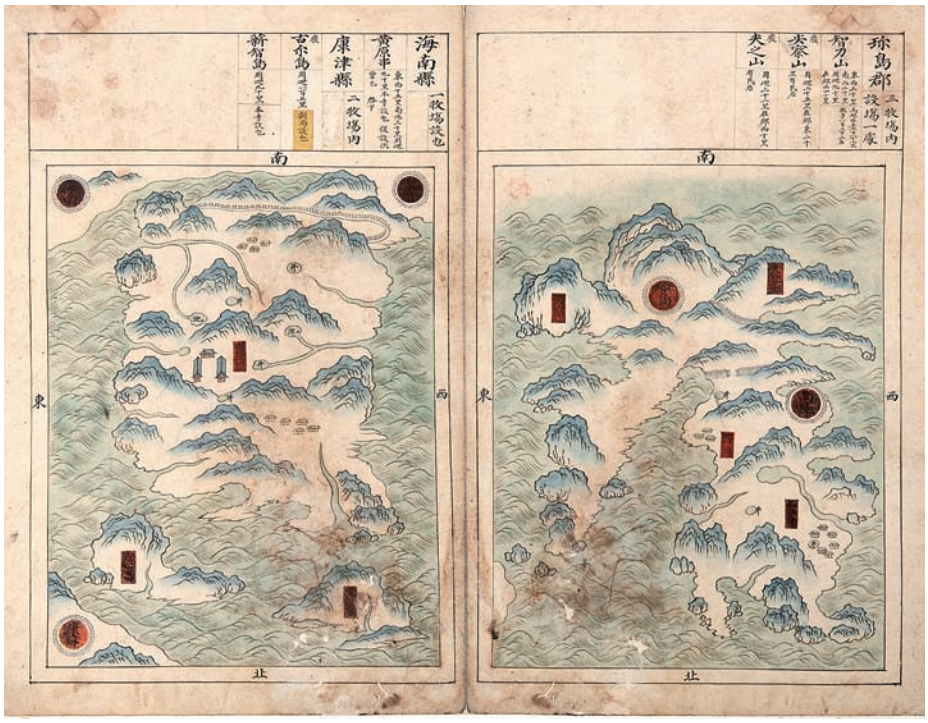


경기도
충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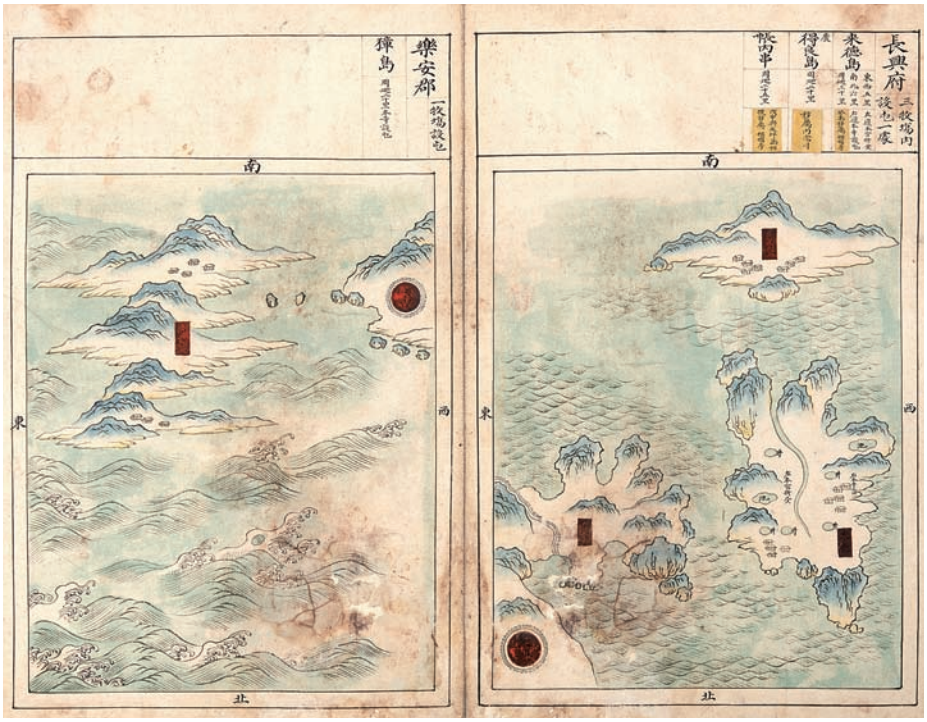


충청도
전라도


羅州牧 七牧場內 設場五處
靈光郡 四牧場內 設場一處
南
東
西
北


海南縣 一牧場設也
康津縣 二牧場內
珍島郡 三牧場內 設場一處
南
東
西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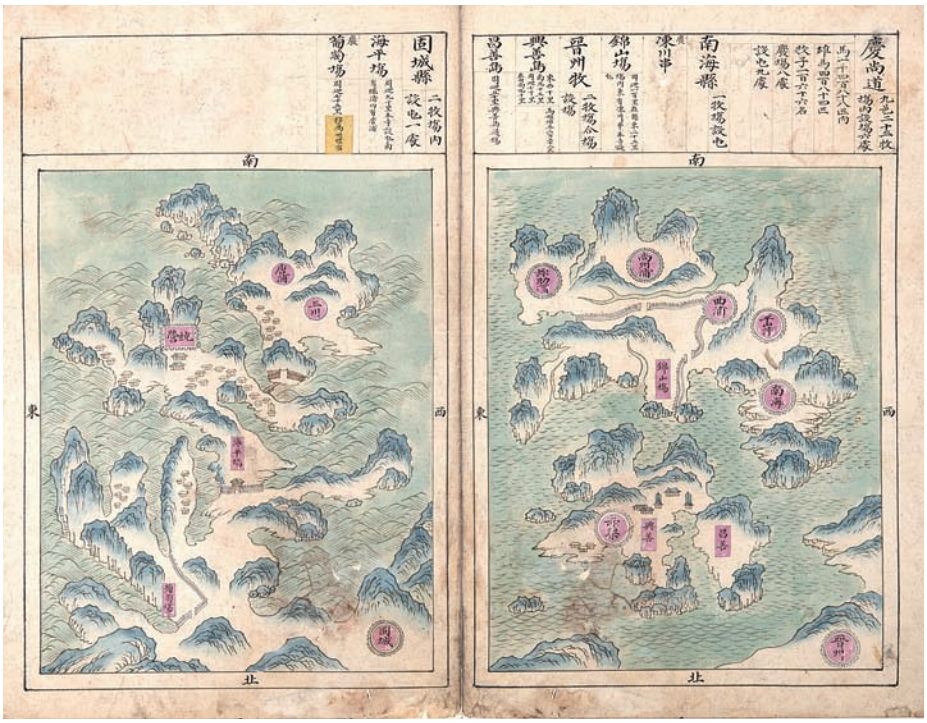
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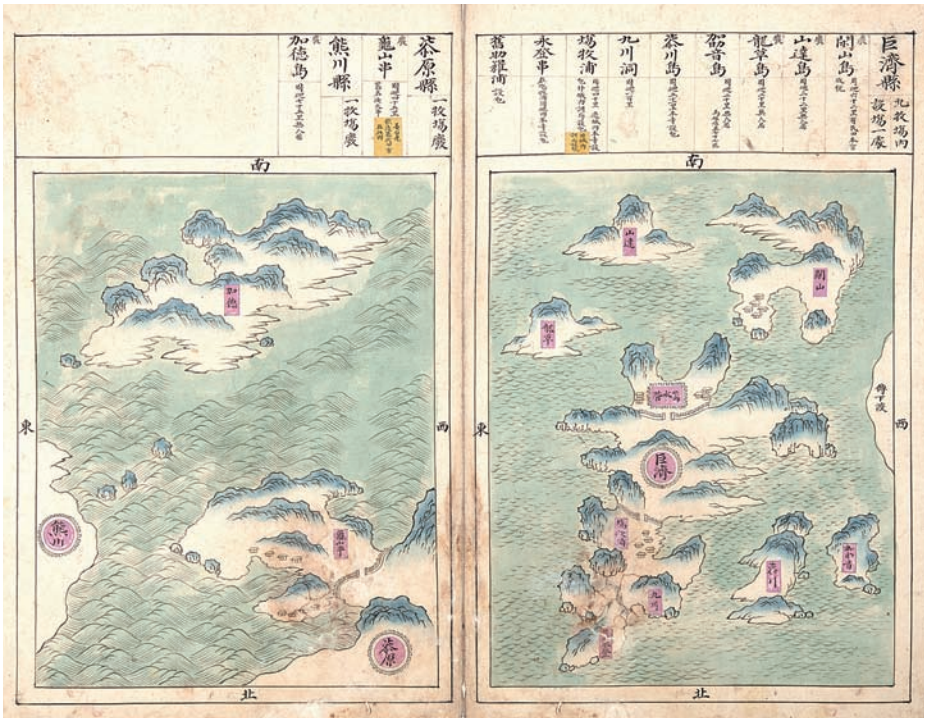
전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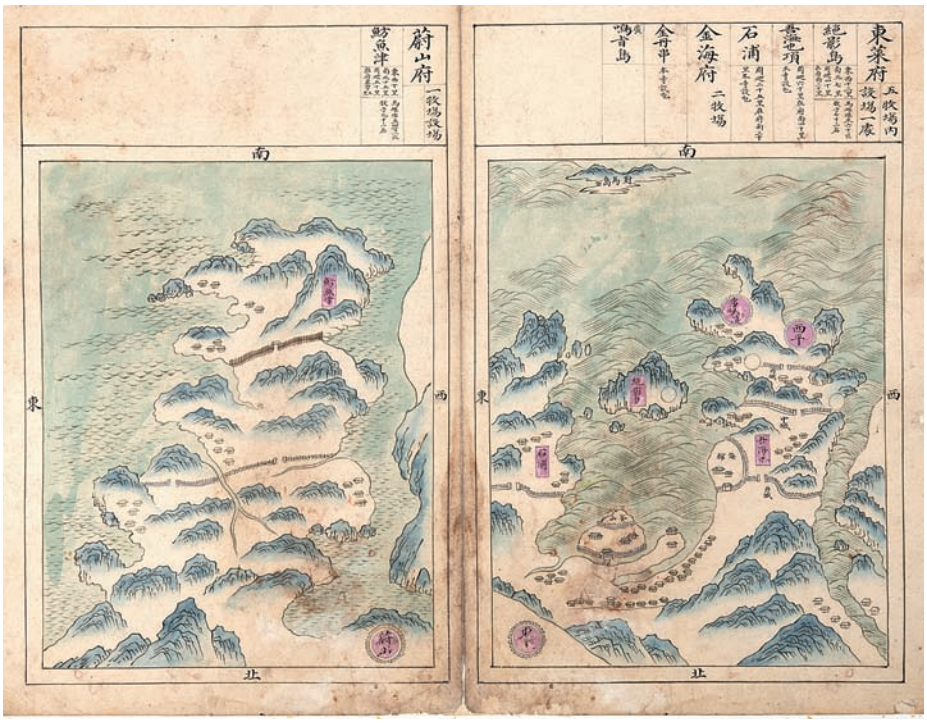
順天府
二處牧場內
設場七處
白也平
白也島
尹里島
釉島
大花島
小花島
四吃島
黔毛島
狼島
突山島
城頭平
內羅老
外羅老
熱泰島
蓋島
濟耳島
南
東
西
北

전라도


慶尚道
九邑三牧
馬一千四百八十四匹
牧子一百六十六名
設也九處
南海縣
二牧場設也
晉州牧
二牧場內場
興善島
昌善島
固城縣
二牧場內
設也一處
海平場
葡萄場
南
東
西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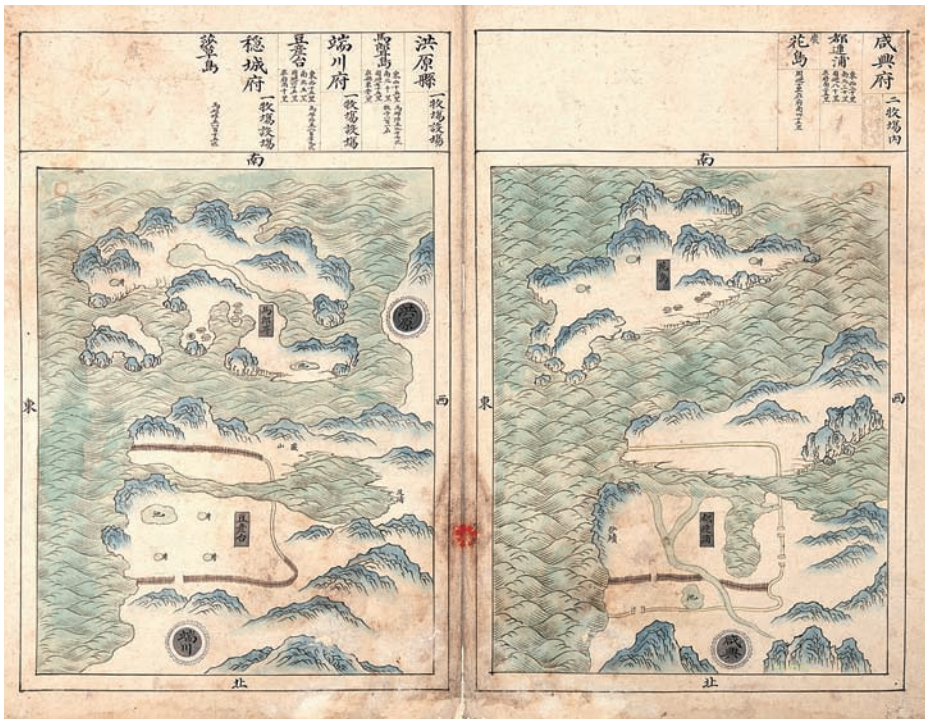
경상도


茶原縣
一牧場廢
熊川縣
一牧場廢
加德島
巨濟縣
九牧場內
設場一處
閑山島
山達島
龍草島
茶川島
九川洞
南
東
西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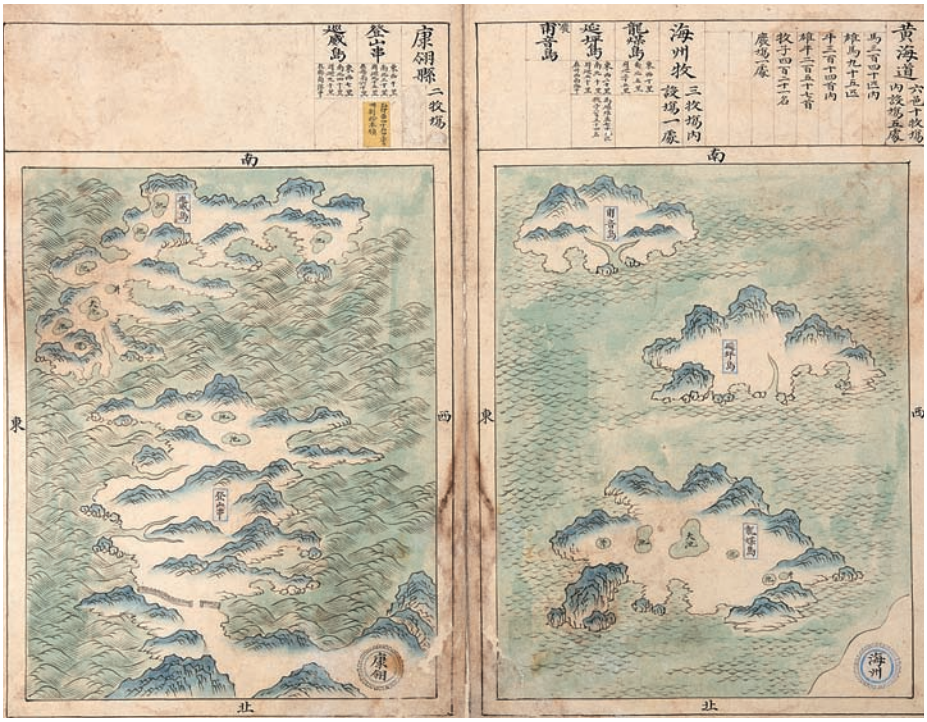

蔚山府
一牧場設場
東萊府
五牧場內
設場一處
絶影島
石浦
金海府
二牧場
鳴旨島
南
東
西
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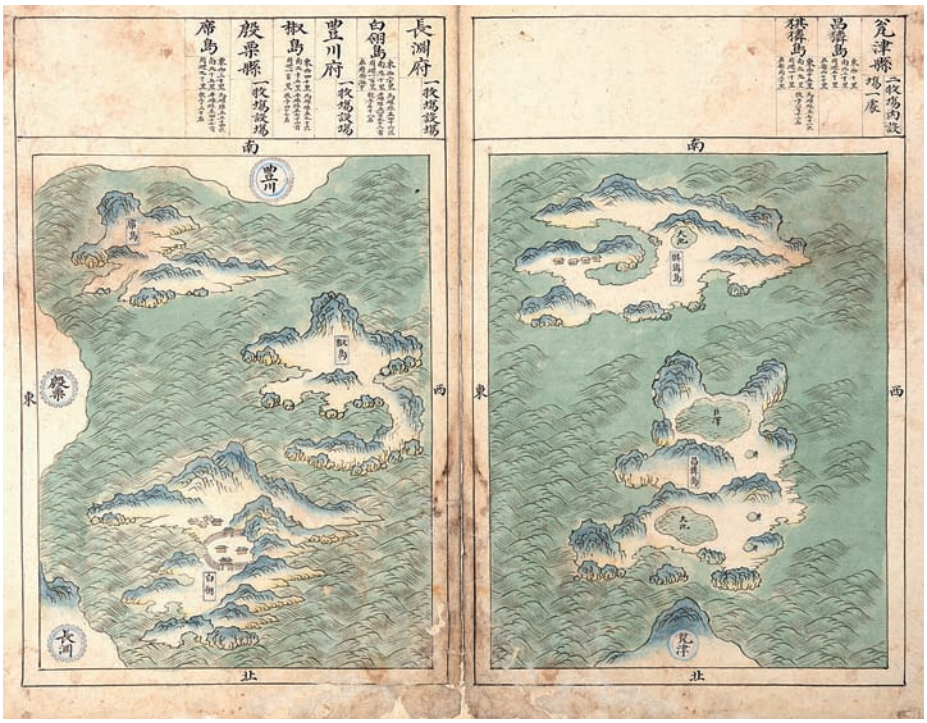
경상도

경상도
함경도



함경도


康朔縣 一牧場
登山串
巡藏島
黃海道 六色十牧場內設場五處
海州牧 三牧場內設場一處
龍媒島
延坪島
甫音島
南
東
西
北
康朔
海州


長淵府 一牧場設場
白翎島
豐川府 一牧場設場
椒島
殷栗縣 一牧場設場
席島
瓮津縣 一牧場內設場一處
昌獐島
猬獐島
南
東
西
北
豐川
殷栗
長淵
瓮津

황해도

평안도
제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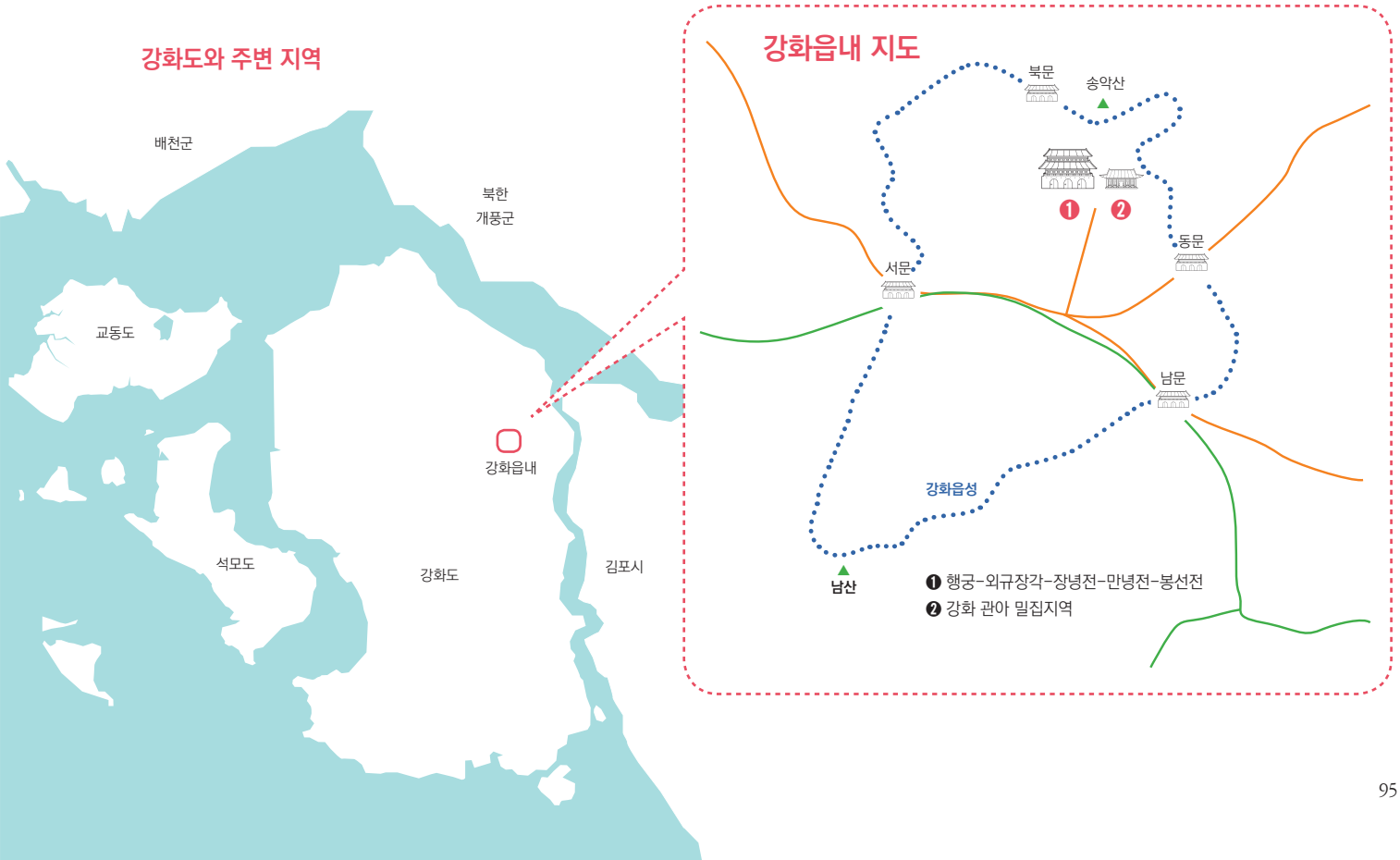
행궁 이야기 :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殿圖

제작자 미상 / [1558-1865] / 채색필사본 / 1첩 / 36.8×25.7cm / 한貴古朝62-178

강화부궁전도는 '강화부에 있는 궁궐과 궁전을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제1폭 「행궁도行宮圖」, 제2폭 「외규장각도外奎章閣圖)」, 제3폭 「장녕전도長寧殿圖」, 제4폭 「봉선전도奉先殿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1858년에서 1865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화행궁은 청나라와 대규모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임금이 피난하며 장기전을 펼치기 위해 지은 임시 궁궐입니다. 장녕전은 숙종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봉선전은 세조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봉선전과 함께 그려진 만녕전萬寧殿은 영조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모신 건물이며, 돌아가신 임금의 어진御眞, 초상화을 모신 건물도 궁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외규장각은 왕실 관련 서적을 보관하던 도서관이며, 창덕궁에 있던 왕립도서관인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 역할을 하였습니다. 1866년고종 3의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점령하여 다섯 건물 모두를 불태웠고, 외규장각도서를 약탈해 갔습니다.

1) 왜 강화도에 행궁, 외규장각, 장녕전, 만녕전, 봉선전이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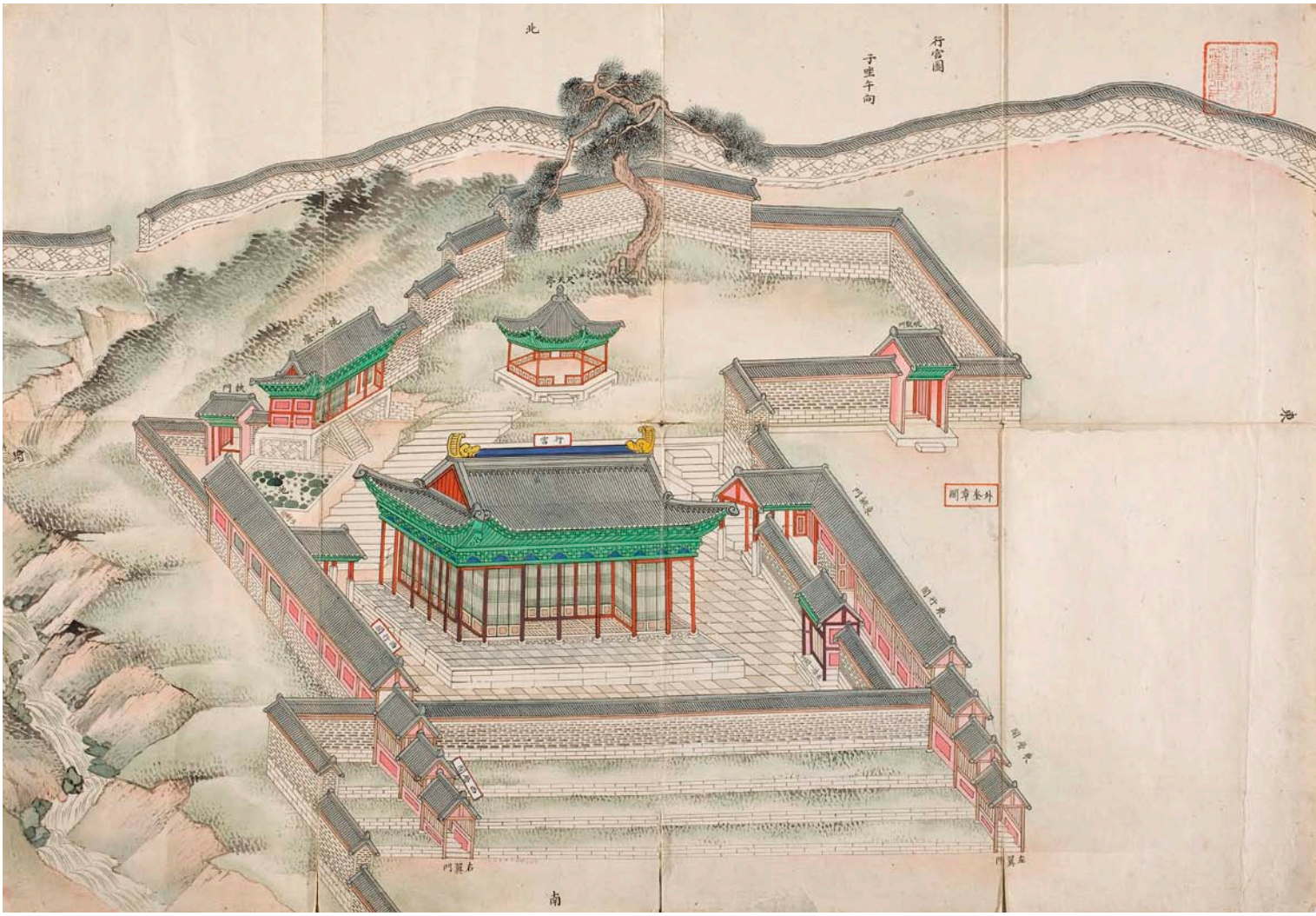
강화도 주변의 바다는 밀물과 썰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가 9m나 됩니다. 이 때문에 썰물 때 푹푹 빠지는 넓은 갯벌이 사방으로 발달하였고, 동쪽 김포와 북쪽 개풍과의 좁은 물목에서는 밀물 때는 내륙의 한강과 임진강 쪽으로, 썰물 때는 인천 앞바다 쪽으로 바닷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1231년 몽골의 1차 침입을 받은 후 고려 정부는 몽골군과의 장기전에 대비하여 상륙 공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는 유라시아대륙을 휩쓸고 다니던 몽골군이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 동안 한 번의 상륙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세계 최고의 요새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임진왜란 후 만주에서 성장한 후금과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선 정부는 세계 최강 몽골군도 함락시키지 못한 강화도를 장기전의 핵심 거점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비록 병자호란 때 조선군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청나라군에 의해 함락되기는 했지만 준비만 제대로 하면 청나라군이 쉽게 함락시킬 수 없는 세계 최고의 요새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병자호란 후 조선 정부는 청나라와 대규모 전쟁이 벌어져도 다시는 함락되지 않을 튼튼한 요새로 강화도를 재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이 피난하며 전쟁을 진두지휘할 행궁이 건설되었고, 청나라와 전쟁이 일어나도 파괴되지 않도록 외규장각과 봉선전·장녕전·만녕전을 강화도에 만들었습니다.



2) 강화부궁전도의 그림 이야기

행궁도[行宮圖]

강화행궁은 광해군 때 후금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가 함락되면서 불탔습니다. 1705년[숙종 31]에 재건되었고, 1714년[숙종 40]에 강화유수 김진규가 '行宮[행궁]'이란 편액을 써서 걸었습니다. 병인양요 때 불타고 아직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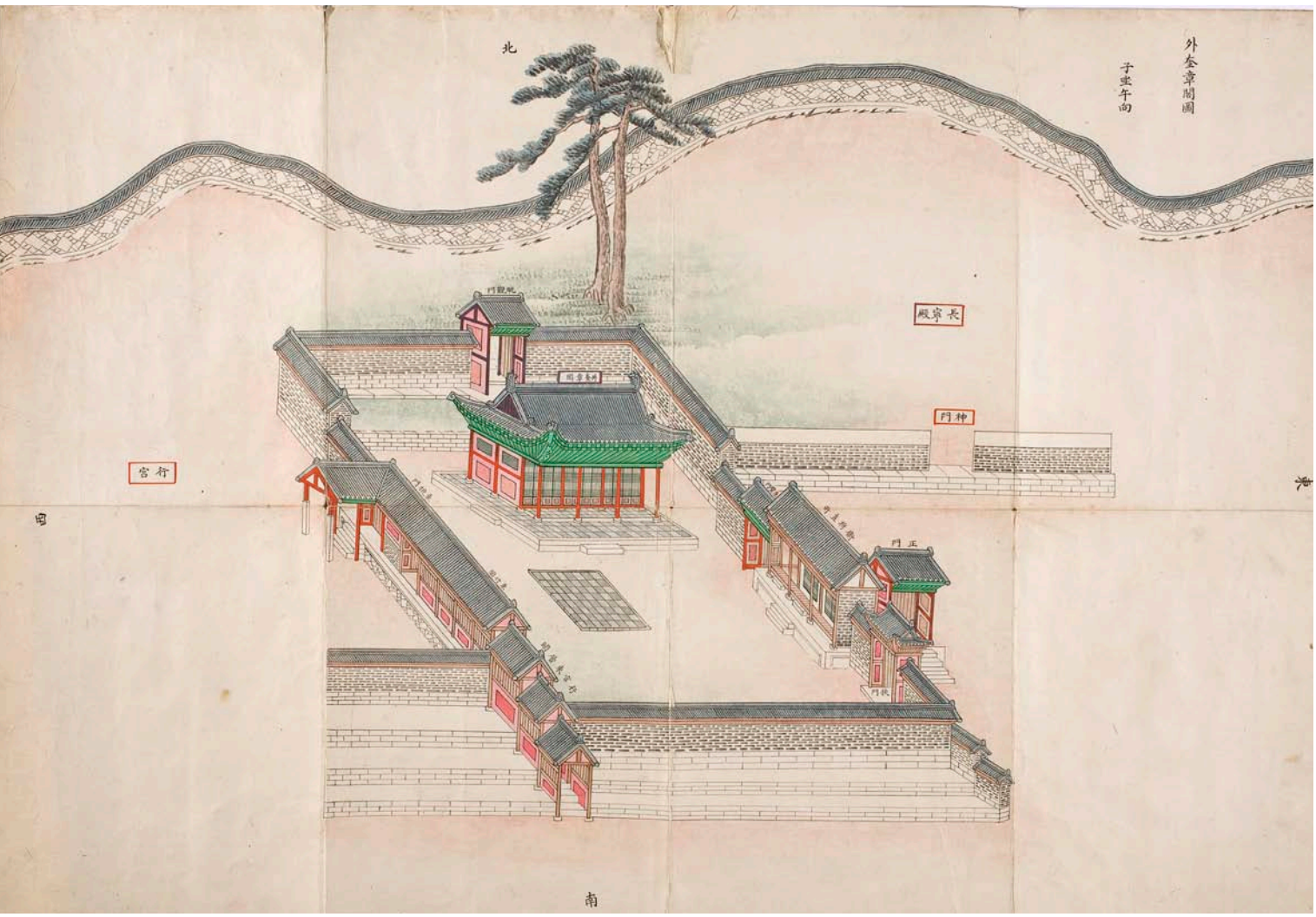


외규장각도[外奎章閣圖]

1781년[정조 5] 3월 정조 임금이 행궁 동쪽에 외규장각을 만들도록 명하였고, 1782년[정조 6] 2월에 완공되었습니다. 국가 행사 보고서인 의궤[儀軌], 임금의 글씨인 어필[御筆] 등 총 1,000여 종 6,000여 책(점)을 보관하였습니다. 병인양요 때 불탔고, 200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의 귀환

프랑스군은 의궤 191종 297책을 포함한 도서 359점을 불태우지 않고 프랑스로 약탈해 갔습니다. 1975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촉탁 직원으로 일하던 박병선 박사가 약탈된 외규장각 도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에 알렸고, 1992년 우리나라 정부가 프랑스에 정식으로 도서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1년 6월 11일, 약탈당한지 145년 만에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임대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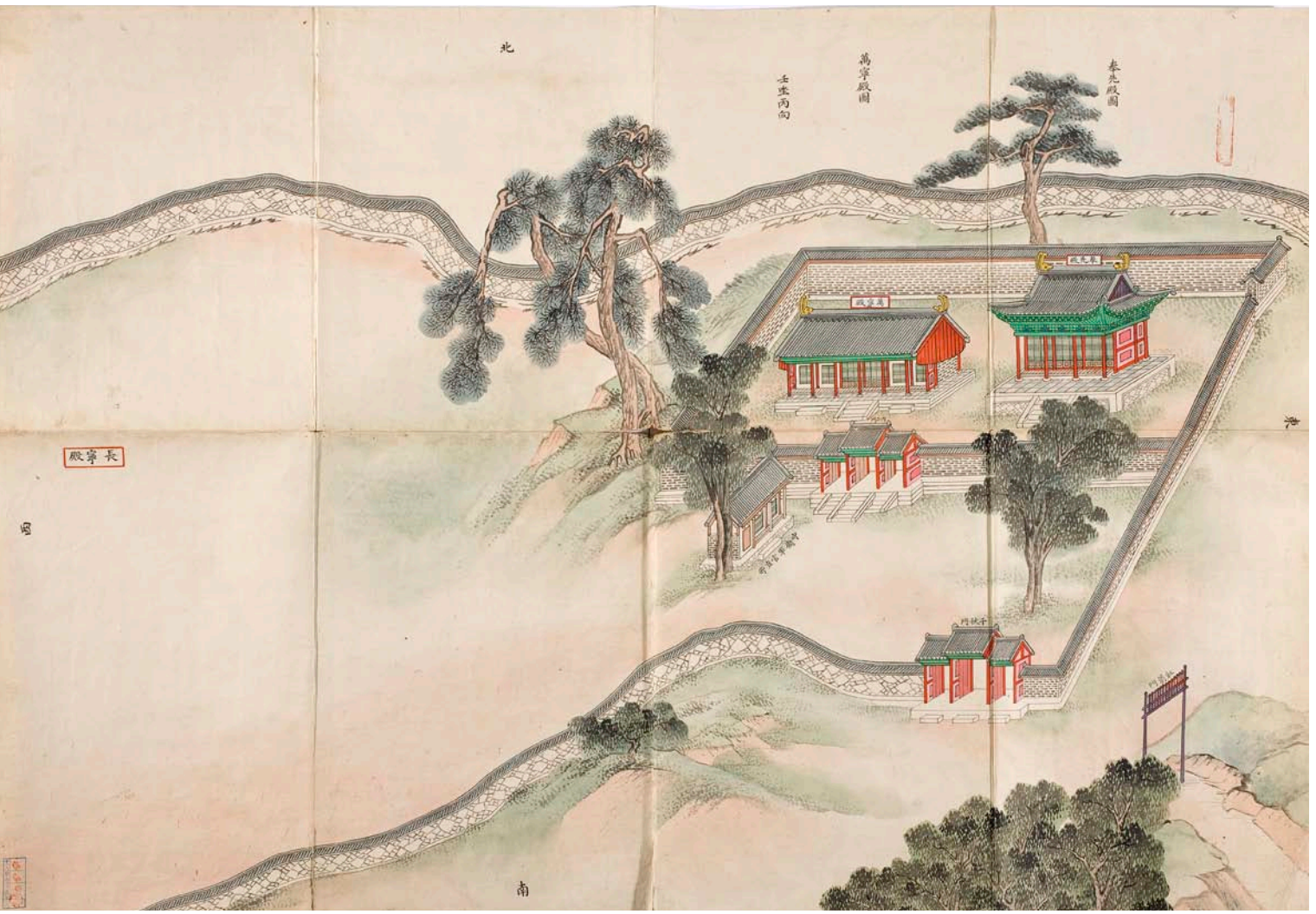


장녕전도 長寧殿圖

1695년숙종 21 강화유수 김구가 행궁 동쪽에 장녕전을 짓고 숙종 임금의 초상화인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숙종 임금은 장녕전을 지은 노고를 치하하여 김구에게 품계를 올려주었고, '장녕전'의 이름을 직접 써서 만든 편액을 하사하였습니다.

봉선전도奉先殿圖

봉선전은 1622년광해군 14에 처음 만들어졌고, 세조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병자호란 때 불타 없어졌다가 1858년 9월에 제건되었습니다. 만녕전은 1745년영조 21 별전을 개축하여 만들었으며, 영조 임금의 어진御眞을 모셨습니다. 두 건물 모두 병인양요 때 불탄 후 복원되지 못했습니다.



바다를 지켜라 : 화도진도花島鎭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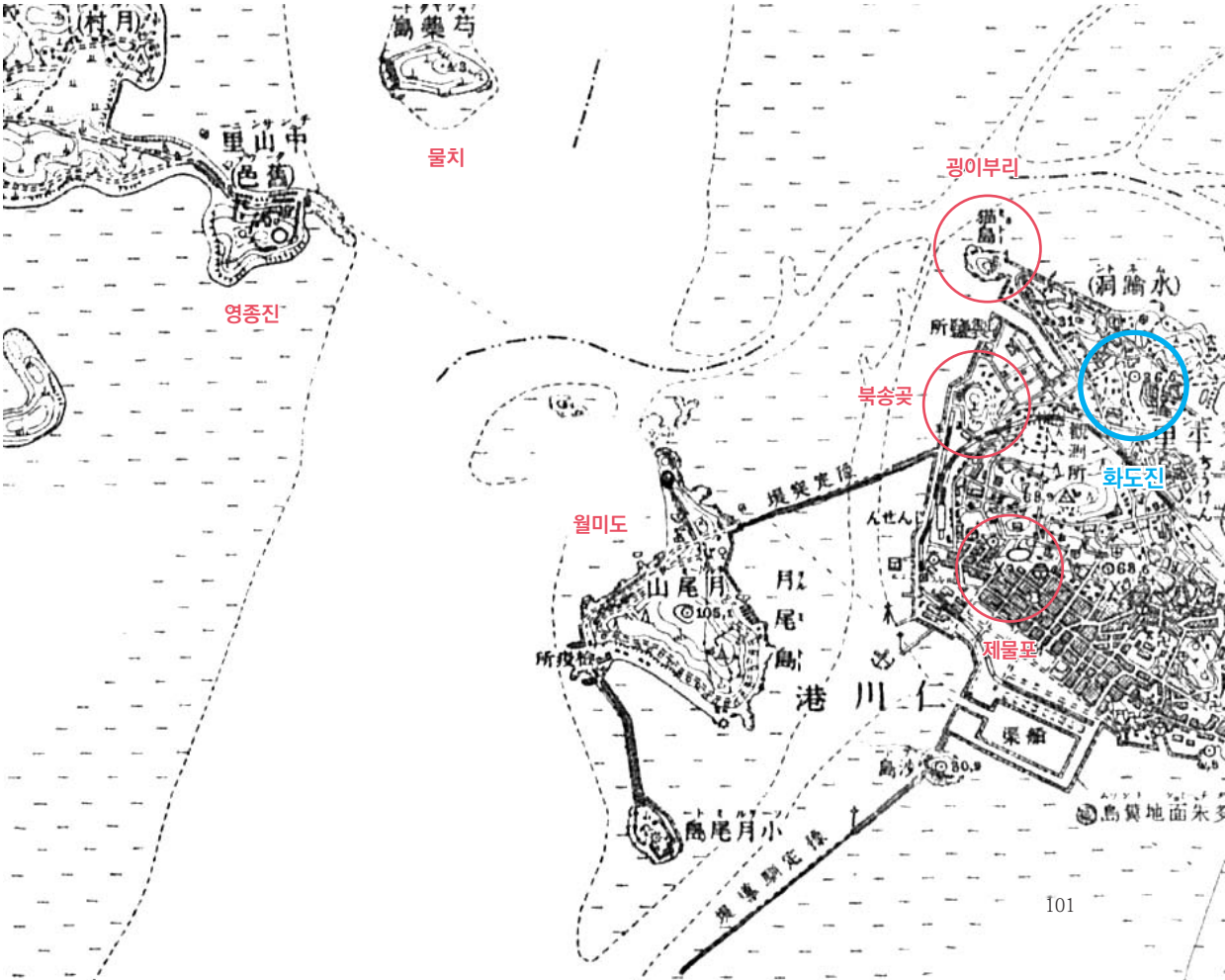
제작자 미상 / [1887] / 채색필사본 / 2장 / 28.1×22.2cm / 한古朝61-79

화도진도는 두 장의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지도는 인천도호부 전체와 바닷길이 지나가는 서해 바다의 섬 지역을 그렸고, 두 번째의 지도는 화도진花島鎭과 바로 근처의 관할 포대 지역만 그렸습니다. 화도진은 1879년 7월에 완성된 군사기지입니다.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과 서양의 개항 압박이 강해지면서 많은 근대식 대형 군함에 수천 명의 군대를 태우고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올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근대식 대형 군함은 한강을 오르기에는 너무 커서 서해안에 정박하여 군대를 상륙시킨 후 육로를 통해 수도 서울로 쳐들어올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은 인천의 제물포 지역에 군사기지인 화도진과 관할 많은 포대를 새로 설치하여 침략군의 상륙 자체를 저지하며 방어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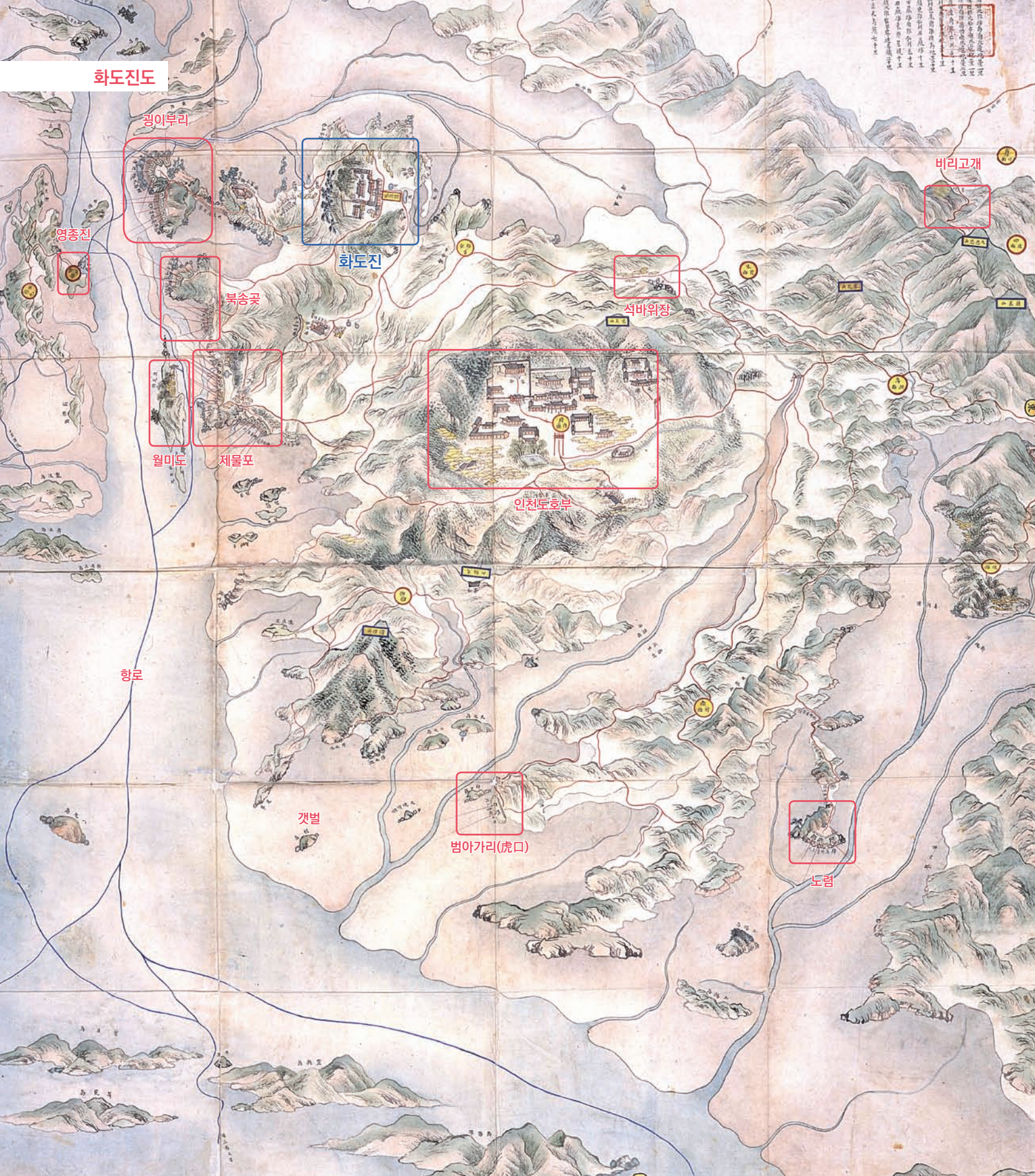
1) 왜 화도진이 인천의 제물포에 설치되었나?

조선은 근대식 대형 군함을 동원한 침략군이 서울로 쳐들어온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지점에 상륙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서울과의 거리가 가까워 육로로의 이동이 쉽고 둘째, 썰물 때도 근대식 대형 군함을 정박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이 깊은 곳입니다. 조선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을 조사한 후 그곳이 바로 인천의 제물포 지역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물포 앞 바다에는 썰물 때도 갯벌이 들어나지 않는 갯골이 해안가 가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의 곶섬花島에 표기된 한자를 따서 화도진花島鎭이란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해안가에 굉이부리猫島 포대, 북송곶北松串 포대, 제물포濟物浦 포대를 집중 배치하여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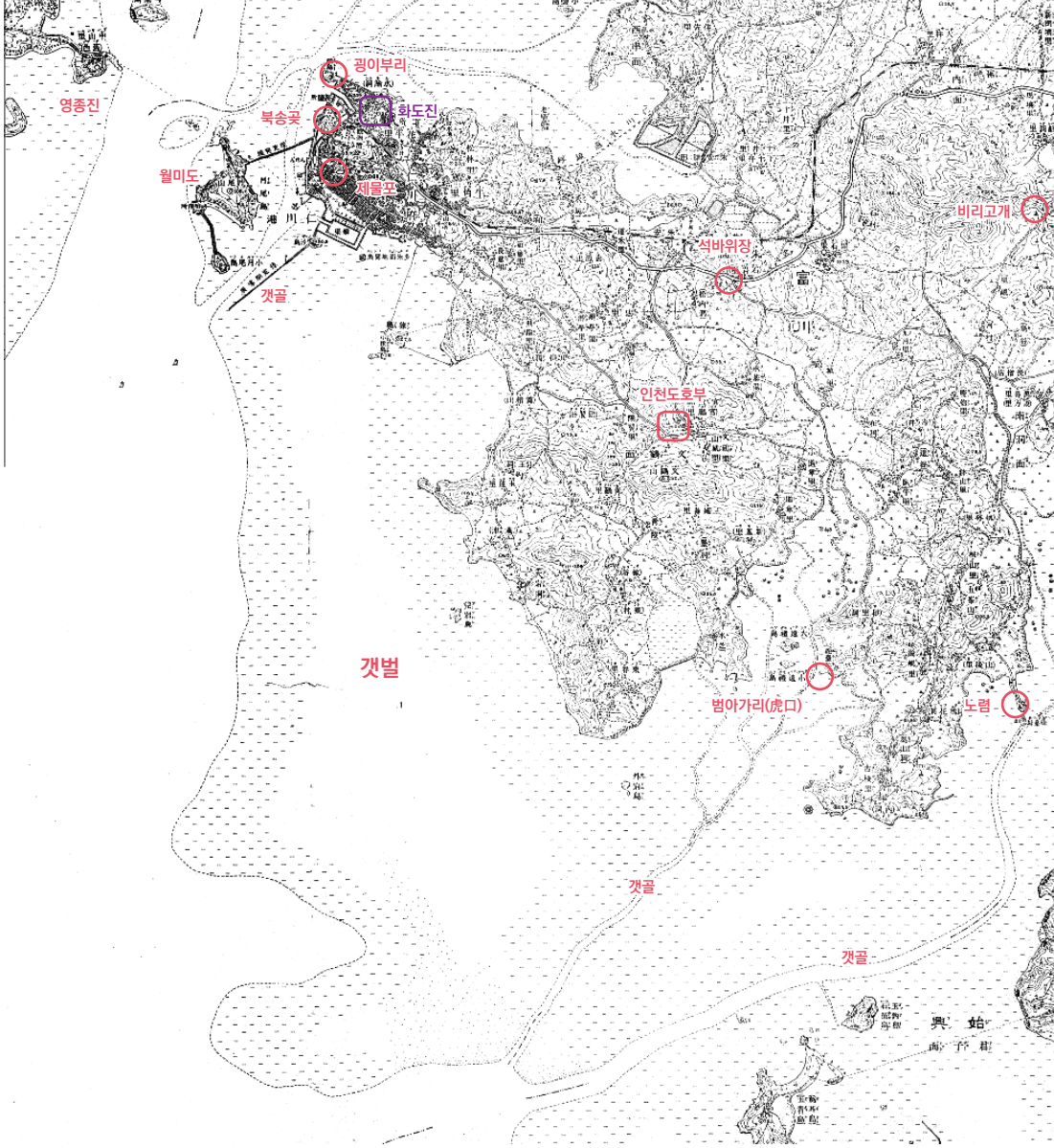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1:5만 지형도 위의 화도진과 포대



화도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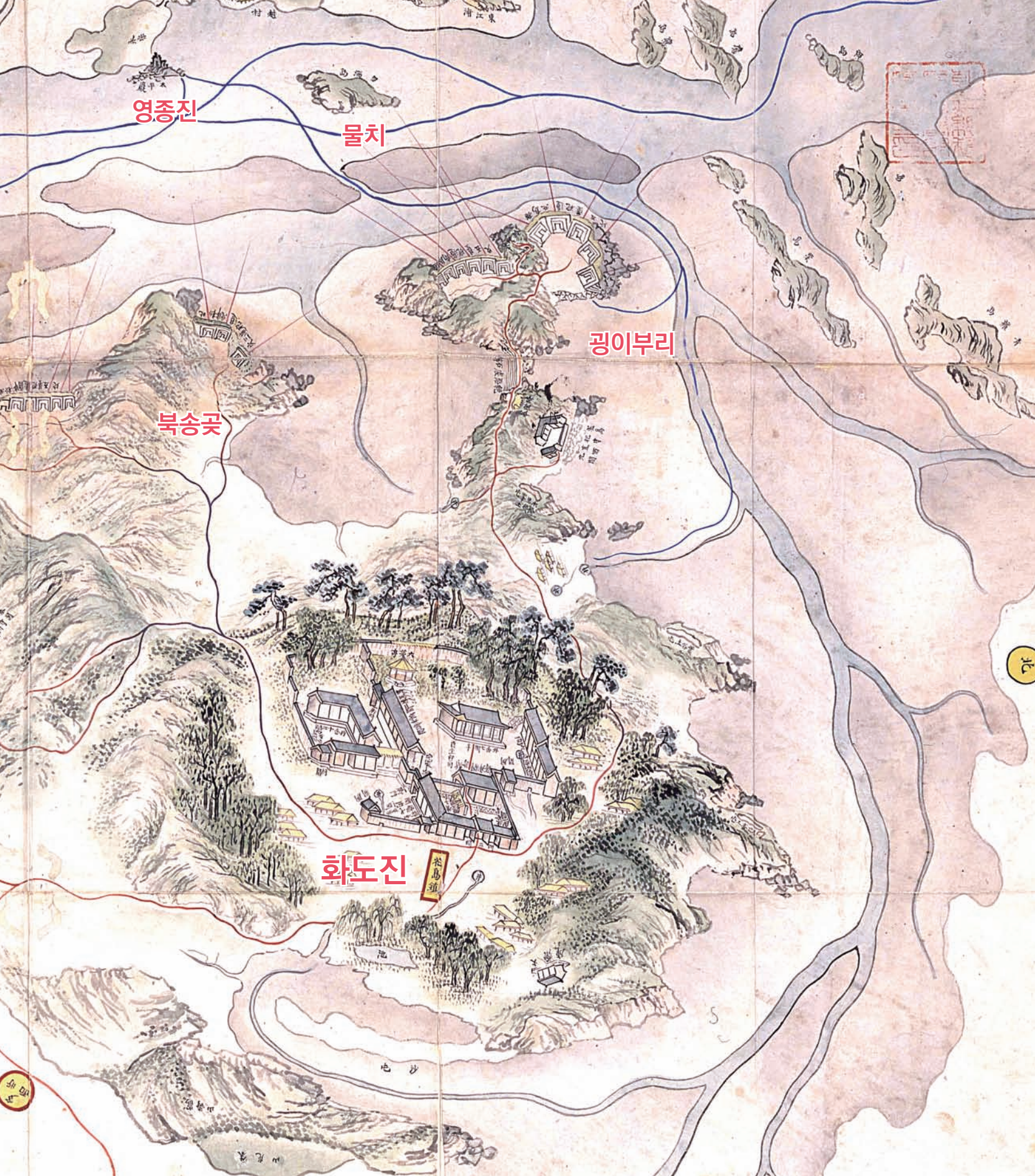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지형도 위의
화도진과 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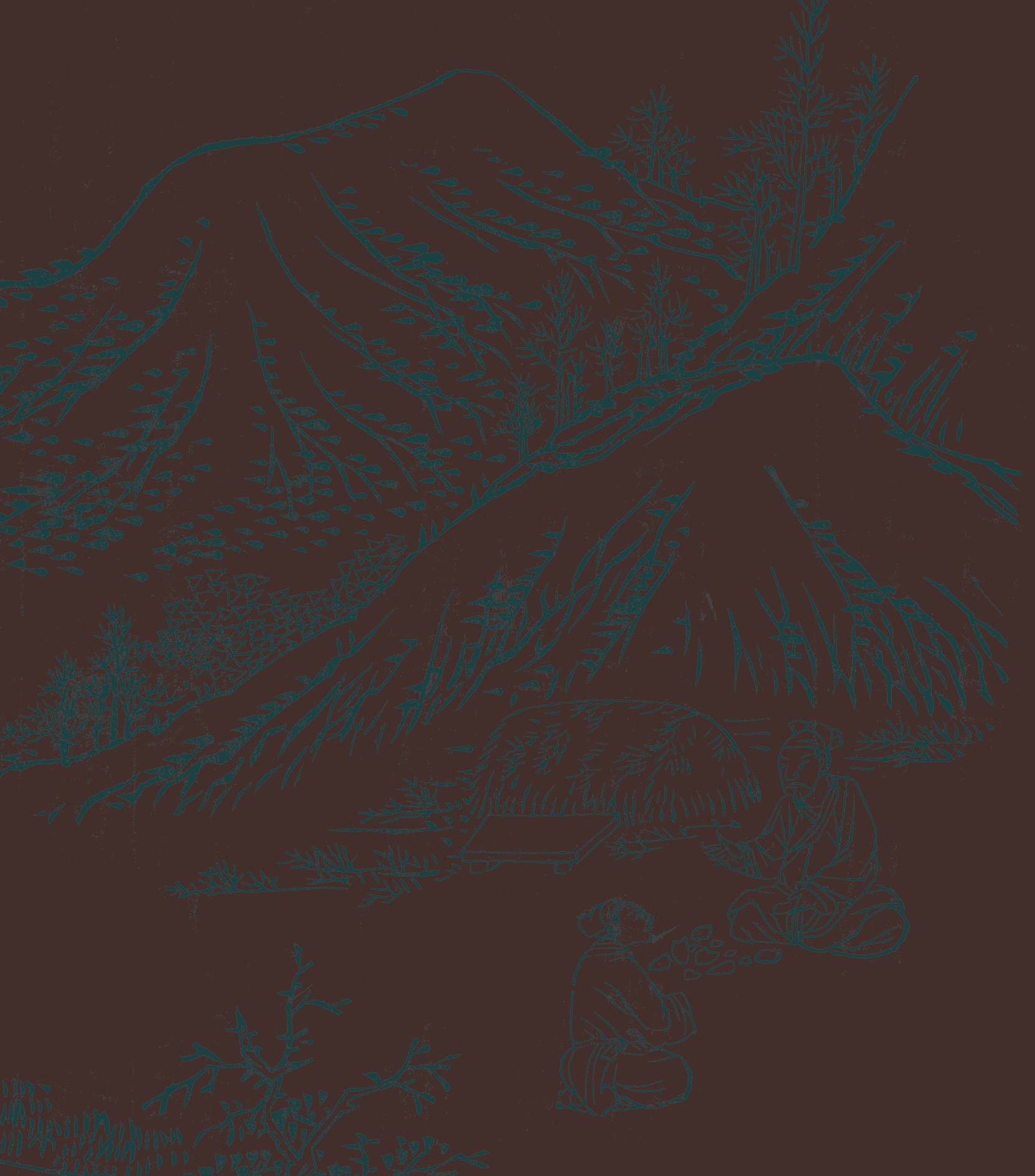


2) 제물포 지역 이외의 포대는 왜 그곳에 설치했나?

화도진도에서 가장 자세한 것은 첫째, 포대의 위치 둘째, 선박의 항로 셋째, 썰물 때 드러나는 갯벌과 갯골입니다. 썰물 때 갯벌이 드러나는 곳에는 근대식 대형 군함이 정박할 수 없습니다. 밀물 때는 정박할 수 있지만 썰물 때는 바닷물이 빠져나가 군함이 갯벌 위에 멈추면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갯골에는 바닷물이 남아 있어 군함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호부 남쪽 해안가 중 군함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갯골에 범아가리虎口 포대와 노렴獐島 포대를 설치하여 화도진에서 관할하며 방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범아가리 포대는 지금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의 서쪽 바닷가에, 노렴 포대는 논현동의 동쪽 바닷가에 설치했습니다. 노렴 포대가 있던 곳은 지금 소래포구로 유명합니다.

화도진도


영종진
물치
괭이부리
북송곶
화도진



4

삽화로 보는 인륜,
「행실도(行實圖)」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1428년세종 10 경상도 진주에 사는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을 때, 세종 임금은 백성들이 항상 읽을 수 있는 효행의 좋은 풍습에 관한 책을 만들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이에 설순偰循이 중심이 되어 효자 110명, 충신 112명, 열녀 96명의 사례를 선별한 후 매 편마다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그림을 그려 넣어 책을 만든 후 1434년세종 16에 효孝·충忠·정貞 '삼강三綱의 행실과 그림'이란 뜻의 '삼강행실도'란 이름으로 간행 반포하였습니다. 대부분 중국 사례이며, 우리나라 사례로는 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입니다. 성종재위: 1469~1495 연간에는 효자·충신·열녀 각각 35명씩 선별하고 한글 해석문을 단 언해본諺解本이 편찬 간행되었습니다.

이륜행실도 二倫行實圖

1518년중종 13 중종 때의 학자 김안국金安國의 제안에 따라 유교의 기본 윤리인 오륜五倫 중에서 장유長幼와 붕우朋友의 이륜二倫을 민간에 널리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조신曹伸이 편찬과 간행을 주관하였으며, 형제의 사례 25명, 종족宗族의 사례 7명, 붕우의 사례 11명, 사생師生의 사례 5명 등 총 48명의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사례 모두 중국인이며, 우리나라 사람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함께 한글 해석문을 단 언해본으로 편찬 간행되었습니다.

오륜행실도 五倫行實圖

정조 임금의 명을 받은 이병모李秉模 등이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해서 1797년정조 21에 간행한 책입니다. 다만 『삼강행실도』 전체를 그대로 실은 것이 아니라 효자 33명, 충신 35명, 열녀 35명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삼강행실도』에 들어 있던 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이 모두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한문-한글의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조선은 성리학 중심의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류의 책 모두 여러 시기에 걸쳐 간행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본異本과 번각본飜刻本 등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륜행실도 목판五倫行實圖 木板

소장처: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 제작연도: 1859년 / 크기: 30.2×30.2×24.0cm

1797년정조 21에 이병모李秉模 등이 왕명에 따라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하여 편찬한 금속활자본整理字 을 1859년철종 10에 복각한 목판의 일부이다. 현재까지 전하는 유일한 오륜행실도 목판으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식 화로囲爐裏의 외곽 보호용으로 변형되었다.

『삼강행실도』한朝古57-가931, 왼쪽와 『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오른쪽에 그려진 우리나라 인물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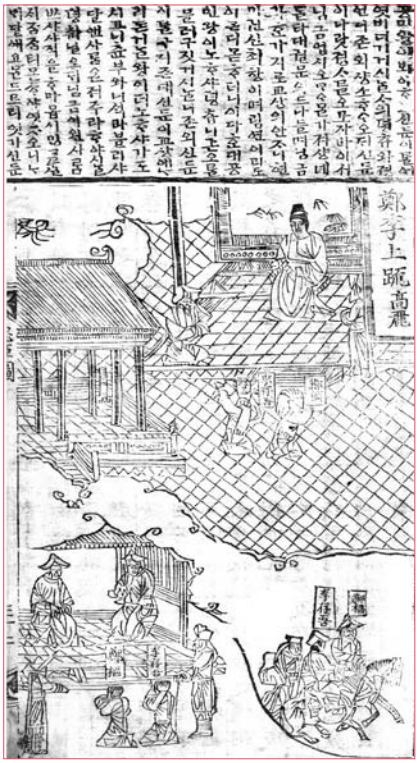
충신

堤上忠烈제상충렬

[박]제상의 충렬 [신라]

丕寧突陣비녕돌진

비녕[자]가 적진으로 돌진하다 [신라]



鄭李上疏 정이상소

정[추]와 이[존오]가 상소하다 [고려]

夢周殞命 몽주운명

[정]몽주가 목숨을 잃다 [고려]

吉再抗節 길재항절

길재가 절개를 지키다 [고려]

原桂陷陣 원계함진

[김]원계가 적진에서 전사하다 [본조-조선]

효자

婁伯捕虎누백포호

[최]누백이 호랑이를 때려잡다

[고려]

自强伏塚자강복총

[김]자강이 무덤에 엎드리다 [본조-조선]

石珍斷指 석진단지

[유]석진이 손가락을 끊다 [본조-조선]

殷保感烏 은보감오

[윤]은보가 까마귀를 감동시키다 [본조-조선]

열녀

彌妻偕逃 미처해도

[도]미와 아내가 함께 도망하다

[백제]

崔氏奮罵 최씨분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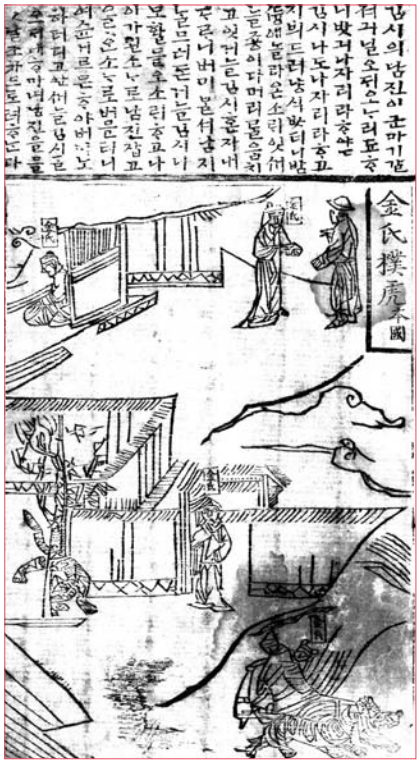
최씨가 분연히 꾸짖다 [고려]

烈婦入江 열부입강

[배]열부가 강물로 뛰어들다 [고려]

林氏斷足 임씨단족

임씨가 다리를 자르다 [본조-조선]



金氏撲虎 김씨박호

김씨가 범을 치다 [본조-조선]

金氏同穸 김씨동폄

김씨가 [지아비와] 함께 묻히다

[본조-조선]

『이륜행실도』古155-5, 왼쪽와 『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오른쪽에 그려진 중국 인물 4명

형제

卜式分畜복식분축

복식이 가축을 나누다 [한나라]

종족

公藝書忍공예서인

[장]공예가 참을 인(忍)자를 [백번] 쓰다

[당나라]

붕우

李勉還金[이면환금]

이면이 금덩어리를 돌려주다

[당나라]

사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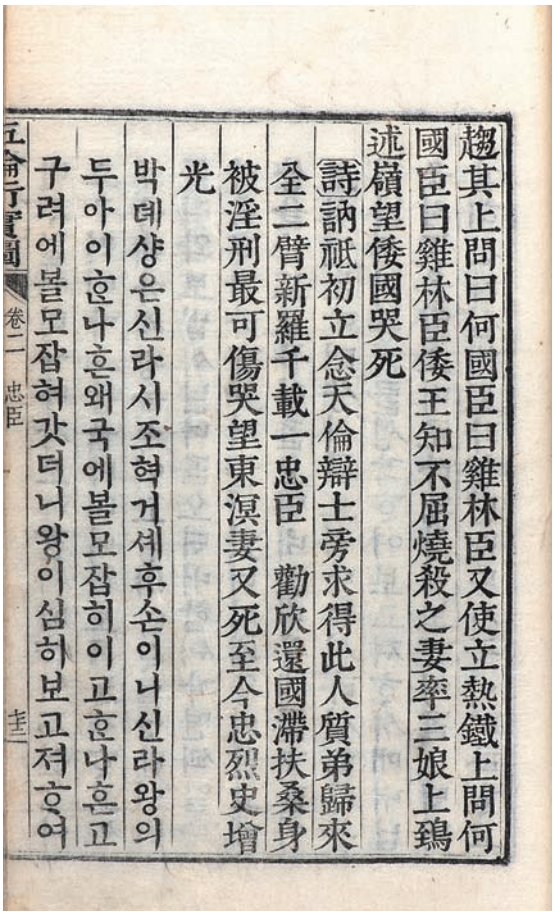
楊時立雪[양시입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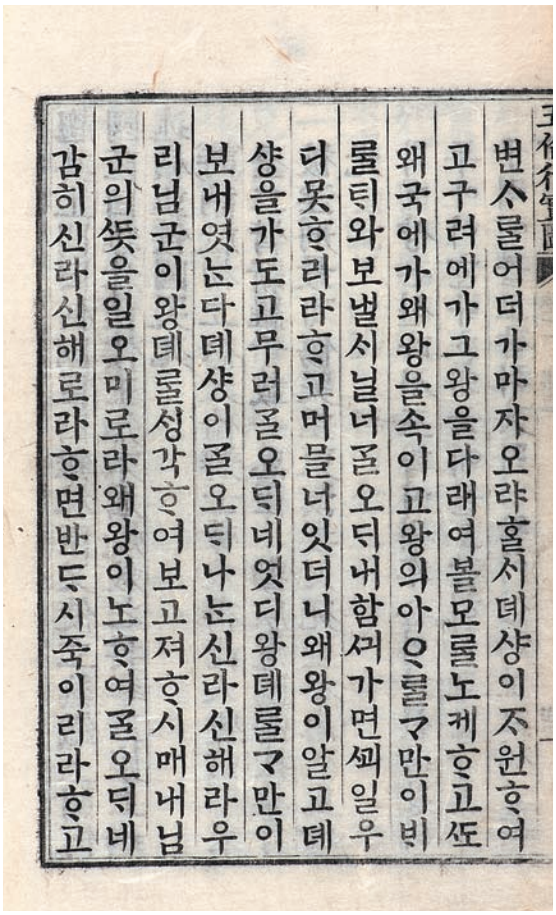
양시가 눈 속에 서 있다

[송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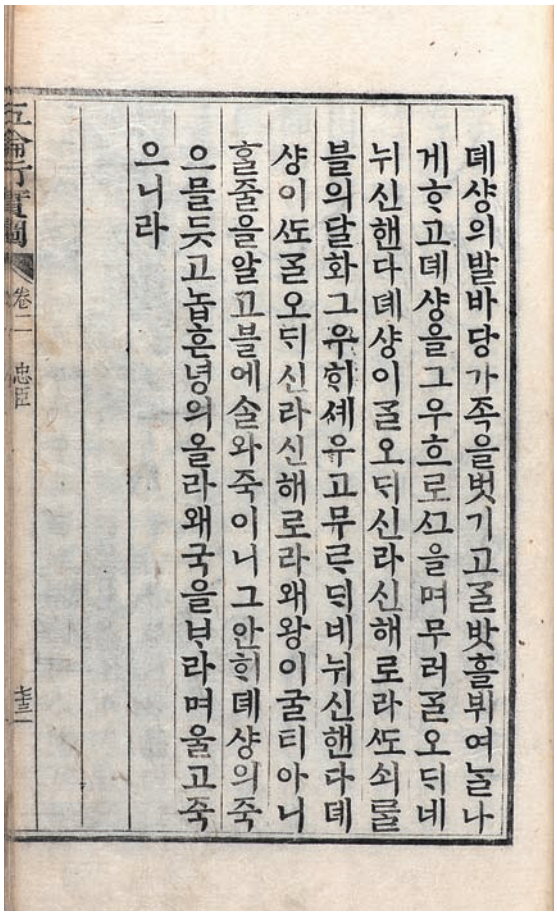
『오륜행실도』일산古155-17 충신 효자 열녀 이야기의 우리말 여행

[충신] 堤上忠烈(제상충렬) [박]제상의 충렬 [신라]


趨其上問曰何國臣曰雞林臣又使立熱鐵上問何
國臣曰雞林臣倭王知不屈燒殺之妻率三娘上鵄
述嶺望倭國哭死
詩訥祇初立念天倫辯士旁求得此人質弟歸來
全二臂新羅千載一忠臣　勸欣還國滯扶桑身
被淫刑最可傷哭望東溟妻又死至今忠烈史增
光
박뎨샹은신라시조혁거셰후손이니신라왕의
두아이ᄒᆞᆫ나ᄒᆞᆫ왜국에볼모잡히이고ᄒᆞᆫ나ᄒᆞᆫ고
구려에볼모잡혀갓더니왕이심히보고져ᄒᆞ여
五倫行實圖　卷一　忠臣


변ᄉᆞ를어더가마자오랴ᄒᆞᆯ시뎨샹이ᄌᆞ원ᄒᆞ여
고구려에가그왕을다래여볼모를노케ᄒᆞ고ᄯᅩ
왜국에가왜왕을속이고왕의아ᄋᆞ를ᄀᆞ만이ᄇᆡ
를ᄐᆡ와보낼시ᄂᆡᆯ너ᄅᆞ오ᄃᆡ내함ᄭᅴ가면ᄭᅬ일우
디못ᄒᆞ리라ᄒᆞ고머믈너잇더니왜왕이알고뎨
샹을가도고무러ᄅᆞ오ᄃᆡ네엇디왕뎨를ᄀᆞ만이
보내엿ᄂᆞᆫ다뎨샹이ᄅᆞ오ᄃᆡ나ᄂᆞᆫ신라신해라우
리님군이왕뎨를성각ᄒᆞ여보고져ᄒᆞ시매내님
군의ᄉᆞᆺ을일오미로라왜왕이노ᄒᆞ여ᄅᆞ오ᄃᆡ네
감히신라신해로라ᄒᆞ면반ᄃᆞ시죽이리라ᄒᆞ고

박제상은 신라시조 혁거세 후손이니 신라왕의 두 아우 (중) 하나는 왜국에 볼모 잡히고 하나는 고구려에 볼모 잡혀갔더니 왕이 심히 보고자 하여 변사辯士, 말솜씨가 좋은 사람를 얻어 가서 맞아 오라 할 때 제상이 자원하여 고구려에 가 그 왕을 달래여 볼모를 놓아주게 하고 또 왜국에 가 왜왕을 속이고 왕의 아우를 가만히 배를 태워 보낼 때 일러 가로되 '내 함께 가면 꾀도모한 일 이루지 못하리라'하고 머물러 있더니 왜왕이 알고 제상을 가두고 물어 가로되 '네 어찌 왕제王弟를 가만히 보내었는가?' 제상이 가로되 '나는 신라 신하라. 우리 임금이 왕제를 생각하여 보고자 하시매 내 임금의 뜻을 이룸이로다.' 왜왕이 노하여 가로되 '네 감히 신라 신하로다 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하고



제상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고 갈밭을 베어 날 나게[뾰족하게] 하고 제상을 그 위로 끌며 물어 가뢰되 '네 뉘 신한가?' 제상이 가로되 '신라 신하로다' 또 쇠를 불에 달궈 그 우에 세우고 묻되 '네 뉘 신한가?' 제상이 또 가로되 '신라 신하로다.' 왜왕이 (제상이) 굽히지 아니할 줄을 알고 불에 살라 죽이니 그 아내(가) 제상의 죽음을 듣고 높은 영[嶺, 고개]에 올라 왜국을 바라(보)며 울고 죽으니라.

[효자] 婁伯捕虎(누백포호) [최]누백이 호랑이를 잡다

西廬墓又三年小詞來誦眞非夢端爲哀誠徹九泉

최누백은 고려 적 수원 아전 상자의 아들이니 상자가 사냥하다가 범에게 해한[해를 당한] 바가 되니 이때 누백의 나이 십오세라. 범을 잡고자 하거늘 어미[어머니] 말리자 누백이 가로되 '아비[아버지]의 원수를 어찌 아니 갚으리오.' 하고 즉시 도끼를 메고 범의 자취를 따르니 범이 이미 (상자를) 다 먹고 배불러 누었거늘 누백이 바로 앞에 달려들어 범에게 꾸짖어 가로되 '네 내 아비를 해쳤으니 내 너를 먹으리라.' 범이 꼬리를 치고 엎드리거늘 도끼로 찍어 배를 헤치고 아비의 뼈와 살을 내어 그릇에 담고 범위 고기를 항(아리)에 넣어 물 가운데 묻고 아비를 홍법산 서편에 장사하고 여묘(살이) 하더니 하루는 꿈을 꾸니 그 아비 와서 글을 읊어 가로되 '가시덤불을 헤치고 효자의 집에 이르니 정을 느낌이 많음에 눈물이 무궁하도다. 흙을 져서 날마다 무덤에 더하니 지음[마음이 통함]은 명월청풍이로다. 살아서 봉양하고 죽으매 (무덤가를) 지키니 뉘 이르되 효의 시종[처음과 끝]이 없다 하리오.' (글) 읊기를 다함에 문득 뵈지 아니하더라. 거상[장례]을 마침에 범의 고기를 내어 다 먹으니라.

[열녀] 崔氏奮罵(최씨분매) 최씨가 분연히 꾸짖다 [고려]

최씨는 고려 적 영암 선비 인우의 딸이니, 진주 하장 정만의 처가 되어 네 자녀를 낳고 살더니, 왜적이 진주를 치니 고을 사람이 다 달아난지라, 정만은 서울 가고 도적이 여염(집)에 들어오니, 최씨 나이 젊고 자식이 있더니 여러 자식을 데리고 산중에 피난하였다가 도적을 만나 칼로 저희고위협하고 겁박하려 하니 최씨 나무를 안고 꾸짖어 가로되 '도적에게 더럽히고 사느니 차라리 죽으리라.' 하고 꾸짖기를 그치지 아니한데 도적이 드디어 나모 아래서 죽이고 두 자식을 잡아가니 셋째 아들 습은 나이 겨우 육세라 (어머니의) 죽음 곁에서 울고 강보에 (싸인) 아이는 오히려 기어가 젖을 빨아 먹으니 피 흘러 입으로 드는지라 그 아이 즉시 죽으니라. 그 후 십년 만에 감사 장하張夏(가) 나라에 장계하여 정문旌門하고 습의 구실(세납)을 덜어주니라.

5

삽화로 보는 부모님 은혜,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불설대보부모은중경』은 부모의 중요한 열 가지 큰 은혜十重大恩와 그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 경전입니다. 인도의 불교에서는 없던 경전으로, 수나라와 당나라 초기쯤에 중국의 유학을 기초로 불교사상을 중국인에게 교화시키기 위해 편찬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교화의 대상은 귀족이나 사대부 계층이 아니라 일반 서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기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려후기에는 이미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최고의 목판본은 1300년충렬왕 26에 간행된 고려본이며, 효孝를 강조하는 유교 국가 조선에 들어와서는 판본의 종류가 40종 이상이 될 정도로 특히 많이 유행하였습니다. 한자로만 기록한 것, 한자로 기록하면서 주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 넣은 것, 한자와 한글로 기록하면서 그림을 그려 넣은 것, 순 한글로만 기록하고 그림을 그려 넣은 것 등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부모은중경』의 그림이 변하다

위치	서명	간행자	판본	간행년	책수	청구기호
왼쪽 위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6-2
오른쪽 위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암사	목판본	1687	1	古1741-42
왼쪽 아래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340
오른쪽 아래	부모은중경:국역	선문출판사	연활자본	1990	1	古174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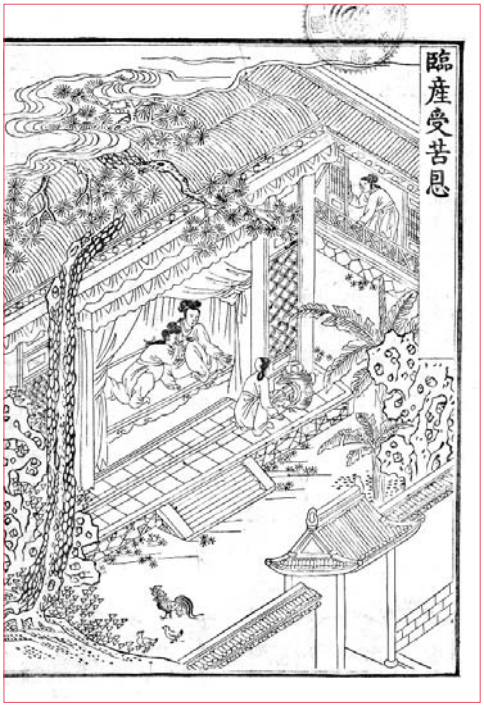
제1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 : 배 안에서 열 달 동안 길러주신 은혜

첫째 배안에서 열달동안 길러주신 은혜

(懷躭守護恩)

여러겁의 인연이 지중하여
금생에 다시 와서 모태에 의탁했네
한달한달 달이 차서 오장이 생겨나고
일곱달이 접어들자 육정이 열리도다
포태한 몸 무겁기는 태산과 같고
몸가짐에도 몹쓸질병이 겹이 나네,
비단옷은 모두다 입지않고
화장대엔 뿐얀 먼지만 쌓였네。

제2 임산수고은臨産受苦恩 : 해산할 때 고통 받으신 은혜



둘째 해산할때 고통받으신 은혜

(臨産苦受恩)

아이를 잉태한지 열달이 지나니
해산의 어려움이 닥아오네
아침마다 중병에 걸린듯
나날이 정신도 흐려지네
그 두려움 다 기억하기 어렵고
근심에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채 친족에 이르기를
이러다가 죽지않나 겁이 난다고。

제3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세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은혜

(生者忘憂恩)

자비로운 어머니 그대 낳던날
오장육부 모두 터져나간듯
몸과 마음 모두가 까무러쳤고
피를 흘려 놓은자리 짐승을 잡은듯
간난아기 충실하다 그 말을 들으면
그 기쁨 평소의 갑절이나 되었네
기쁨 가라앉자 슬픔이 되살아나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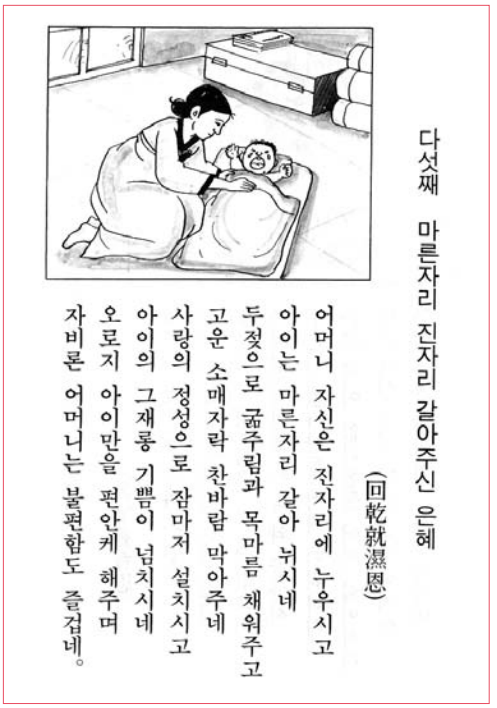
제4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 : 쓴 건 삼키고 단 건 뱉어 먹여주신 은혜

네째 쓴건 삼키고 단건 뱉아 먹여주신 은혜

(咽苦吐甘恩)

무겁고 깊은 것은 부모님 은혜
귀엽고 사랑함은 한때도 변치않네
단 것은 다 뱉으니 무엇을 잡수실까
쓴것만 잡수셔도 얼굴은 평안하네
자식 사랑 무거우니 정 참기 어려워
그은혜 더욱 깊어 슬픔다시 더하네
아이만을 배불리 먹이면
어머니는 배고픔도 사양치 않네。

제5 회건취습은迴乾就濕恩 :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주신 은혜



다섯째 마른자리 진자리 갈아주신 은혜

(回乾就濕恩)

어머니 자신은 진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자리 갈아 뉘시네
두젖으로 굶주림과 목마름 채워주고
고운 소매자락 찬바람 막아주네
사랑의 정성으로 잠마저 설치시고
아이의 그재롱 기쁨이 넘치시네
오로지 아이만을 편안케 해주며
자비론 어머니는 불편함도 즐겁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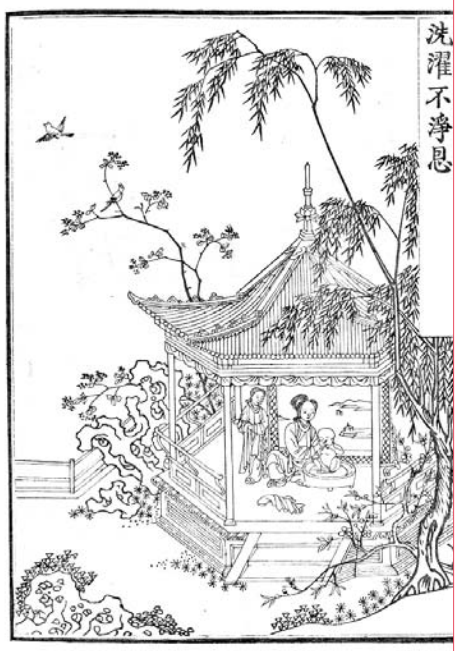
제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乳哺養育恩)

어머님 그은혜 땅과도 같고
아버님 높은 은혜 하늘과 같네
덮은하늘 실은땅이 은혜 같으니
아버님 어머님 뜻 그와 같아서
두눈이 없다한들 어찌 미워하리
손과 발이 없다한들 어찌 싫어하리
내속에서 친히 낳은 자식이기에
종일토록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제7 세탁부정은洗濁不淨恩 : 더러운 것은 씻어주신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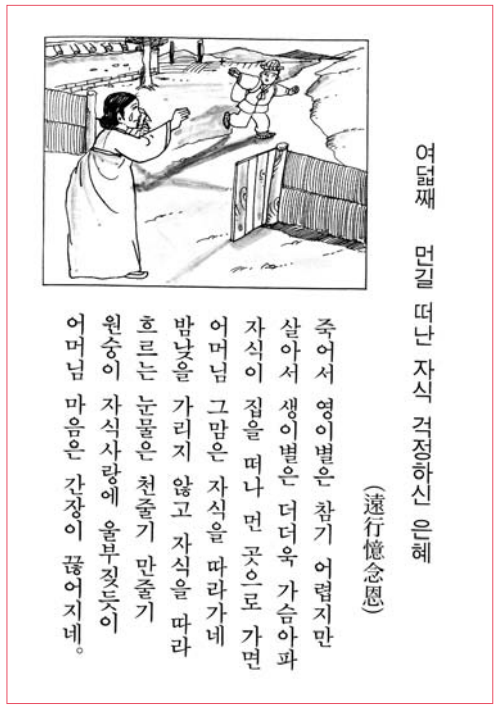


일곱째 더러운 것 씻어주신 은혜

(洗濯不淨恩)

생각하면 옛날엔 아름답던 그 얼굴
그 자태 곱고고와 풍염(豊艶)하셨네
갈라진 두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두 뺨은 붉은 연꽃도 무색였네
은혜가 깊을수록 그 모습 여위셨고
거울에 밤은 모습 빨래할때 상하셨네
아들딸 귀여움에 늙는 줄도 잊으시고
자비롭던 어머님 잔주름만 늘었네。

제8 원행억염은遠行憶念恩 : 먼길 떠난 자식 걱정하신 은혜



여덟째 먼길 떠난 자식 걱정하신 은혜
(遠行憶念恩)

죽어서 영이별은 참기 어렵지만
살아서 생이별은 더더욱 가슴아파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면
어머님 그맘은 자식을 따라가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따라
흐르는 눈물은 천줄기 만줄기
원숭이 자식사랑에 울부짖듯이
어머님 마음은 간장이 끊어지네。

제9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 자식 위해 모진 일도 다하시는 은혜

아홉째 자식 위해 모진일도 다하시는 은혜

(爲造惡業恩)

강산처럼 소중하신 아버지 어머니
깊을사 그 은혜 정말 갚기 어려워
자식의 괴로움 대신받기 원하시고
아이가 수고하면 그마음 편치않네
멀리 길 떠난다는 말들으면
떠나던 밤 춥게 자질않나 걱정이시네
아들딸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아프시네。

제10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 :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열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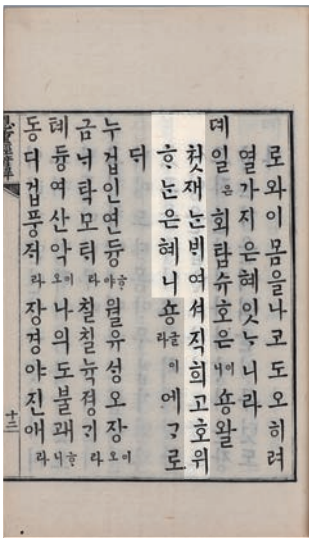
(究竟憐愍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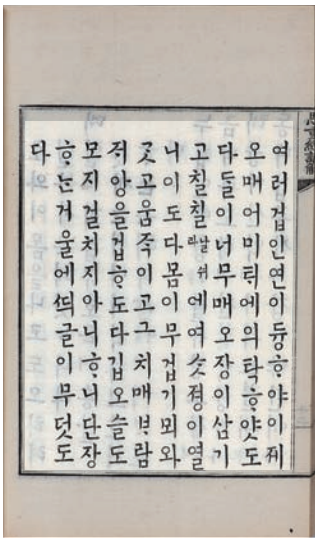
부모님 은혜는 깊고도 무거워
베푸신 크신 사랑 그칠때 없네
앉으나 서나 자식생각 끊임없고
멀거나 가깝거나 그뜻 따르네
어머님 높은년세 백세가 되셔도
팔십된 자식을 늘 걱정하시네
그 크신 이은애(恩愛) 언제나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한 후에 비로소 떠나리。

한글로 기록된 '제일회탐수호은第一懷躭守護恩'의 우리말 여행

번호	서명	간행자	판본	간행년	책수	청구기호
❶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	미상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6-2
❷	불설대보부모은중경	불암사	목판본	1687	1	古1741-42
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선문출판사	목판본	미상	1	한古朝21-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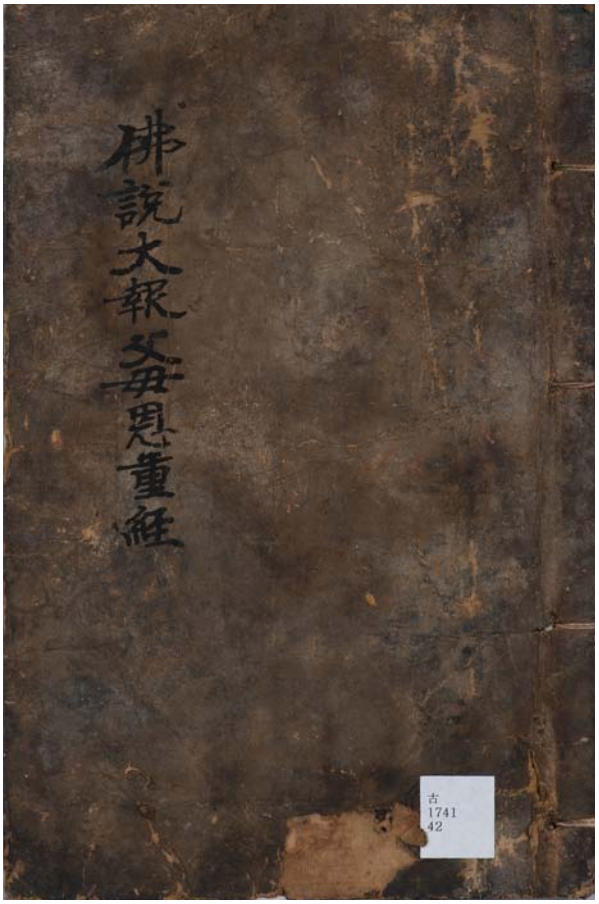
❶ 불설대보부모은중경과판한古朝2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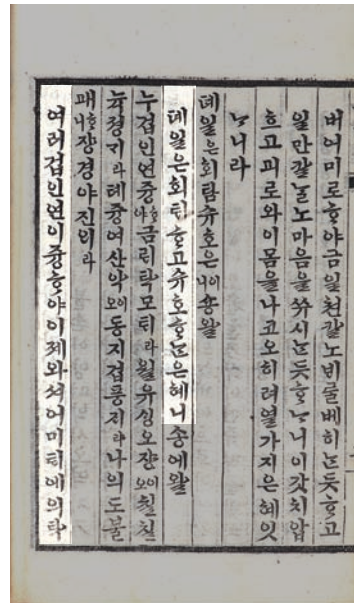
첫째는 (아기를) 배어서임신하여 지키고 호위하는 은혜니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 오니와서 어머니 태에 의탁하였도다.
달시간이 넘으니지나니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생기고 칠칠七七日에
여섯 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열리도다.
몸이 무겁기 뫼山와 같고 움직이고 그침에 바람 재앙을 겁하도다두려워하다.
깃옷비단옷을 도무지 걸치지 아니하니 단하는 거울에 티끌이 묻었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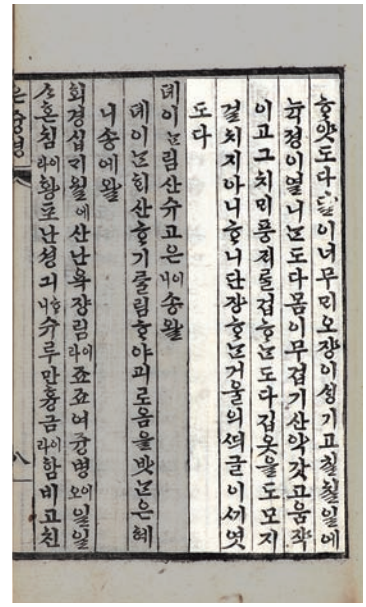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古1741-42



처음에 (아기를) 배어서[임신하여] 몸 간수하는 은[恩, 은혜]이라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와 어머니 배에 들도다.
달[시간]이 오르니[지나니]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나고 일곱 달이 되니
여섯 가지 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여낫도다[열리다].
몸이 무거워 뫼[山]와 같고[돌아] 다님에 바람을 저어하는도다[두려워하다].
깁옷[비단옷]을 입지 아니하니 거울에 티끌이 껴있도다.

불설대보부모은중경 한古朝21-340





제1은 회태[懷胎, 임신]하고 수호[守護]하는 은혜니

여러 겁[怯,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인연이 중하여[겹쳐서] 이제와서 어머니 태에 의탁하였도다.

달[시간]이 넘음에 오장[五臟,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이 생기고 칠칠일[七七日]에 육정[六精, 눈·귀·코·입·혀·뜻]이 열리난도다.

몸이 무겁기 산악 같고 움직이고 그침에 풍재[風災]를 겁하는도다[두려워하다].

깁옷[비단옷]을 도무지 걸치지 아니하니 단장하는 거울에 티끌이 끼었도다.

수하를 건너다

6

삽화로 보는 순례길, 「천로역정」

천로역정天路歷程

奇一 역 / 1895 / 목판본 / 2책 / 28.6×16.9cm / 古186-1-69

천로역정天路歷程은 영국의 작가 존 번연JohnBunyan이 1678년에 출간한 소설 『The Pilgrim's Progress from this world to that which is to come』을 캐나다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이 우리말로 번역하여 1895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책입니다. 영어 제목의 뜻은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이고,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절망의 늪' '죽음의 골짜기' '허영의 도시'를 지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장차 다가올 세상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과정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게일은 조선 사람들에 대한 기독교 선교에 도움이 되고자 번역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모든 문장을 썼으며, 주요 장면마다 총 45장의 그림을 그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림의 인물 모습을 조선 사람으로, 배경을 조선의 산하로 묘사하여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를 친밀하게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천로역정』1895의 그림 이야기

1 기독도(크리스챤)가 전도(자)에게 도(가르침)를 받다

크리스챤이 전도자를 만나 영생의 구원을 향한 순례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2 기독도가 집을 떠나다

크리스챤이 가족과 이웃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순례길을 향해 집을 떠납니다.

3 기독도가 이천(온순한 사람)을 데리고 고집(고집쟁이)과 이별하다.

크리스챤은 말리는 고집쟁이를 떨쳐버리고 온순한 사람과 함께 순례길을 떠납니다.

4 기독도가 우울니(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은조(도움 주는 사람)가 구원하다.

크리스챤이 불신과 두려움의 마음으로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도움 주는 사람이 구원해 줍니다.

5 세지(세속의 현자)가 기독도를 꾀이다.

세속의 현자가 영생을 향한 헛된 꿈보다는 현세의 즐거움을 깨닫고
누리라며 크리스챤을 현혹합니다.

6 기독도가 길을 잃었는데 전도(자)가 다시 가르치다.

세속의 현자에게 현혹당한 크리스챤이 순례길을 잃고 헤맬 때
전도자가 나타나 다시 가르침을 줍니다.

7 기독도가 좁은 문에 다다르자 인자(선량한 사람)가 열어준다.

크리스챤이 천국으로 가는 좁은 문에 이르자 선량한 사람이 나타나 문을 열어줍니다.

8 인자가 기독도를 천성길(천국으로 가는 길) 가르치다.

선량한 사람이 크리스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9 효시(깨달음을 주는 사람)가 방 쓰는데 물 뿌리는 이치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복음의 물을 뿌려 인간의 원죄인 먼지를 쓸어내는 이치를 가르쳐줍니다.

10 효시가 급한 욕심과 복을 기다리는 일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허황된 욕망을 극복하고 영생의 복을 기다리는 방법을 크리스챤에게 가르쳐 줍니다.

11 효시가 물로 불을 끄고 기름으로 불을 일어나게 함으로 기독도를 가르치다.

깨달음을 주는 사람이 마귀는 물로 은총의 불을 끄고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타오르게 한다는 이치를 크리스챤에게 가르쳐 줍니다.

12 기독도(가) 십자가에 다다라 죄짐을 벗으니 천사가 흰 옷을 입히다.

크리스챤이 십자가에 이르러 원죄의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자 천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히며 천국에 이르는 두루마기 통행증을 줍니다.

13 기독도가 담 넘어 오는 사람을 개유(開諭, 타이름)하다.

크리스챤은 올바른 길이 어렵고 힘들다며 지름길을 택하려 담을 넘어 오는 사람을 타이릅니다.

14 기독도가 회의(의심 많은 사람)와 심경(겁쟁이)의 말을 듣지 않다.

크리스챤은 고난의 길이 무서워 돌아오는 의심 많은 사람과 겁쟁이의 말을 듣지 않고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15 기독도가 잃었던 표지를 도로 찾았다.

크리스챤은 육체의 안락 때문에 정자에서 잃어버린 두루마리를 다시 돌아가 찾았습니다.

16 기독도가 사자 있는 데를 지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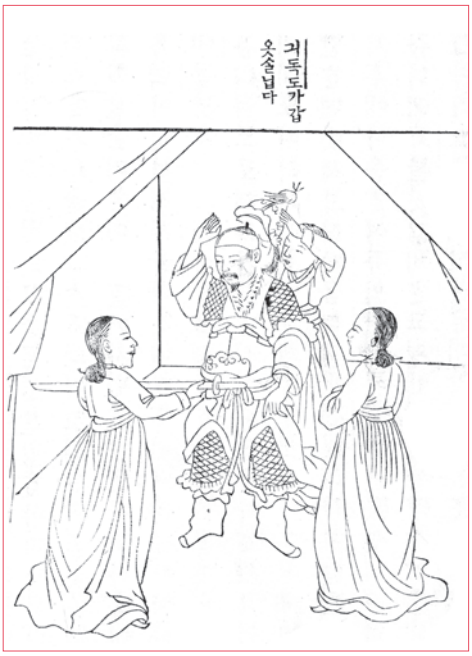
크리스챤이 시험하려 매어놓은 두 사자의 사이를 신앙의 믿음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17 기독도가 미궁(아름다운 집)에 다다랐다.

크리스챤은 순례자들에게 평안한 휴식과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놓은 아름다운 집에 이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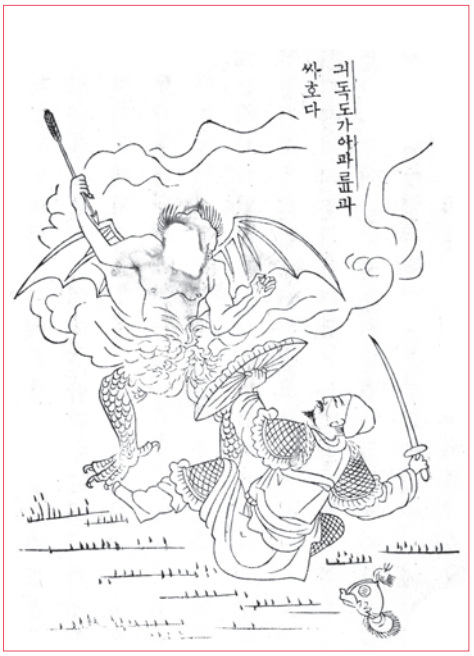
18 기독도가 미궁에 들어가다.

크리스챤은 아름다운 집의 네 자매로부터 신앙의 믿음을 인정받아 안내를 받아 들어갑니다.



19 기독도가 갑옷을 입다.

크리스챤이 아름다운 집을 떠나려 하자 순례길의 위험에 대비하도록 갑옷과 투구를 입혀 무장시켜 줍니다.



20 기독도가 (마귀) 아파륜과 싸우다.

크리스챤이 순례길을 막아선 마귀 아볼루운과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21 기독도가 악귀를 만나 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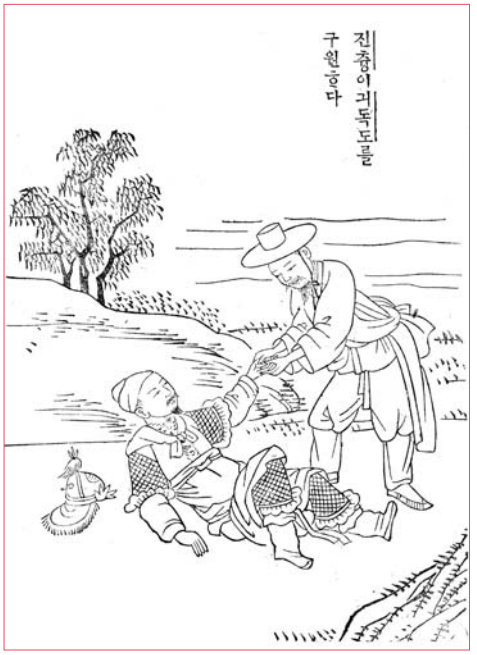
크리스챤이 마귀 아볼루운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여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칩니다.

22 기독도가 음예(음침한 골짜기)를 떠나니 햇빛이 비추다.

크리스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자 광명의 햇빛이 비춥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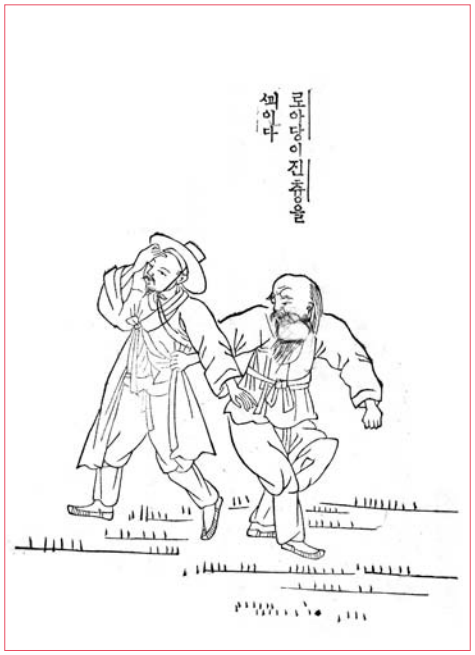
23 기독도가 (포악한) 천주교황을 지나가다.

크리스챤은 늙은 교황이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도 침착한 태도와 너그러운 표정으로 무사히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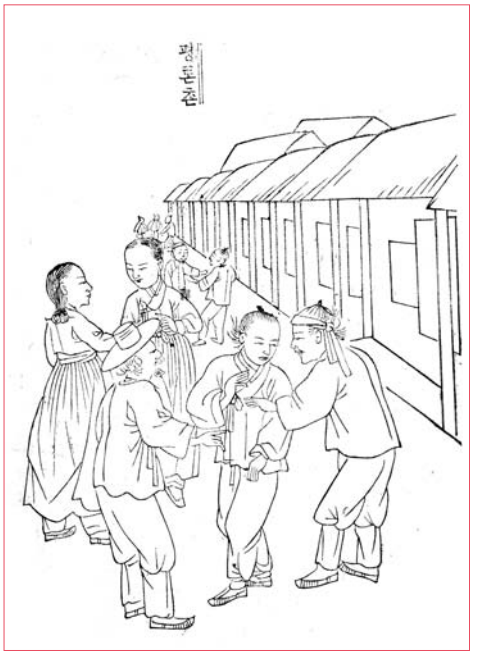
24 진충(믿음 많은 사람)이 기독도를 구원하다.

의기양양하게 앞서가던 자만심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크리스챤을 믿음 많은 사람이 달려와 구원해 줍니다.



25 로아당(수다쟁이)이 진충을 꾀이다.

수다쟁이가 믿음 많은 사람을 말로서 현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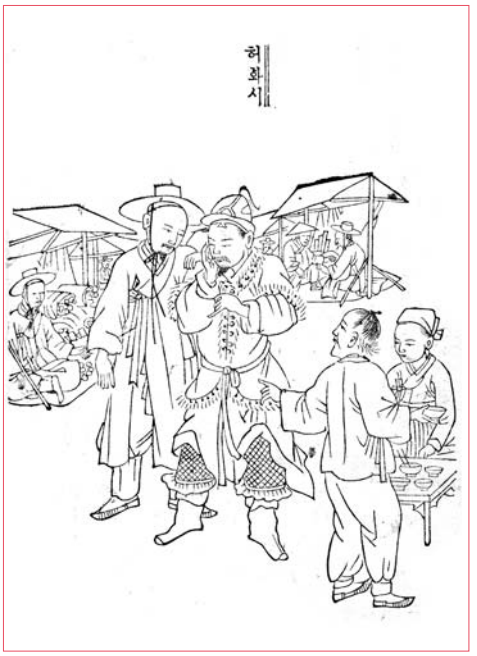


26 평론촌(수다쟁이 마을)

수다쟁이가 많이 사는 마을입니다.

27 기독도(와) 진충이 전도(자)를 다시 만나다.

수다쟁이가 떠난 후 크리스챤과 믿음 많은 사람이 전도자를 다시 만납니다.



28 허화시(허영의 도시)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가 꼭 거쳐야 하는 허영의 도시입니다.

29 기독도(와) 진충이 허화시에서 잡혀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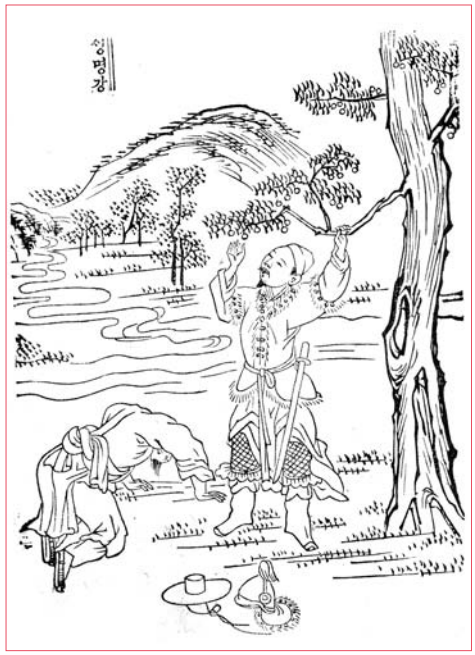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크리스챤과 믿음 많은 사람을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30 진충이 해를 받다(당하다).

믿음 많은 사람이 허영의 도시 법정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반론하다 사형에 처해집니다.

31 기독도(와) 미도(소망)가 라득의 처(가) 소금기둥 된 것을 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은 롯의 아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자 소금기둥이 된 유적을 봅니다.



32 생명강

크리스챤과 소망은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강'으로,
요한은 '생명수의 강'으로 부른 곳에 이릅니다.

33 기독도(와) 미도가 절망의 옥에 갇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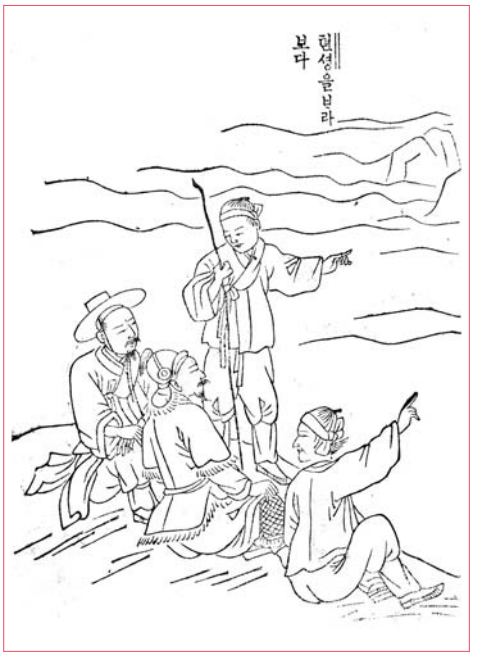
크리스챤과 소망이 편한 샛길로 들어섰다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 거인의 감옥에 갇힙니다.

34 기독도(와) 미도(가) 옥에서 도망하다.

크리스챤과 소망은 약속의 열쇠로 감옥의 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35 기독도(와) 미도(가) 이단산(기쁨의 산)에서 내려다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 올라 꼭대기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불신의 시체들을 내려다봅니다.



36 천성(천국)을 바라보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목자들이 건네준 망원경을 통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바라봅니다.

37 무지(어리석은 사람)를 만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지혜로운 척 하지만 실제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납니다.

38 광명한 사람이 기독도와 미도를 그물에서 구원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아첨쟁이를 따라가다 그물에 갇힌 것을 광명한 사람이 구해줍니다.

39 미도가 미기에서 졸다..

소망이 낯선 곳에서 졸기 시작했지만 크리스챤의 도움으로 잠을 자지 않고 천국을 향해 함께 갑니다.

40 천사를 만나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사를 만납니다.

41 사해를 건너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믿음의 힘으로 죽음의 바다를 건넙니다.

42 천국에 들어가다.

크리스챤과 소망이 드디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한글로 기록된 『천로역정』[1895] 도입부의 우리말 여행

천로역정권지상

화설[話說, 소설 시작할 때 쓰는 말]이라. 내가 천하 넓은 들로 구경 다니다가 한 곳에 이르러 곤한지라 한 구렁을 찾아 들어가 누어 자다가 꿈을 꾸니 한 사람이 해진 옷을 입고 한 곳에서 제 집을 등지고 돌아서서 손에 한 책을 쥐고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책을 읽을 때에 울며 떨며 슬퍼하다가 견디지 못하여 크게 불러 가로되 어떻게 하랴 하고 근심하는 모양으로 집에 돌아오매 그 처자들은 왜 근심하는지 알지 못하는지라 제 걱정이 점점 더하매 참지못하여 말하며 탄식하여 가로되 내 사랑하는 처자들이 내 몸에 근심을 지고 있어 장차 죽을 것이요 우리 사는 성[城, 도시]도 천화[天火, 하늘의 불]에 사라질 것을 내가 정녕 아노니 이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가 도무지 멸망함을 면치 못할 터이니 어찌 할꼬 만일 생명(의) 길 하나를 예비치 아니하면 능히 피할 수 없으나 사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그 가속이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나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미친 줄로 알아 생각하되 자고 깨면 아침에나 마음이 나을까 하여 급히 침방으로 보내니 밤에도 낮과 같이 걱정하며 한 잠도 자지 못하고 걱정하며 울더니 아침이 되매 처자가 들어와 어떠하냐고 묻거늘 대답하되 걱정할수록 더 걱정스럽다 하고 다시 그 말을…

참고문헌

김문식, 2010,『왕세자의 입학식』, 문학동네

김지용, '원행을묘정리의궤'일산古159-21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나종면, '기로회도폭'한貴古朝57-가783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남도영, 2007,『목장지도 해제』, 국립중앙도서관

미상, '강화부궁전도'한貴古朝62-178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배현숙, '불설대보부모은중경'古貴1741-44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수원시(편), 1996,『(서울대학교규장각본)원행을묘정리의궤 : 역주』, 수원시

심재우 등, 2013,『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돌베개

윤진영, '영종사마도'한貴古朝61-나67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윤진영, '춘궁강학도'古貴0230-1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윤진영, '효간공연시장'한貴古朝80-32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이기봉, '목장지도'한貴古朝56-나27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이기봉, '화도진도'한古朝61-79 초록/해제정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남지기로회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부모은중경',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삼강행실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오륜행실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륜행실도',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천로역정', 한국학중앙연구원, 네이버 지식백과

옛책 속의
그림 이야기

총괄 박경숙
기획 봉성기, 이기봉
글 · 편집 이기봉

발행일 2020년 6월 12일
발행인 서혜란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 · 590 · 0505
팩스 02 · 590 · 0712
홈페이지 www.nl.go.kr

인쇄 선명인쇄

ISBN 979-11-6513-048-0(03010)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202-01

비매품/무료
03010
9 791165 130480
ISBN 979-11-6513-048-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